



579돌 한글날 | 알면 알수록, 한글
제17회 집현전 학술대회

디지털 혁명 시대 한글과 한국어 발전 가능성과 과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1, 2강의실

2025. 10. 13. 월 10:30 ~ 16:10

생중계

외솔길

(외솔회 유튜브)



주최



외솔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외솔회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인사의 말씀

2025년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돌이 되는 해이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79돌이 되는 해입니다. 한글 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문화 단체들과 함께 '알면 알수록 한글'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한글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외솔회에서는 '디지털 혁명 시대 한글과 한국어 발전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글 주간에 제17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지피티(Chat-GPT) 등 우리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체제의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갖게 되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향후 각 나라의 언어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 언어 차원에서 그 영향력과 효용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해결 과제를 검토하고, 한국어 사용과 문화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교육, 평가, 실생활 적용까지 한글과 한국어 발전 가능성과 과제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문자로서 한글 발전과 활용 영역, 한국어 사용과 문화 영역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 영역으로 1부, 2부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제1부 문자로서 한글 영역에서는, 남북한 분단 80년 동안 달라진 남북 언어 이질화 극복 방안, 한글의 우수성을 활용한 문자 없는 민족어의 한글 표기 가능성, 글자를 넘어선 음성과 그림 영역에서 한글 확장, 예술과 상업 영역에서 한글디자인 활용 등 여러 영역 전문가를 모셔서 연구한 것을 발표로 듣겠습니다. 제2부 한국어 사용과 문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주권(sovvereign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능력 평가, 한국어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탐색, 외국어 방송 한국어 자동번역 등 여러 영역의 연구 성과와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연구 주제를 맡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 주시는 발표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학술대회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수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한글과 한국어 문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갑니다. 고맙습니다.

2025. 10. 13.

외솔회장 이창덕

[일정표]

-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1, 2강의실
- 일시: 2025년 10월 13일(월) 10:30 ~ 16:10

579돌 한글날 기념 제17회 집현전 학술대회 대주제: 디지털 혁명 시대 한글과 한국어 발전 가능성과 과제

등록 ·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
10 30 ~ 10 40	대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10 40 ~ 10 50	축 사	한수(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제1부	주제1: 한글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사회: 김홍범(한남대)
10 50 ~ 11 15	남북 언어 차이 극복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권재일(서울대학교)
11 15 ~ 11 40	해득에서 문해력으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의 확장 가능성 탐색	김은혜(한남대학교)
11 40 ~ 12 05	한글로 적는 대상의 확대와 과제	고동호(전북대학교)
12 05 ~ 12 30	한글 제자 원리와 디자인 상용화 가능성	우실하(한국항공대학교)
12 30 ~ 14 00	점 심	
제2부	주제2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발전 가능성과 과제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4 00 ~ 14 25	인공지능 주권 확립과 한글의 역할	이재호(경인교육대학교)
14 25 ~ 14 50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현황과 과제	백재파(동아대학교)
14 50 ~ 15 15	인공지능의 한국어 일반상식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필요 정보 탐색	김양진(경희대학교)
15 15 ~ 15 40	외국어 방송언어 한국어 자동번역 어디까지 왔나?	정병창(경상국립대학교)
15 40 ~ 16 00	종합토론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6 00 ~ 16 10	폐회사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차 례

주제 : 디지털 혁명 시대 한글과 한국어 발전 가능성과 과제

제1부: 한글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 남북 언어 차이 극복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권재일(서울대학교 명예교수)9
- 해득에서 문해력으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의 확장 가능성 탐색
김은혜(한남대학교 전임연구원)30
- 한글로 적는 대상의 확대와 과제
고동호(전북대학교 명예교수)46
- 한글 제자 원리와 디자인 상용화 가능성
우실하(한국항공대학교 교수)58

제2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발전 가능성과 과제

- 인공지능 주권 확립과 한글의 역할
이재호(경인교육대학교 교수)79
-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현황과 과제
백재파(동아대학교 교수)102
- 인공지능의 한국어 일반상식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필요 정보 탐색
김양진(경희대학교 교수)113
- 외국어 방송언어 한국어 자동번역 어디까지 왔나?
정병창(경상국립대학교 교수)130

종합토론

분과발표

주제 1

제1부

한글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남북 언어 차이 극복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권재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기

다음 문장은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16년 증보판)에 있는 어떤 단어의 뜻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소젓을 기본원료로 하고 여기에 카카오가루 또는 카카오크림, 사탕가루, 젓기름, 유화제, 향기성 물질 같은것을 넣어서 얼큰 아이스크림의 한가지. 흔히 곁에 초코레트를 씌우고 속에 꼬챙이를 넣어 얼구어서 종이에 싣는다.”

이 뜻풀이가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에스키모’로, 우리가 ‘아이스케이크’라고 하는 단어이다. 또 위 문장에서 ‘소젓, 사탕가루, 초코레트’는 ‘우유, 설탕, 초콜릿’을 말한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은 단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남한말과 북한말의 차이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상당 부분 남북의 언어 구조는 같고, 얼마간의 어휘 차이가 있을 정도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다음 글은 2002년 당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문영호 소장이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남한말과 얼마나 다를까? 보다시피,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현시기 언어 분야에서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민족어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지켜나가는 근본 원칙으로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높이고 북남 사이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는 기본 방도로 됩니다. 우리 말과 글의 민족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언어 수단은 우리 겨레가 오랜 옛날부터 창조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어 유산을 발굴 정

리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척시켜 나감으로써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몇 단어를 살펴보자. 북한에서 쓰는 ‘박띠’는 무슨 뜻일까? 발표자가 고려항공을 탔을 때 ‘박띠를 매시오’라 되어 있어 얼른 이해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박띠의 ‘박’은 ‘동여멜 박縛’이었다. 북한 《조선말대사전》(2016년 증보판)의 ‘박띠’ 뜻풀이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체나 동체 또는 어떤 기구에서 가슴이나 허리에 띠는 띠’이다. 이처럼 분단 이후에 생겨난 말에서 남북 언어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남북 언어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남북 언어 차이를 음운, 문법, 어휘, 화법, 그리고 어문규범으로 나누어 실태를 서술하고, 이어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과 이 사전 편찬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발표문에 쓰인 자료는, 북한에서 펴낸 《조선말대사전》(2016년 증보판)을 비롯하여, 발표자가 이미 발표한 글 권재일(2006, 2012, 2014, 2025) 등에서 인용한 것이다.

2. 남북 언어 차이의 실태

2.1. 음운

자음과 모음을 포함한 음소 체계에 있어서 남북 언어를 대조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원래 음소 체계란 짧은 기간에 쉽사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 언어 다 같이 19 자음체계와 10 단모음체계를 가진다. 다만, 단모음 가운데 ‘외, 위’를 남한 표준발음법에서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비해, 북한 발음법에서는 ‘위’를 어떤 환경에서나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점이 서로 다르다.

남북 언어의 음운변동 현상도 실제 큰 차이가 없지만, 두음법칙에 있어서는 양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말에 있어서는 광복 후 두음법칙 현상을 없애는 것을 규범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말에서도 외래어 수용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발음법 규정에 따르면, 한자어는 음절마다 한자어의 현대 소리에 따라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ㄱ’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ㄱ’로(예: 로동), ‘ㄴ’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ㄴ’으로(예: 여자)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과 ‘ㅌ’의 구개음화 현상은 남북 언어 모두에 나타난다. 과거 평안방언은 실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예: 던깃불, 똥다), 현재 북한말에서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전깃불, 좋다’로 발음하고 있다. 구개음화 현상을 통해 볼 때, 북한의 문화어가 평양말을 근간으로 했다 해도, 평안방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표준어를 참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문법

남북 문법은 음운과 마찬가지로 원래 같은 언어에 기반을 둔 만큼 다를 수가 없다. 그러나 규범문법 기술에 관한 한,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품사 분류를 살펴보자.

북한 문법은 다음과 같이 8개의 품사를 두고 있다.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남한 문법과의 차이점은 조사가 빠진 것이다. 조사는 체언에 참여하는 문법형태로 용언에 참여하는 문법형태(남한말의, 어미)와 동등하게 품사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묶어 ‘토’라는 범주를 설정한다. 북한 문법에서 토의 범위를 처음에는 격조사와 보조조사로 한정하였으나 이어서 용언의 어미 및 사동과 피동의 접미사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토는 체언토, 용언토, 바꿈토로 체계화하는데, 그 가운데 용언토는 다시 맺음토, 이음토, 꾸밈토, 엮음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로 체계화한다. 맺음토에는 말법과 말차림의 범주를 설정한다.

2.3. 어휘

북한은 1949년부터 한글전용이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이래 언어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법, 표준어의 보급과 함께 어휘의 대대적인 정화인 말다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1966년 김일성 교시에 의해 ‘문화어’가 만들어졌다.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문화어 제정으로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남한말의 기준으로 볼 때, 남한의 어휘와 다른 북한의 어휘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달라진 원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1] 남한의 표준어가 아닌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 [2] 남한에서도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의미로 쓰는 어휘
- [3] 남북 분단 이후 북한에서 새로 쓰는 다듬은말과 외래어

2.3.1.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광복 이전부터 남북 언어에는 방언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어휘에서 그러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다듬은말 가운데는 남한말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평안방언이나 함경방언을 북한에서 문화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채소에 대한 ‘남새’, 거위에 대한 ‘게사니’, 옥수수에 대한 ‘강냉이’가 그 예이다. 몇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가마치	←	누룽지
눅다	←	헐하다
닭알	←	달걀
망돌	←	맷돌
발쪽	←	족발
오레미	←	올케
아츰다	←	애처롭다
어방	←	어림

2.3.2.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의미로 쓰는 어휘

남한에서도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는 광복 이후 서로 사회 제도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형태의 차이는 없으나 의미가 다르게 남북에서 사용되는 어휘들도 많다. 역시 정치성이 강한 어휘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무’의 경우, 남한 사전의 뜻풀이는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인 데 비해, 북한 사전의 뜻풀이는 ‘같이 어울리어 사귀는 사람’이라는 뜻풀이에 앞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 풀이한다. ‘어버이’ 역시 남한 사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일컫는 말’에 대하여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분을 끝없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높이며 이르는 말’로 북한 사전은 뜻풀이한다. 남북의 사회 이념과 가치가 어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더 예를 들면, ‘선동’의 경우,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나 북한에서는 ‘어떤 행동에 나서

도록 부추겨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쓴다. '세포'의 경우, 남한에서는 생물학 용어로 쓰는데,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말단기층조직.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기본조직'이라는 뜻으로도 쓴다. '바쁘다'의 경우,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는 뜻으로 자주 쓴다. '보기 바쁘다, 말하기 바쁘다'는 보거나 말하는 것이 매우 딱하다란 뜻이다. '시끄럽다'는 '성가시도록 말쟁이나 가탈이 많다, 정신을 차릴수 없게 번거롭거나 번잡스러워서 귀찮다'란 뜻으로도 쓴다. '일없다'의 경우, 남한에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쓰는 말이지만, 북한에서는 '꺼리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별고없이 괜찮다'는 뜻으로 쓴다.

2.3.3. 북한에서 분단 이후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

남북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새로 쓰는 어휘에는 다듬은말과 외래어가 있다. 먼저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에 따라 바꾸거나 새로 만든 어휘들의 예이다.

다듬은말	←	본래말
교예	←	서커스
손기척	←	노크
잔집	←	소화물
큰물	←	홍수
피돌기	←	혈액순환

새로 만든 말

사로청(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공훈리발사, 로동영웅, 밥공장, 선군사상, 원쑤, 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 주체시대, 혁명가정

다음은 소련이나 동유럽권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여 남한과 달라진 외래어, 외국 지명의 경우이다. 그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외래어	
남한말	북한말
달러	딸라

로켓	로케트
마라톤	마라손
마이너스	미누스
백신	왁쎌
캠페인	깜빠니아
컴퓨터	콤포터
토마토	도마도
트랙터	뜨락또르

외국 지명

남한말	북한말
러시아	로씨야
루마니아	로므니아
체코	체스꼬
네덜란드	네데를란드
스웨덴	스웨리에
벨기에	벨지꼬
멕시코	메히꼬
캄보디아	캄보자

그러나 어휘의 차이를 북한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한말에는 광복 이후 수많은 외래어가 쓰이고 있어서 남북 언어의 어휘가 차이 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의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지나친 외래어 사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언어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는 바로 남한말에 지나치게 많이 쓰이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일이라 하겠다.

2.4. 화법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이 대화할 때에는 그 표현 방식이 달라서 서로 오해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남한사람들은 간접 표현에 익숙하고, 북한사람들은 직접 표현에 익숙해서 오해가 생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람이 헤어지면서 ‘언제 차 한잔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라는 인

사말을 끝이곧대로 듣고 연락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남한사람이 말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와 같이 예들려 거절하는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고 끝내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아 무척 속상했다고 한다.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과 달리 사과, 감사, 칭찬 표현을 매우 어색해한다. 그래서 남한사람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주었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지 않아 고마움도 모르는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섭섭했다고 했다.

그래서 남북 언어 사용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음이나 어휘, 문법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한 대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언어생활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감사하기, 사과하기, 상대방을 배려하며 거절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2.5. 어문규범

우선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라는 띄어쓰기 차이가 있다. ‘아는 것, 중요한 바’와 ‘아는것, 중요한바’도 띄어쓰기 차이이다. ‘역사’와 ‘력사’의 차이, ‘올바르게’와 ‘옳바르게’의 차이도 있다.

남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바이다.

북한: 우리 나라 력사를 옳바르게 아는것이 중요한바이다.

남한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광복 후에도 이를 나라의 공인된 맞춤법으로 삼고 계속 사용해 오다가, 이를 수정·보완한 새로운 ‘한글맞춤법’을 198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1954년에 ‘조선어철자법’을 정해 사용하다가, 다시 1966년에 ‘조선말규범집’으로 바꾸고 그 이후 수정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남북의 표기법은 이와 같이 서로 교류 없이 각각 시행해 온 결과 지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북한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남한 표기법은 표음주의가 기본원칙이고 형태주의는 이에 대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겹자모까지를 하나의 자모 단위로 보아 자모 수를 40개로 하였고, 자모의 이름은 ‘기읍, 니은, 디은’ 등으로 통일하였으며, ‘쌍기역, 쌍디근’ 등은 ‘된기읍, 된디은’ 등으로 바꾸었다. 남한은

24 자모를 그대로 유지하며, 자모의 이름도 ‘기역, 니은, 디귤 ……’, 쌍기역, 쌍디귤’ 등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어문규범 중, 사이시옷의 경우는 크게 차이 나는 규범이다. 그리고 두음법칙 적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일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 표기에 차이가 있다.

남한: 역사, 여성, 노동, 낙원

북한: 력사, 녀성, 로동, 락원

3.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남북 언어 차이 극복 노력

3.1. 《겨레말큰사전》이란?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분단 이후 남북에서 달라진 어휘를 뜻풀이에 적극 반영하는 사전이다. 그리고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함께 단일 어문규범을 작성하여 편찬하는 사전이며, 기존의 남북 사전에 수록되지 못했던 지역어 및 문헌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올림말로 수록하는 사전이다.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 남북이 공통으로 쓰는 말은 우선하여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북이 합의하여 단일화하여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실을 대사전이다. 이러한 내용을 2005년 봄 남북 학자들이 합의하여, 해마다 네 차례씩 남북 학자들이 함께 모여 사전편찬회의를 개최해 왔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올림말 선정 작업이다. 남북 양측이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역은이: 국립국어연구원, 펴낸데: 두산동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년, 편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전편찬집단, 낸곳: 사회과학출판사)을 검토하여 선별한 어휘와, 남북 양측에서 새로 조사한 새 어휘를 검토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23여만 개의 올림말을 선별한다.

둘째, 새 어휘 조사 작업이다.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새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로 7만여 개의 새 어휘를 발굴하여 수록한다. 새 어휘 조사는 지역어 조사와 문헌어 조사로 나뉘어 시행되며, 지역어 조사는 4만여 개, 문헌어 조사는 3만여 개, 모두 7만여 개의 새 어휘를 수록한다.

셋째, 뜻풀이 작업이다. 남북의 편찬위원들이 집필요강을 작성하여 올림말 속구조, 집필 방식,

뜻풀이 방식 등을 합의하고, 본 집필을 2009년부터 시작하였다.

넷째, 단일 어문규범 작성 작업이다. 남북의 어문규범 전문가들이 자모 배열 순서, 두음법칙, 사이시옷 표기,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 남북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어문규범을 단일화하는 작업이다. 단일화된 어문규범을 《겨레말큰사전》 집필 작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3.2. 《겨레말큰사전》의 가치, - 미리 준비해 두다 -

발표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으로 품었던 사업의 가치는 “미리 준비해 두다”였다.

한글학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적은 1933년에 맞춤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의 글자생활의 규범을 정했고, 1936년에 표준어를 가려 뽑음으로써 언어생활의 규범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복 전에 미리 이 두 규범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다. 1945년 광복되어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았을 때, 큰 혼란과 혼돈 없이 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국어 교육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규범을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허비하고 국어 교육은 우왕좌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은 지금과는 달리 완전히 서로 다른 규범을 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미리 준비해 둔 이 어문규범을 통해, 광복 이후 같은 뿌리의 말글정책을 펼쳤으니, ‘미리 준비해 둔’ 덕분이다.

남북의 언어학자가 서로 만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통해 언어 통합을 실현하는 것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국토 통일에 앞서서 이런 언어 통합을 미리 준비해 둬으로써 어떠한 혼돈도 없이 효과적으로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다는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은 그 가치가 따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크다.

발표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또 다른 가치에 주목한다. 첫째는 서로 차이 나는 남북 언어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올림말 선정에서도, 뜻풀이와 보기글 집필에서도, 어문규범에서도, 언어 이론과 서로 다른 사회 상황을 두루 참조하여 누가 보아도 가장 타당하다고 평가할 합의안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의의라 생각한다.

둘째는 사전 편찬 인력을 양성하였다는 것이다. 20세기를 끝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전 편찬은 중단되었다.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완하는 조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곳은 지난 20년간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유일하다. 만약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사전 편찬은 막을 내렸고 사전 편찬 인력은 사라졌을 것이다. 이점은 우리나라 사전 편찬, 나아가서 국어학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고 자부한다.

3.3. 일반 어휘 단일화

일반 어휘 단일화는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올림말 선정 과정을 살펴 그간 어휘 단일화의 성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3.3.1. 올림말 개요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원칙은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선정 작업요강’에 따라, 남북이 각각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문제점을 찾아, 먼저 공통적인 올림말을 확정하고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수 있는 것과 올릴 수 없는 것, 토의하여 해결할 것들을 가려냈다. 다음으로 두 사전에서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 쉽게 단일화할 수 있는 것과 토의를 더 해야 할 어휘를 가려내며, 《겨레말큰사전》에 올리지 않을 어휘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3.3.2. 남북이 서로 다른 형태인데 단일화한 어휘

남북 사전에서 서로 다른 형태인데 형태를 단일화한 어휘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화한 어휘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거북이	거북이	거부기
걸죽하다	걸쭉하다	걸죽하다
곰곰이	곰곰이	곰곰히
곶배기	곶빼기	곶배기
금이	금니	금이
나뭇기다	나부끼다	나뭇기다
넋두리	넋두리	넋두리
늦둥이	늦둥이	늦둥이
더욱이	더욱이	더우기

도리어	도리어	도리여
돈중	돈쫙	돈중
드디어	드디어	드디여
맛깔	맛깔	맛갈
미쟁이	미장이	미쟁이
빚깔	빚깔	빚갈
선부르다	선부르다	서부르다
설거지	설거지	설겅이
숨바꼭질	숨바꼭질	숨박꼭질
아리답다	아리답다	아릿답다
안스럽다	안스럽다	안스렵다
외톨이	외톨이	외토리
이빨	이빨	이발
일찍이	일찍이	일찌기
짓궂다	짓궂다	지궂다
하마터면	하마터면	하마트면
헤엄	헤엄	헤염

3.3.3. 다음 예는 복수 형태를 인정한 예이다. 즉, 남한말에서 ‘아내’, 북한말에서 ‘안해’인 것을 둘 다 받아들이는 예이다.

복수 표기 어휘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아내/안해	아내	안해
벼씨/벼씨	벼씨	벼씨
햅쌀/햅쌀	햅쌀	햅쌀
달걀/닭알	달걀	닭알
오투기/오투기	오투기	오투기

3.3.4. 합의하지 못한 올림말

합의하지 못한 올림말의 대표적인 예는 남한의 ‘일꾼, 장꾼, 나무꾼’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일군, 장군, 나무군’으로 표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정치, 군사적인 어휘들이 있다.

3.4. 외래어 단일화

남북의 외래말이 차이 나는 까닭은 여럿 있으나, 북한이 옛 소련이나 동유럽권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여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남북의 외래어 표기가 서로 다르다. 우선 ‘ㄱ’ 항에서 양쪽 사전 모두에 올려 있는 외래어를 살펴보면 남북이 같은 것은 ‘가솔린(gasoline), 가운(gown), gaze(가제), 게놈(Genom), 게릴라(guerilla), 고릴라(gorilla), 고무(gomme), 골프(golf), 그리스(grease), 기타(guitar)’ 등 85개이며, 서로 다른 것은 ‘갈륨/갈리움(gallium), 갱/깡(gang), 고딕/고지크(gothic), 그래픽/그라히크(graphic), 카피/꼬삐(copy)’ 등 86개이다. 표기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반반인 셈이다.

지금까지 《겨레말큰사전》 편찬에서 외래어 표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남북이 서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이 차이가 있는 것은, [1] 남한 외래어로 표준화하거나, [2] 북한 외래어로 표준화하거나, [3] 제3의 안으로 표준화하거나, [4] 둘 다 인정하여 복수로 하였다. 몇몇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남한 외래어로 표준화한 것

<u>남한말=표준</u>	북한말
고딕	고지크
나일론	나이론
뉴앙스	뉴앙스
디자인	데자인
벤치	벤취
시럽	시롭
아마추어	아마츄어
저널리즘	저닐리즘

[2] 북한 외래어로 표준화한 것

<u>북한말=표준</u>	남한말
알콜	알코올
기브스	깁스
라벨	레이블
런닝	러닝
로봇트	로봇

본네트	보닛
세퍼드	세퍼드

사실 [2]와 같은 북한말은 현재 남한에서도 흔히 쓰고 있는 외래어이다. 그래서 이들을 북한에서 쓰는 외래어로 표준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남한 사람들도 남한 표기인 ‘알코올’로 표기하는 경우보다 북한 표기인 ‘알콜’로 표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남한에서 ‘깁스, 러닝, 로봇, 보닛’ 못지않게 ‘기브스, 런닝, 로보트, 본네트’도 익숙하다.

[3] 제3의 안으로 단일화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기아	기어	기야
다이알	다이얼	다이얄
리아카	리어카	리아까
메세지	메시지	메쎬지
몽따주	몽타주	몽따쥬

[4] 복수로 인정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깁런/깁론	깁런	깁론
그래프/그라프	그래프	그라프
그래픽/그라픽	그래픽	그라휘크
댄스/단스	댄스	단스
라디오/라지오	라디오	라지오
레슬링/레스링	레슬링	레스링
배드민턴/바드민톤	배드민턴	바드민톤
벡터/벡토르	벡터	벡토르
보일러/보이라	보일러	보이라
멘트/세멘트	시멘트	세멘, 세멘트
에너지/에네르기	에너지	에네르기

3.5. 뜻풀이 단일화

《겨레말큰사전》의 남한과 북한의 편찬위원들이 집필요강을 작성하여 올림말 속구조를 확정

하고 집필 방식, 뜻풀이 방식 등을 합의하였다. 합의한 방식에 따라 실제 공동으로 뜻풀이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측이 나누어서 먼저 시범 집필을 하고 이를 교환하여 검토한 다음, 최종 합의하는 과정이다. ‘선동’(煽動)을 예를 들어, 뜻풀이를 단일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제1단계]: 북한의 시범 뜻풀이

- ① 대중에게 어떤 큰 일이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호소하고 그들의 기세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
- ②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것.

[제2단계]: 남한의 시범 뜻풀이

남을 부추겨 일이나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

[제3단계]: 북한의 시범 뜻풀이에 대한 남의 검토 의견

- 뜻갈래 배열에서는 기본적으로거나 본질적인 뜻갈래를 앞세운다. 따라서 ②가 ①보다 앞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뜻갈래 배열은 올림말의 글자 그대로 뜻에 가까운 것을 앞에 배치한다. ‘기본적이거나 본질적인 뜻갈래’는 고빈도 용법이 아니라 올림말의 본디 뜻에 초점을 둔다.
- 체제나 이념이 달라 뜻풀이에 차이가 생긴 올림말은 따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뜻갈래 배열이나 선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따라서 ①은 ② 뒤에 두되, 남한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은 고쳐서 제시한다. 이를 남한 측에서 받아들일 만하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 ② 북녘에서, 어떤 큰 일에 적극 나서도록 호소하고 기세를 북돋아주는 사업.
- 상대측 사상과 이념에 따라 뜻풀이에 차이가 생긴 올림말은 뜻풀이 전체를 최대한 존중하되,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은 고쳐 제시하고 상대측의 검토를 받는다. 지역 정보는 주지 않고, 뜻풀이 앞에서 ‘남녘에서’, ‘북녘에서’로 제한표현을 준다.

[제4단계]: 남한의 시범 뜻풀이에 대한 북의 검토 의견

- 북 원고에 보인 뜻①은 결코 체제나 리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고취하는것이 아니며 북의 언어 현실을 반영한것이므로 하나의 갈라진뜻으로 주었다. 그러나 두번째 뜻으로 할수는 있을것이다.

[제5단계]: 남북이 합의한 뜻풀이

- ①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 || {선동} 활동. 파업 {선동}. {선동을} 벌이다. {선동을} 당하다. {선동에} 넘어가다. {선동이} 효과적이다. | 기남이는 물에 들어가면 돌맹이 한 가지이지만 동무들의 {선동에} 못이겨 그들을 따라 강가로 나갔다. / “은척1리 사람 말고는 은척에는 사람이 없나, 집어치워라.” 하며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선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석제: ‘아름다운 날들’).
- ② <대중에게 어떤 큰 일에 적극 나서도록 호소하고 기세를 북돋아주는 사업>을 북에서 이르는 말. || 힘있는 정치사상적인 {선동}. | 방송차에서는 전투적인 음악과 {선동} 연설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왔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

3.6. 어문규범 단일화

남한에서는 1933년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광복 후에도 국가의 공인된 맞춤법으로 삼고 계속 사용해 왔으며, 1989년부터는 이를 조금 고치고 다듬은 새로운 '한글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54년에 '조선어철자법'을 새로 제정해 사용하다가, 1966년 '조선말규범집'으로 수정하였다. 남북의 표기법은 이와 같이 서로 교류 없이 각각 시행해 온 결과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의 서로 다른 어문규범에 대한 연구와 또한 그러한 어문규범을 단일화해 보려는 노력이 그동안 남북의 국어학계, 국어정보학계, 정부기관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간 《겨레말큰사전》 편찬에서 남북의 어문규범을 단일화하기 위해 의논한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자모 배열 순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논의된 올림말 배열을 위한 자모 배열 순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모 배열 순서는 남북의 편찬위원들이 합의를 마친 내용이다. 자모 배열 순서에서 남북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다.

자모 배열 순서의 차이점

- (1) 초성 순서에서 'ㅇ' 위치
- (2) 초성 순서에서 겹자음 'ㄱ, ㄷ, ㅂ, ㅅ, ㅆ' 위치
- (3) 중성 순서에서 홀모음과 겹모음 위치
- (4) 종성 순서에서 겹자음 'ㄱ, ㅆ' 위치

첫째, 초성 순서에서 'ㅇ' 위치는 잘 알다시피, 남한에서는 'ㅇ'의 순서가 'ㅅ' 다음에 놓이지만 북한에서는 자음 글자가 다 끝난 다음에 모음인 'ㅇ' 항목이 놓인다. 이것은 남북이 사전을 찾을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단일화하기란 쉽지 않다. 양측 모두 합당한 언어학적 이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남한의 순서대로 초성에서 'ㅅ' 다음에 'ㅇ'을 두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1989년에 이전보다는 좀 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 북한에서는 1966년부터 붙여 쓰는 쪽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도 규범에서 일부 띄어 쓰는 쪽으로 수정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붙여 쓰는 쪽으로 바뀌었다.

띄어쓰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존명사, 보조용언, 대명사, 명사 연결체 등의 띄어쓰기이다. 먼저 의존명사 띄어쓰기이다. ‘것, 바, 줄, 수’ 등과 같은 의존명사의 경우, 남한에서는 ‘갈 바를 알 수 없다’로 북한에서는 ‘갈바를 알 수 없다’로 쓴다. 이 문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원칙을 존중하여 ‘갈 바를 알 수 없다’처럼 띄어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한명, 두마리’처럼 붙여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즉 일반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붙여 쓰는 쪽으로 하였다.

의존명사 띄어쓰기

남한: 갈 바를 알 수 없다	한 사람, 두 마리
북한: 갈바를 알 수 없다	한사람, 두마리
합의: 갈 바를 알 수 없다	한사람, 두마리

다음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도 중요한 논의 과제이다. 남한에서는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 버렸다’처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북한에서는 ‘가고있다, 읽게하였다, 오지않았다, 먹어버렸다’처럼 붙여 쓴다. 이에 대해 보조용언을 띄어 쓰되, 용언에 붙는 토 ‘-어’ 바로 다음에 오는 보조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남한: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 버렸다
북한: 가고있다, 읽게하였다, 오지않았다, 먹어버렸다
합의: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버렸다

대명사의 띄어쓰기도 논의 대상이 되었다. 대명사의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는 큰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우리글, 우리나라, 우리말’의 경우, 남한은 합성어로 인정하여 붙여 쓰는 것을 제안하였고, 북한은 대명사 ‘우리’와 명사 ‘글, 나라, 말’의 연결체로 보아 띄어 쓰는 것을 제안하였다. 여러 차례 회의 결과, ‘우리+글, 우리+말’은 합성어로 보아 ‘우리글, 우리말’로 붙여

쓰고, ‘우리+나라’는 구로 보아 ‘우리 나라’로 띄어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

다음으로 명사 연결체의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통일 대학교 사범 대학’을 원칙으로 하고, ‘통일대학교 사범대학’을 허용한다. 북한에서는 ‘통일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쓰는 쪽으로 의논하였다. 즉 ‘통일대학교 사범대학’으로 표기하기로 한 셈이다.

고유명사의 경우, 이름과 호는 성에 붙여 써서 ‘김양수, 서화담’으로, 지명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에 붙여 써서 ‘서울시, 평양시’로, 기관·기구·단체 등의 명칭은 의미 단위별로 띄어 써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등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남한: 통일 대학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국가 건설 방향 설정
북한: 통일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국가건설방향설정
합의: 통일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국가건설 방향설정

[3] 사이시옷

사이시옷 표기에 관해서 남북이 의견을 모으기란 매우 어렵다. 남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는 사이시옷을 모두 쓰지만,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현격히 다른 두 표기법을 단일화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남북은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방안을 서로 제시하여 몇 차례 의논하고 있다.

현재 남한이 ‘나뭇잎, 냇가, 꺾병, 전셋집, 등교길’로 표기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나무잎, 내가, 귀병, 전세집, 등교길’로 표기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남한은 사이시옷 표기의 수를 줄이는 것이고 북한은 표기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여러 차례 제안을 수정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사이시옷에 대한 남한 측의 의견

- (1)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여 순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2) 합성어 앞말이 고유어인 것 중 남과 북의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이 덧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이렇게 하면, ‘나뭇잎, 냇가, 꺾병, 전세집, 등교길’로 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사이시옷에 대한 북한 측의 의견

“조선말대사전”에서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에 한하여 사이시옷이 나는 단어와 나지 않는 단어가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으면 사이시옷이 나는 단어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에 따르면, ‘비바람’과 ‘빗바람’, ‘새별’과 ‘셋별’, 더 나아가한다면 ‘내가 냇가로 간다’ 정도에서 사이시옷을 쓰게 된다. 그러나 남북의 이러한 제안으로서는 차이를 줄이기는 어렵다.

사이시옷 표기 제안

- 남 한: 나뭇잎, 냇가, 낫병, 전셋집, 등곶길, 장맛비, 북엇국
- 북 한: 나무잎, 내가, 귀병, 전세집, 등교길, 장마비, 북어국
- 남제안: 나뭇잎, 냇가, 낫병, 전세집, 등교길, 장마비, 북어국
- 북제안: 나무잎, 냇가, 귀병, 전세집, 등교길, 장마비, 북어국

[4] 두음법칙

남북의 어문규범 단일화 작업에서 아마도 ‘역사’와 ‘력사’, ‘여성’과 ‘녀성’의 표기를 단일화하는, 단어 첫머리의 ㄴ, ㄷ 표기 문제인 두음법칙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이 조금씩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의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한과 북한은 두음법칙 표기에 대해 각 측의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양측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음법칙 표기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에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①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② 복수 표기를 인정하여 두 표기형을 다 쓰는 방안, ③ ‘ㄴ’ 두음과 ‘ㄷ’ 두음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북한은 ④ 사회적인 충격이 큰,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만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안 중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안은 ①이라는 데 남북 모두 인식을 같이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토론하기로 하였다.

4. 맺음말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남북 언어학자들이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논의한 어휘 단일화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남북 언어학 교류, 좁게는 어휘 단일화 교류의 큰 성과라 평가할 수 있겠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같은 국가나 민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민족,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이어 온 우리말이 남북 분단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에서 서로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졌으며, 표기법이 달리 쓰인다. 서로 다른 단어와 표기법이 사용되고 이것이 굳어진다면 남북이 통일된 이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남북 모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의 언어 차이를 줄이고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한 현실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현실이 타개되지 않는 한, 사전 편찬을 위한 남북 교류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실은 북측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여 남한말을 괴뢰말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 현실은 북측이 남측과 동일 민족임을 부정하는 정책이다. 이 두 현실은 민족 즉, ‘겨레’라는 개념과 크게 어긋난다. 현재 북측이 《겨레말큰사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둘째는 우리 말글 연구와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할 일이다.

첫째,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할 일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그간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북한어 이해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그 결과물을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겨레말큰사전》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사전과 어문규범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우리 말글 연구와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할 일이다. 지금부터 《겨레말큰사전》 편찬 백서를 집필해야 한다. 총괄, 올림말, 뜻풀이, 어문규범, 합의 방식 등에 대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으로 보존하여 앞으로 국어사전 편찬의 중요한 길잡이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 자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사전학적 연구, 언어정책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면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문헌어 말뭉치, 지역어 말뭉치를 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널리 활용하도록 가공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https://www.gyeoremal.or.kr>
- 고영근(1988),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1), 《주시경학보》 2, 탑출판사, 47~84쪽.
- 고영근(1989),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2),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40~75쪽.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2012),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권재일(2023), 《말로써 행복을》, 박이정.
- 권재일(2025),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 20돌을 맞이하여, 《겨레말》 26,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22~25쪽.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문오·전수태(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김진희(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7~12쪽.
- 문영호(2002),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14~22쪽.
- 민현식(2010),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 '표준 한국어'의 수립을 위하여, 《남북 언어 통합과 재외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1~44쪽.
- 양수경(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조오현·김용경·박동근(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 한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과문화학회, 301~322쪽.
- 홍종선(2012), 『겨레말 큰사전』의 성격과 과제, 《한글》 295, 한글학회, 135~161쪽.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전자우편: kwonjil@snu.ac.kr

해득에서 문해력으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의 확장 가능성 탐색

김은혜(한남대학교 전임연구원)

1. 들어가며

한글 교육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문자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기능적 능력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한글 교육은 여전히 해득(解得), 즉 글자를 알고 그것을 소리로 변환하는 능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다.

엄훈(2017)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약 80%는 이미 한글 해득을 마친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오지만, 나머지 20%는 여전히 해득조차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한다. 교실 안에는 글을 유창하게 읽는 아이와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아이가 공존한다. 이러한 격차는 교사의 교수 부담을 가중시키고 초기 문해력 교육을 어렵게 만든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출발선의 격차'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학습 격차, 더 나아가 삶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느린 학습자는 문자를 읽을 수는 있어도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읽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쓸 수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다. 결국 이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창우를 옆자리에 앉힌 다음에 <이해의 선물>을 차근차근 다시 읽어 보게 했다. 창우가 글을 다 읽고 난 후 나는 창우의 이해를 도와줄 생각으로 글의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했다.(중략) 창우는 문제의 장면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창우는 읽어도 읽지 못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에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았지만 창우처럼 문

자를 해독하면서도 글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뜬장님 같은 아이가 중학교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알고 있을까?’ 나는 선생님 몇 분에게 창우의 문제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선생님들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 엄훈(2012), 『학교 속의 문맹자들』 8쪽(강조는 인용자)

사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읽고 쓰는 문자로, 외국인들도 약 40분 정도면 한글을 표기할 수 있다고 한다¹⁾. 그럼에도 우리 교실에는 창우처럼 ‘읽어도 읽지 못하는 아이’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닌 것처럼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문자를 깨우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품었던 뜻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다.

세종은 한글을 단순히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글로 호소할 수 있기를 원했다. 백성들이 문자를 읽고 씬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한글은 익혀야 할 문자로서 지식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 삶을 건실하게 일구어 가기 위한 문화이자 복지의 영역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글은 애민정신의 발로(發露)였다. 훈민정음의 창제 서문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누구나 글을 배워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오늘날 논의되는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UNESCO(2017)에서는 포용적 교육을 ‘모든 학습자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학습자의 사회적, 인지적, 언어적 배경이나 발달 특성과 무관하게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언어’이다. 교육은 끊임없는 읽기와 쓰기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통해 지향했던 바는 이러한 보편적 교육 철학과 닿아 있다.

15세기는 문자가 철저히 지배 계층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교육 기회를 독점한 양반 계층만이 문자를 익힐 수 있었다. 백성 다수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록할 수 없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할 길이 없었다. 한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세종대왕의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발명품이다. 백성들이 말을 가지고도 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한 것이다. 『훈민정음

1) 한국NGO신문(2024.10.9.). “‘이것이 한글이다’... ‘한글의 우수성과 세계공용어적 가치 진단’”.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15> (2025.9.16.인출).

해레본』 서문에 나와 있는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씬에 편안케 하고자 한다”라는 설명은, 계급과 지위가 낮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받는 백성을 배려하고 포용하려는 세종대왕의 뜻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엄훈(20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창우’처럼,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교실 안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느린 학습자들이다. 느린 학습자의 경우 문자해득은 가능하더라도 삶의 맥락 속에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글을 익혔지만 교육과정 속에서 배제되고, 의미 교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차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느린 학습자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느리다는 이유로 온전한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데 제약이 생긴다. 교육 현장에 드리운 사각지대는 삶 전반의 사각지대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

이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렸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쓴다고 해서 온전한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종의 애민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글 교육이 문자해득을 넘어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법적·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온 느린 학습자에게 주목하여, 그들이 실제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 왜 문해력인가?

느린 학습자(slow learners)는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을 지닌 학습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일반 교육과정에 속해 있으면서도 정보를 처리하거나 맥락을 파악하는 속도가 느려 수업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특수교육에 포함시키기에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높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느린 학습자는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한 학급에 약 3명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교육부, 2024; 김부태·손종현, 2022), 맞춤형 교육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예컨대 엄훈(2012)의 사례에서 ‘두리’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의 책만 읽던 단계에서 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반복 학습을 통해 점차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게 되었다. 김은혜(2025)에

서도 사회적 독서를 통한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인지·정서적 발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작업기억 능력, 사회적 유능감, 읽기 및 쓰기 능력 등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Lee, 2024; Nestler & Goldbeck, 2011; 류인혜, 2020).

이처럼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교육부, 2024),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 예컨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은 2025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교육감과 중·고등학교 교장단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 그 개념이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0~84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V)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습자에 대한 지능지수를 설명에서 삭제하고,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만을 덧붙이고 있다(APA, 2013; 김주영, 김자경, 2016; 박소희, 이은주, 2022). 실제로 연구자 또는 기관마다 경계선 지능 학습자를 선별하는 지능지수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다³⁾.

경계선 지능 학습자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인지 기능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정서·행동적 특성이 서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세형, 2024).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은 세 영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 학습자는 작업기억 능력의 한계로 이해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김용훈, 2023),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 학습자와 동등한 암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Rodden-Nord & Shinn, 1991; Jensen, 1998). 문제는 상황·맥락을 파악하고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다. 느린 학습자는 배운 내용을 익히고 나서도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Veenman & Verheij, 2003). 따라서 느린 학습자들에게는 단순 암기식 반복이 아니라 상황과 소통 맥락을 파악하는 적극적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득 중심의 한글 교육이 느린 학습자에게 주는 교육적 효용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글 해득 교육은 한글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기본적인 요소를

2) 데일리한국(2025.9.10.). “한남대 사범대, 중·고등학교 교장단 세미나 개최-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현장의 책임과 실천”.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182> (2025.9.16. 인출).

3) 경계선 지능에 대해 강옥려(2016)의 연구에서는 지능지수 70-85로, 교육부(2024)에서는 71-84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지능지수 65-84로 규정하고 있다.

바탕으로 변형된 형태를 익히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김도남, 2003). 즉 해독 교육은 글자를 소리 내어 읽고, 철자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느린 학습자의 경우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에 머무른 교육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반교육과정에서 인지적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은 느린 학습자의 경우, 해독 수준의 문자 지도나 읽기 유창성의 반복적 훈련만으로는 교실 안에서 유의미한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기 어렵다. 느린 학습자들이 한 명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목표로 한다면 해독 교육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느린 학습자에게 한글 교육은 해독 교육이 아니라 문해력 교육으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해력이란 무엇일까?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정보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문해력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이자 문화 복지의 차원으로도 그 개념의 영역과 범주가 확장되었다(서혁, 2021).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 중 하나로 포용적 교육을 제시하며 기초학력의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교육부, 2022).

느린 학습자에게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느린 학습자들에게 문해력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느린 학습자에게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 및 정보 접근의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해력이 부족한 느린 학습자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관 전시의 작품 해설과 같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학습의 기회와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여 느린 학습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허윤영, 이예승, 2023). 따라서 문해력은 느린 학습자가 자신이 포함된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 참여와 자율성 증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해력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사회적 의미 구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양경언, 2021). 즉 문해력이 향상되면 교육의 기회

를 보장받고,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한 행위자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해력 증진은 느린 학습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복적인 학업 실패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은 이후 느린 학습자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ankowska et al., 2014). 문해력 증진을 통해 작더라도 지속적인 성공의 경험을 쌓을 때 느린 학습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느린 학습자에게 문해력은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원했던 한글 창제 정신과도 연결된다. 세종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대신 쉽고 편리한 문자인 한글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러한 한글 창제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발명한 것을 넘어, 모든 백성이 원활히 소통하고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세종의 깊은 애민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민재운 & 김민, 2022). 즉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한글이 역할하기를 바란 것이다. 이는 오늘날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포용적 교육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OECD, 2023).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삶의 맥락을 반영한 교육으로서 문해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해력은 느린 학습자가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갖춰야 할 삶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을 위한 세종의 애민정신과 그 뜻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한글 교육 역시 단순한 글자 깨치기에서 나아가 학습자가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문해력 교육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3. 문해력 교육으로서의 한글 교육: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실천적 모색

3.1. 사회적 상호작용의 적극적 고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38%는 ‘생활 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에 매우 취약한 사람’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2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

이다. 같은 조사에서 ‘일상적인 문서를 겨우 해석해 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힘든 사람’도 37.8%로 약 10명 중 4명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습득과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앞선 절에서 언급되었던 창우의 사례처럼, ‘읽어도 읽지 못하는’ 국민들이 예상보다 많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들조차도 일상 문해력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물며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또래에 비해 지연된 느린 학습자의 경우, 단순히 글자를 해독(解得)하는 수준을 넘어 의미를 구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더 큰 제약을 경험한다. 이들은 문자를 읽더라도 실제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맥락적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시 말해, 글자는 읽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맥락과 의미를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천명한 “백성으로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씬에 편하게 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체계로서 한글의 의의를 고려할 때, 느린 학습자가 문자 활용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은 문자 교육의 근본적 과제이자 사회적 책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문해 취약 집단을 위해 문해력 교육의 관점에서 한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한글 창제 정신을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교육을 해독 중심에서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습득한 문자와 낱말을 실제적 맥락에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의미를 교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한글 교육은 ‘기역’을 따라 쓰고, ‘가’를 읽고, ‘사과’를 받아쓰는 식으로 문자 체계와 음운의 대응 관계를 익히는 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글자 해독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습자가 언어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데까지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자 해독은 출발점일 뿐, 학습자가 언어를 의미 구성과 소통의 매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문해력 교육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과’라는 단어를 지도할 때,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에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4) 인천일보(2025.7.16.). “[짚물짚물] 실질 문맹률과 독서력”.

<http://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240> (2025. 9. 17. 인출).

〈표 1〉 ‘사과’라는 단어의 지도 사례

(가)	교사:	(그림이나 실제 사과를 제시하며) 이게 무엇일까?
	학생1:	사과예요.
(나)	교사:	네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
	학생1:	저는 바나나가 좋아요.
(다)	학생2:	나는 포도를 좋아해.
	학생3:	나는 수박이 좋아.

예를 들어 [표1]에서 제시한 (가)의 상황처럼 교사가 그림이나 실제 사과를 제시하며 “이게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고, 학생이 “사과예요.”라고 답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마련할 수 있다. 이어서 (나)의 상황처럼 교사가 “네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라고 묻고, 학생이 “저는 바나나가 좋아요.”라고 답하는 순간, 낱말 학습은 곧 개인적 경험과 의미를 나누는 활동으로 확장된다. 한편으로는 (다)의 상황처럼 또래 학생들과 짝 활동을 통해 “나는 포도를 좋아해.,” “나는 수박이 좋아.”와 같은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사과’라는 단어는 단순한 표기나 발음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매개가 된다. 즉, 학습자는 글자를 해독하는 동시에, 그 글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글 학습은 문자 지식을 넘어 실제적 문해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김은혜(2025)에서는 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독서 수업 사례연구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협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때, 단순히 읽는 행위를 넘어 실제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읽기 행위가 고립된 개인 활동으로 머물 때는 이해가 단편적이고 제한되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교환할 때 학습자는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언어 사용의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글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한글 교육은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가’라는 해득 중심의 성취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 활동을 강화하면, 학습자는 단순히 낱글자와 낱말을 읽고 쓰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실제적 맥락에서 사용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사과’라는 단어를 읽고 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거나, 짧은 이야기 속에서 단어를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면 학습자는 언어를 삶의 도구로 체험하게 된다. 또한 느린 학습자들은 한글을 활용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의미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느린 학습자들이 점차 고차원적인 독해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한글 교육을 해득 중심에서 문해력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기제

라 할 수 있다. 한글은 본래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창제된 문자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 교환과 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교육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된다. 김은혜(2025)의 연구가 보여주듯, 상호작용 기반 학습은 느린 학습자에게도 보다 양질의 의사소통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문해력의 성장을 견인하므로, 한글 교육에서도 해독을 넘어선 문해력 교육으로의 확장 전략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이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3.2. 시 기반 아이트래킹 기술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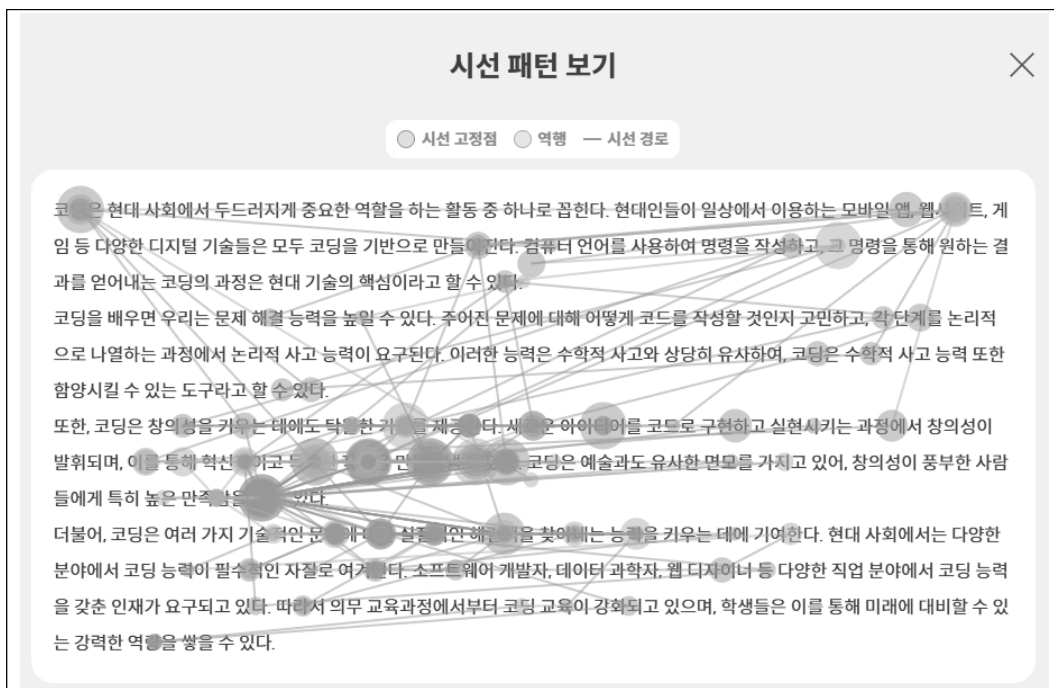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글 교육을 단순한 해독 교육에서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교환 활동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느린 학습자의 경우, 문자 해독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 동기가 저하되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예컨대, ‘사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거나 맥락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상호작용 활동에서조차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읽기 과정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구체적 지점을 파악하는 보조적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느린 학습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책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멈추고, 어떤 부분에서 반복하며, 어떻게 문장을 처리하는지 교사가 관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읽기의 내적 과정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적 보조 수단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AI 기반 시선추적(아이트래킹; eye-tracking) 기술이 주목된다. 시선추적은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시선이 머무른 위치, 머무른 시간, 그리고 시선 이동 경로를 기록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데이터는 학습자가 특정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문장 구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혹은 글의 전반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해준다.

본 연구자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학습자가 상호작용이 강화된 수업을 통해 읽기 패턴과 태도, 읽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을 지켜본 바 있다⁵⁾. 이때 만난 학생 A는 지능지수 67로, 일반적인 경계선 지능 범주(70-84)에서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지능지수를 지닌 학생이었

5) 본 연구자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에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자료가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연구참여동의서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 A는 여느 중학교 학생과 다름없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으려 노력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책 읽기를 시작하면 A는 곧바로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라며 바로 곤란함을 표현하곤 했다. 일반 학생과 별다른 것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읽기 시작하면 언제나 A에게는 너무나 큰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A가 느끼는 읽기의 어려움을 교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곤란함을 느낄지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세심하게 모두 확인하기에는 물리적, 환경적 한계가 크다. A가 읽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시선추적 기술은 교사에게 직관적이고 다양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림 1] 학생 A의 시선추적 읽기 검사 결과(사전, 2025.4.28.)

위의 [그림 1]은 A가 처음 시선추적 읽기 검사를 한 2025년 4월의 결과이다⁶⁾. 그림만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선이 문장 내 특정 단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기보다는 앞뒤로 시선이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A가 단어 수준에서 의미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맥락을 파악하며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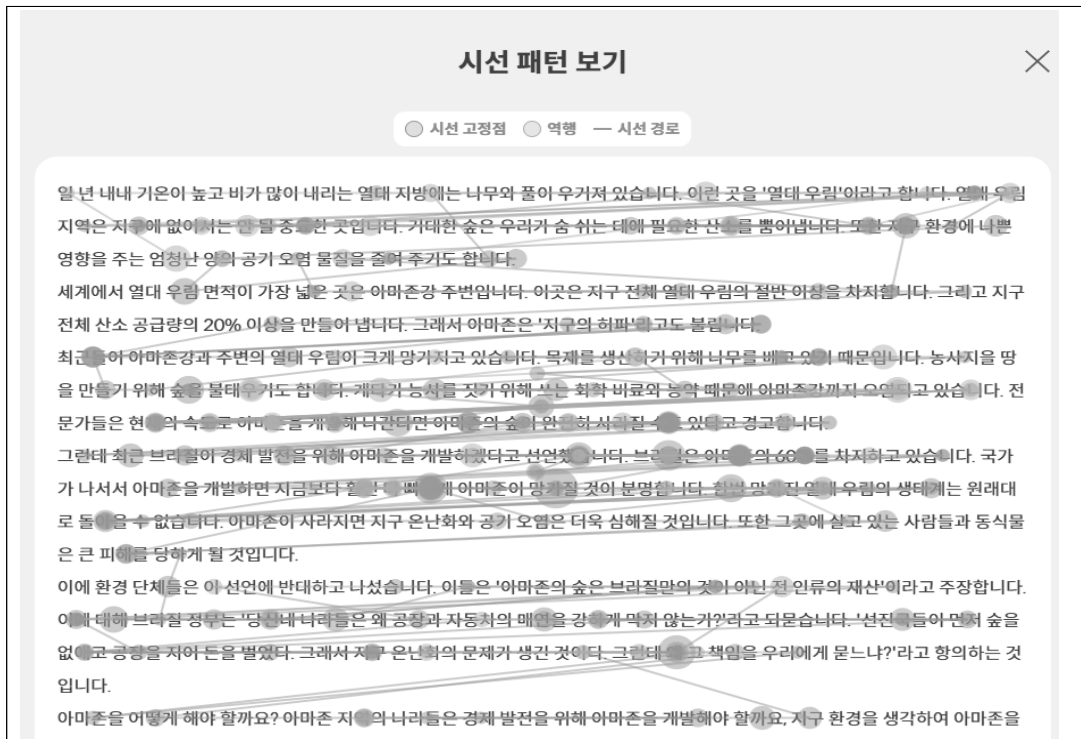
A의 시선 패턴을 확인한 연구자는 A가 제출한 이해 활동지 결과물을 시선추적 결과와 비교하

6) 시선추적 읽기 검사는 ㈜비주얼캠프의 '리드포스쿨'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여 분석함으로써 A의 읽기 습관, 태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주 1회 2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에서 매주 새로운 단어의 뜻을 익히고, 그 뜻을 활용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게 했다.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연필을 책에 대고 그으며 읽도록 조언하였다. 기호(/)를 활용하여 문장을 의미의 덩어리로 나누어 끊어 읽는 연습도 병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A가 또래 친구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수업을 운영하였다. 책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은 조별로, 혹은 짝과 함께 의논하며 정답을 찾아나가도록 고안하였다. 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만들어 짝과 공유하고, 글의 내용 중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짝과 함께 찾는 활동도 추가하였다. 조별로 조원들이 만든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단어 하나를 찾더라도, 친구와 더욱 풍성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후인 2025년 5월, A가 또다시 시선추적 읽기 검사를 진행하였을 때 모두가 놀랄만한 변화가 시각적으로 드러났다([그림 2]).



[그림 2] 학생 A의 시선추적 읽기 검사 결과(사후, 2025.5.19.)

[그림 2]는 2025년 5월의 결과로, A가 약 4주간의 읽기 학습 과정을 마친 후였다. [그림 1]과 비교하면 A의 발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물론 아직 회귀(역행)가 많고, 시선 경로를 나타내는 선이

두껍게 겹쳐있는 것으로 보아 A가 글을 쉽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A는 읽었던 부분으로 반복해서 돌아가고,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단숨에 A가 능숙한 독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A가 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점은 아직 다양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선추적 장치를 활용한 읽기 검사 결과를 통해 A가 발전한 점 역시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정 단어에만 오랜 시간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글을 전체적으로 고루 읽으려 했다는 점, 시선 이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A가 글을 읽는 방식이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에 반영된 교육적 조치들이 A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텍스트의 난이도 차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KReaD(크리드) 지수⁷⁾를 활용하여 각 텍스트의 난이도를 살펴보니, [그림 1]은 중학교 1~2학년 수준, [그림 2]는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으로 판정되었다. [그림 1]에 제시된 텍스트가 A에게 더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컸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선 경로가 안정화된 점,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간 점 등에서 A의 읽기 습관과 태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시선추적 기술은 느린 학습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읽기 과정을 가시화하여 변화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직관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현장에서 느린 학습자의 경우,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글자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느라 내용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는 쉽게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느린 학습자의 자신감, 자존감, 효능감 저하로 이어져 학습과 생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AI 기반 시선추적 장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다. 학습자의 읽기 패턴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사는 특정 단어에서 반복적으로 시선이 멈추는지, 앞뒤로 오가며 글을 처리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를 한글 교육에 적용한다면, 아이들 개별 맞춤형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습자가 받침이 있는 글자에서 지속적으로 시선이 멈춘다면 교사는 해당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습자가 문장 종결 표현에서 자꾸 시선이 흔들린다면 글의 문법적 구조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시선추적과 같은 AI 기반 기술을 한글 교육에 접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단순히 학습자의

7) KReaD(크리드)는 대교에서 개발한 AI 한국어 독해 지수 측정 도구이다. <https://www.kread.ai/>

결손을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사과’ 예시를 다시 생각해 보자. 학습자가 단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면, 교사는 먼저 해당 영역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가 보다 자신감 있게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즉, 시선추적은 한글 해득 교육과 문해력 교육을 연결하는 매개 기술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화 자료는 학습자 본인에게도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자신의 읽기 패턴이 시간에 따라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느린 학습자에게 ‘나도 변화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다. 이는 성공의 경험이 매우 적은 느린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Shaw, 2008). 느린 학습자의 경우 작업기억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물리적 장치가 제공될 때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Cooter & Cooter, 2004), 시선추적 기술은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보조를 넘어, 학습자의 정서적·심리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실제적 문해력을 기르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며, AI 기반 시선 추적 기술은 학습자의 보이지 않는 읽기 과정을 가시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두 요소가 결합될 때 한글 교육은 해득 중심의 수준을 넘어 문해력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I 기술은 학습자의 개별적 결손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기반 위에서 학습자가 언어를 실제 생활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김은혜(2025)의 연구가 보여주듯, 상호작용 기반 학습은 느린 학습자에게도 실제 삶의 역량으로서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에 시선 추적과 같은 AI 기술이 더해질 경우, 교사는 학습자의 구체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상호작용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느린 학습자가 ‘읽어도 읽지 못하는’ 상태를 극복하고, 문자와 언어를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

한글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날마다 쓰도록 하기 위해 창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느린 학습자들은 글자를 읽더라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문해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며, AI 기반 시선추적 기술은 그 과정을 지원하는 과학적 도구가 된다. 두 요소가 결합될 때 한글 교육은 해득을 넘어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품었던 교육적 이상을 오늘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본 논의는 한글 교육이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단계에 머무를 경우, 느린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학습과 삶의 한계가 더욱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지향했던 바는 백성이 누구나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많은 학습자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기능적 수준을 넘어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능력, 곧 문해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해득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근본적인 지향점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느린 학습자들은 단순한 반복 훈련으로는 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기 어렵다. 이들은 지능이나 암기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맥락 이해와 사회적 의미구성의 측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 교육은 이들의 학습을 따라잡기식 보충 지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타자와 관계 맺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 문해력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학급 안에서 교사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말과 글이 살아 있는 의미 교환의 과정이 될 때, 비로소 한글은 세종이 꿈꾸었던 대로 백성의 언어이자 삶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러한 교육적 이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AI 기반 시선추적과 같은 도구는 느린 학습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읽기 과정을 드러내고, 교사가 학습자의 실제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단순히 학습 결손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다.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다. 기술은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계와 경험을 강화하는 매개로서 자리할 때, 문해력 교육은 해득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결국 한글 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존엄한 주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 문해력은 단지 학업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학습자가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삶의 역량이다. 느린 학습자에게 문해력은 더욱 그러하다. 글자를 읽을 수 있음에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은 이들이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글 교육을 해득에서 문해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서 있다.

그것은 곧 세종의 애민정신을 오늘날의 교육 현실 속에서 되살리는 일이며, 모든 학습자가 차별 없이 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용적 교육의 실현이다. 한글은 더 이상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습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느린 학습자를 비롯한 모든 학습자가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한글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동시에 우리가 미래 사회를 책임질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일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교육부(2024),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9298>(2025.9.17.검색)
- 김도남(2003), 한글 해독 교육 원리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23, 한국초등교육학회, 1~36쪽.
- 김부태·손종현(2022),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역 공공 기초학력지도사 운용 방안 탐색, 열린교육연구 30(6), 한국열린교육학회, 81~110쪽.
- 김용훈(2023),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 발달장애연구 27(1), 한국발달장애학회, 1~22쪽.
- 김은혜(2025), 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사회적 독서 수업 사례연구, 독서연구 75, 한국독서학회, 223~266쪽.
- 김주영·김자경(2016), 학령기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읽기 하위영역별 특성, 언어치료연구 25(1), 한국언어치료학회, 67~76쪽.
- 류인혜(2020), 국내 경계선 지적지능 학생의 언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65~95쪽.
- 민재윤·김민(2022),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교육콘텐츠 디자인 - 하하하 한글(AR TUTORIAL BOOK)개발을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23(6), 한국기초조형학회, 145~159쪽.
- 박소희·이은주(2022), 경계선지능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동향: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8(3),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41~164쪽.
- 서혁(2021), 문해력 정책, 이대론 안 된다, 말과 글 167, 11~15쪽.
- 양경연(2021), 모두에 의한 시, 모두를 위한 시 - '느린 학습자' 를 고려한 시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0(3), 한국문예창작회, 111~145쪽.
- 엄훈(2012), 학교 속의 문맹자들, 우리교육.

- 엄훈(2017), 초기 문해력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3~66쪽.
- 이세형(2024),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학습자) 특성을 지닌 경기도 S대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습 역량 및 정신건강 검사 도구 활용 방안, GRI 연구논총 26(3), 경기연구원, 183~209쪽.
- 허윤영·이예승(2023), 통합적 미술감상교육 제안 : 느린 학습자와 <쉬운 작품해설 쓰기>, 장애의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305~331쪽.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Cooter, K. S., & Cooter Jr, R. B.(2004), One size doesn't fit all: Slow learners in the reading classroom, *The reading teacher* 57(7), 680p.
- Jankowska, A. M., Bogdanowicz, M., & Takagi, A.(2014), Stability of WISC-R scores in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Health Psychology Report* 2(1), 49~59p.
- Jensen, A. R.(1998), *The factor*, Westport, CT: Prager.
- Lee, S. H.(2024), Treatment, education, and prognosis of slow learners(borderline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3), 192p.
- Nestler, J., & Goldbeck, L.(2011), A pilot study of social competence group training for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SCT-ABI),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5(2), 231~241p.
- OECD(2023), *Equity and Inclusion in Education: Finding Strength through Diversity*,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e9072e21-e>
- Rodden-Nord, K., & Shinn, M. R.(1991), The range of reading skills within and across general education classrooms: Contributions to 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mild handicap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4), 441~453p.
- Shaw, S. R.(2008), "An educational programming framework for a subset of students with diverse learning needs: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3(5), 291~299p.
- UNESCO (2017), *A guide for ensuring inclusion and equity in education*, Paris: UNESCO.
- Veenman, M. V., & Verheij, J.(2003), Technical students' metacognitive skills: Relating general vs. specific metacognitive skills to study succes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3), 259~272p.

김은혜

한남대학교 초·중등기초학력지원센터 전임연구원

전자우편: sunwriting@naver.com

한글로 적는 대상의 확대와 과제

고동호(전북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ㄱ. 백성의 문자 생활의 편의
 - ㄴ. 한자음의 정비
 - ㄷ. 백성에 대한 교화

이 중 (1)과 관련하여 문자가 없거나 문자 학습이 어려운 언어를 한글로 적음으로써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확대하여 실현하자는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러한 취지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고성익 2024).

- (2) ㄱ. 라후어(태국 치앙마이)
 - ㄴ. 쩌빵어 (네팔)
 - ㄷ. 바자오어 (필리핀)
 - ㄹ. 찌아찌아어(인도네시아 부톤시)
 - ㄴ. 아이마라어(볼리비아 원주민어)
 - ㄷ. 중국어 (난문자어)
 - ㄸ. 미얀마어(난문자어)
 - ㄹ. 나나이어(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 ㄺ. 치뎬보어(몽고민주공화국 피그미족)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 (2ㄹ)과 (2ㄺ)의 한글 적기 방법과 향후 과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두 언어를 한글로 적는 활동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근간으로 한 현행 한글맞춤법은 그 대상이 표준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삼았을 때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한글로 적는 대상이 표준어가 아닌 방언이나 다른 언어로 확대했을 때의 문제점과 과제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방언의 한글 적기

[그림 1]은 1960년대 이후 제주인들인 야무진 오애순과 묵직한 양관식의 사랑과 인생을 묘사한 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 2025년 3월 7일 ~ 2025년 3월 28일까지 방영되어 역대 한국 드라마 중 최고 평점을 받은 '폭삭 속았수다'의 봄 포스터이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제주방언을 한글로 적은 것인데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폭삭'은 전래의 제주방언이 아니라, 표준어 '폭삭'의 영향을 받은 어형으로 판단된다.¹⁾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에 제시되어 있는 '복삭'('폭삭'의 방언(제주))이 전래 제주방언이다. 어두에 나타나는 /ㅂ/이 /ㅍ/으로 바뀐 예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폭삭/이 제주방언 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폭삭'이 아니라 '폭삭'으로 적어야 한다. 같은 소리인 표준어의 /폭삭/은 '폭삭'으로 적는데, 제주방언만 '폭삭'으로 적어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았'은 '앗'으로 적어야 한다. 제주방언에서 과거 시제(또는 완료상)를 나타내는 형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았/이 아니라 /앗/이기 때문이다. 즉 '머거서'는 어간 '떡-'에 과거 시제 형태 '-엇-'이 결합하고 그 뒤에 종결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폭삭 속았수다'의 포스터

(3) /난 밥 머거서/(난 밥 먹었다)

1) 제주특별자치도(2009)에는 '속다'의 예문 "아이고, 폭삭 속았우다(아이고, 무척 애쓰셨습니다)"에 '폭삭'이 들어 있다.

그 이외에 상대높임법의 형태 '-수-'와 '속았-'의 분철은 현행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표기이다. '-수-'는 제주방언에서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이나 시상 형태 '-았/엇-' 및 '-암ㅅ/엄ㅅ-' 뒤에 오기(고영진 2002) 때문에 그대로 적어야 한다.²⁾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분철한 것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총칙에 따른 것이다. 실제 발음 /쑤/를 '수'로 적어야 하는 것은 /ㄷ/ 뒤에는 평음 /ㄱ, ㄷ, ㅂ, ㅅ, ㅈ/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의 /ㄱ, ㄷ, ㅂ, ㅅ, ㅈ/은 'ㄱ, ㄷ, ㅂ, ㅅ, ㅈ'으로 적는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의 포스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진행상(혹은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형태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바른 머경 땡점시난/(밥은 먹고 다니고 있으니까)

위 예문에서 /땡점시난/는 어간 /땡기-/와 진행상 /-엄ㅅ-/ , 연결어미 /-이난/으로 형태를 분석할 수 있다. 진행상 형태 /-엄ㅅ-/와 연결어미 /-난/으로 분석하면, /감꼬/(=가--+암ㅅ--+고)(가고 있고)가 /*감시키고/(가--+암ㅅ--+고)가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머그난/(떡--+으난)(떡으니까)이 /명난/(떡--+난)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땡점시난/의 연결어미는 /ㅅ/ 뒤에서 /ㅡ/가 /ㅣ/로 바뀐다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시난/(없으니까)은 /엇--+으난/으로 형태소 분석을 한 후에 ㅡ=>ㅣ 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규칙은 /ㅈ+/ㅣ/에도 적용된다. 예: /느지난/(<=늦--+으난).

/땡점시난/에서 진행상 형태 /-엄ㅅ-/을 분석해 낼 경우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당연히 '엄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표준어를 적는 데 쓰이지 않는 종성의 겹자음 'ㅁㅅ'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제주방언을 한글로 적는 것이 결코 손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한국어를 구성하는 하위 방언을 한글로 적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고, 그 원칙은 각 방언의 형태(소)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진 후 그러한 형태 혹은 형태소를 표준어를 적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르되, 각 방언의 특징이 한글로 적는 방법에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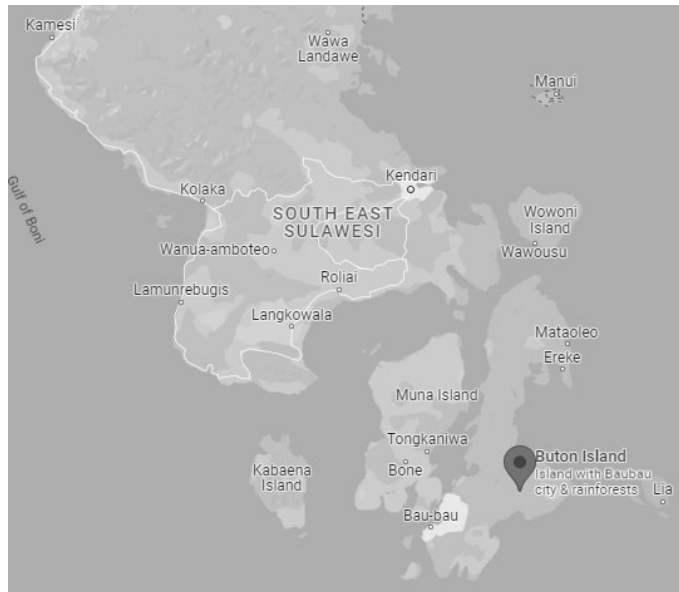
2) 그 이외에 'ㄹ'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과 서술격 조사 뒤에는 '-으우/우-'가 쓰이며, 나머지 환경에서는 '-읍/ㅂ-'이 쓰인다.

3. 짜아찌아어의 한글 적기

짜아찌아어는 주로 인도네시아의 부톤섬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며, 사용 인구는 79,000명 정도이다. 이에 먼저 인도네시아와 부톤섬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면적이 190만㎢로서 18,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 현재 인구는 30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된 2억7,020만 명이며 이들은 55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교는 국민의 8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그 이외에 기독교, 가톨릭교, 힌두교, 불교 등도 믿는다. 그리고 1999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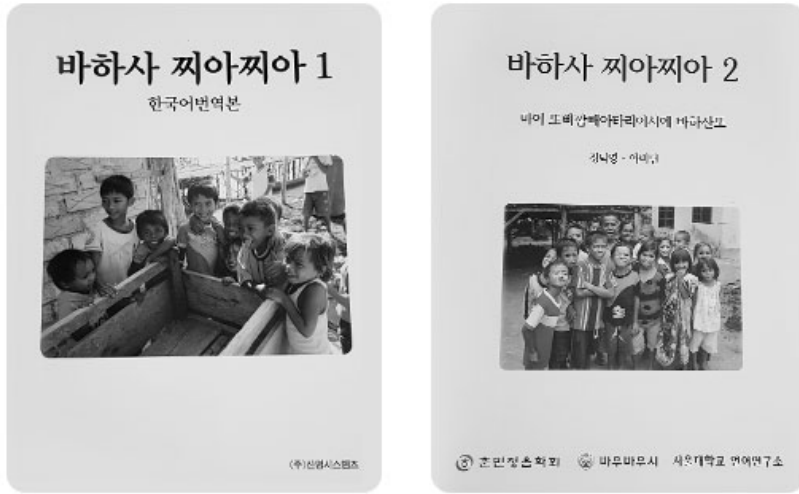
짜아찌아어가 사용되는 부톤섬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남동 술라웨시 자치주 소속이며, 인구가 50만여 명이며, 짜아찌아족의 인구는 91,000명 정도이다. 그리고 부톤섬의 최대 도시는 바우바우시로 인구가 18만여 명이다. 이들은 토착어인 짜아찌아어를 사용하지만, 공용어로 인도네시아어도 사용하며, 윌리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짜아찌아어는 까에사부 방언, 삼블라와(맘블루-라보로) 방언, 와블라 방언, 마시리 방언의 4개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부톤 섬의 위치

짜아찌아족의 한글 교육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 ㄱ. 2005년 전태현 교수를 비롯한 훈민정음학회의 한글 사용 제안, 2009년 부족장 회의를 통해 부족어를 적는 데 한글을 적용하기로 결정
- ㄴ. 2009년 <바하사 짜아찌아 1> 발간 및 짜아찌아족 한글 교육 시작(까르야바루 초등학교, 제6고등학교)
- ㄷ. 2010년 한국어 교사(정덕영) 파견, 제1회 짜아찌아족 한글교사 양성자 과정 수료식(25명)
- ㄹ. 2012년 세종학당 설립(한국어 교육)
- ㅁ. 2012년 세종학당 폐쇄, <바하사 짜아찌아 2> 발간
- ㅂ. 2017년 제2회 짜아찌아족 한글교사 양성자 과정 수료식(23명)



[그림 3] 짜아찌아족 대상 한글 교육 교재

- 스. 2018년 제3회 짜아찌아족 한글교사 양성자 과정 수료식(15명)
- ㅇ. 2021년 <짜아찌아 파보코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사전 출간
- 즈. 2022년 짜아찌아한글학교 개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2144&ref=A>)

현재의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6) ㄱ. 2003년 국립 가자마다대학에 한국어학과 개설
- ㄴ. 2005년 내시오날대학교에 한국어과 개설
- ㄷ. 2006년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에 한국어학과 개설
- (7) ㄱ. 바우바우시의 소라월리오 소재 까르야바루 지역(3,4,5학년 학생 150명이 1주일에 2시간 씩 한글 학습), 부기 지역(초등생 56명, 64명), 곤다바루 지역, 까이사부바루 지역



[그림 4] 짜아찌아족 대상 한글 수업 광경



[그림 5] 부톤 섬의 한글 거리 표지판

- ㄴ. 남부 부톤: 바따우가 소재 맘불루 지역, 삼쁠라 지역(중학교)
- ㄷ. 바우바우시의 바우바우 제2고등학교(1,2학년 학생 700명이 1주일에 한 시간씩 한국어 학습)

이에 따라 이정표에 한글을 병기하기도 하고, 한국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부터는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적기 위한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들은 (5ㄴ, ㄱ)에 제시된 교재에서 찌아찌아어의 자음과 모음을 적기 위해 사용된 한글 낱자들이다.

〈표 1〉 찌아찌아어 자음 표기를 위한 한글 낱자

자음	g	k	n	d	d̥	t	r	l	m	b	f
1차	ㄱ	ㅋ	ㄴ	ㄷ	ㅌ	ㅌ	ㄹ	ㄹㄹ	ㅁ	ㅂ	
추가								ㅍ			ㅍ

자음	β	β̥	p	s	z	ʔ	ŋ	dʒ	tʃ	h	ɸ
1차	병	ㅍ	ㅍ	ㅅ			ㅇ	ㅈ	ㅊ	ㅎ	ㅋ
추가					ㄷ	ㅇ					

우선 자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 (8) ㄱ. 유성 파열음/파찰음 /g, d, b, dʒ/는 기본자인 ㄱ, ㄷ, ㅂ, ㅈ으로 적고, 무성 파열음/파찰음 /k, t, p, tʃ/는 각자병서인 ㅋ, ㅌ, ㅍ, ㅊ으로 적었으며, 내파음(implosive consonant) /d̥, b̥/, 그리고 유성 목젓마찰음 /β/은 가획자인 ㅌ, ㅍ과 ㅋ으로 적었다.
 - ㄴ. 비음 /n, m, ŋ/과 유음 ㄹ은 각각 불청불탁자인 ㄴ, ㅁ, ㅇ과 ㄹ로 적었다.³⁾
 - ㄷ. 무성 마찰음 /s, h/는 각각 ㅅ과 ㅎ으로 적었다.
- (9) 설측음 /l/, 양순마찰음 /f, β/, 유성 치조마찰음 /z/, 성문파열음 /ʔ/는 각각 ㅌ, ㅍ, 병, ㄷ, ㅇ으로 적었다.

위의 자음자 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0) ㄱ. 현대 한국어와 같거나 비슷한 소리는 최대한 현대 한국어를 적기 위한 글자와 일치하도록 한다.
 - ㄴ. 현대 한국어에 없는 소리는 최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그것과 비슷한 소리를 적는 글자를

3) ㅇ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기본자였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불청불탁자로 간주된다.

이용하고, 그러한 글자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이용하거나 합자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서 적는다.

아래는 이러한 자음자들을 이용한 표기의 예들이다.

- (11) ㄱ. 을라부[labu] 호박, 음불레[mbule] 돌아가다, 사부르[zabur] 찬송가
- ㄴ. 알라무[alamu] 자연, 루아[rual] 돌, 모하로[moharo] 배고프다
- ㄷ. 파벨 [fabel] 우화; 사렘[zalim] 잔인한
- ㄹ. 팔루[palu] 망치 => 빠루[palu] 망치
- ㅁ. 마하[maʔa] 먹다

〈표 2〉 찌아찌아어 모음 표기를 위한 한글 낱자

모음	a	e	o	u	i	ja	ju	je	jo	ji	(null)
1차	ㅏ	ㅓ	ㅗ	ㅜ	ㅣ	ㅑ	ㅕ	ㅛ	ㅟ		—
추가										ㅟ	

모음을 적기 위한 낱자는 자음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 찌아찌아어의 모음들은 대부분 현대 한국어의 모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의 모음을 적는 글자로 적도록 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는 ji를 적기 위한 ㅣ이다. 찌아찌아어의 장모음을 적는 방법은 따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예들을 보면 같은 모음을 거듭해서 적었다.

- (12) 까카자아 [kaghajaa] 일하다

이어서 찌아찌아어 사전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책의 서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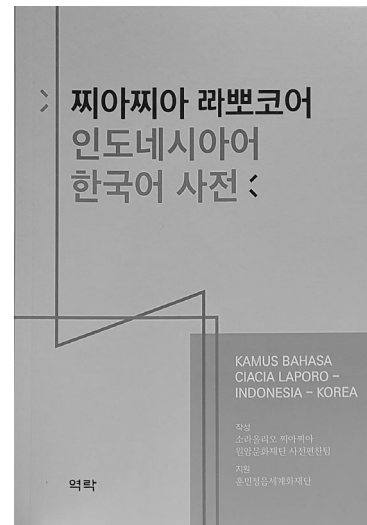
- (13) ㄱ. 저자: 소라올리오 찌아찌아 원암문화재단 사전편찬 팀(작성: 아비딘, 꾸르니아완 아브리얀또, 자료 수집: 짜 오테 자바루, 번역: 아비딘, 꾸르니아완 아브리얀또, 모하맛 라시드)
- ㄴ. 책 이름: 찌아찌아 짜보코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사전
- ㄷ. 연구 및 출판 지원: (사)훈민정음세계화재단
- ㄹ. 발행일: 2021년 12월 27일
- ㅁ. 출판사: 역락
- ㅂ. 총 212쪽

이 사전은 머리말, 글자와 철자법, 단어, 수록 단어의 범위, 부호의 뜻, 어근과 접사 배열 순서, 단어집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는 한글로 적힌 짜아찌아 띠쁘코어, 로마자로 적힌 인도네시아어, 한글로 적힌 한국어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주표제어 2,932개(예: 아반따카 ‘잠시’)와 주표제어에 딸린 부표제어(예: 부에- ‘흔들리다’, 부에 부에 ‘아기를 흔들다’; 캄비따- ‘던지다, 내던지다’, 캄비따히시에 ‘던지게 하다’, 짜캄비따 ‘내던져지다’)도 제시되어 있다.

짜아찌아어는 일시적인 한글 적기가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으로 한글로 적는 방법이 시도되고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그 중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종의 방과후 수업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글 교육이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정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면 짜아찌아족의 문맹률 감소, 전통적인 언어문화의 존중과 보존, 그리고 부푼섬과 인도네시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짜아찌아어 사전에 수록된 단어들의 숫자를 확대하고 짜아찌아족의 구비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짜아찌아족의 문화가 한글로 적힌 자료를 통해 보존되고 젊은 세대들이 그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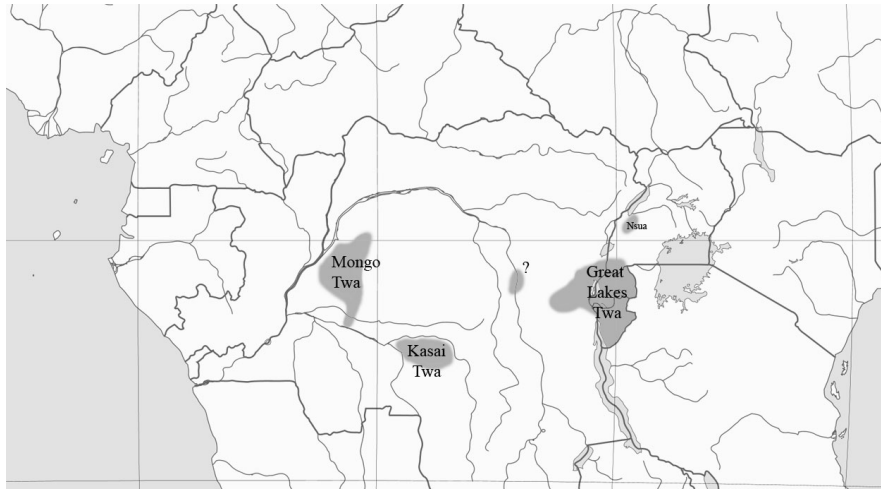


[그림 6] 짜아찌아 띠쁘코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사전

4. 치뎀보의 한글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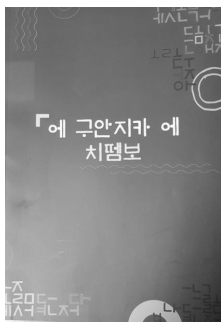
치뎀보(ki=말, tembo=코끼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 키부주 부냐키리 지역,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등의 중앙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트와족이 쓰는 언어이다. 이 치뎀보가 한글로 적히게 된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4) ㄱ. 2015년 트와족 공주 Miriam가 최관신 선교사에게 한글 표기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
- ㄴ. 2016년 치뎀보를 한글 자모로 표기하는 안건이 2016년 동부 사우스키부주(州) 의회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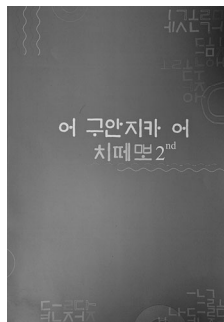


[그림 7] 트와족의 거주지

- ㉔. 2016년 이후 치뎬보 어휘와 문법에 대한 녹음과 전사, 분석, 한글표기법 마련
- ㉕.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쳐 교재 발간(어 구안지카 어 치뎬보 2nd)
- ㉖. 2020년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 등 성경 4개 복음서 발간(소강춘, 작은손선교회)
- ㉗. 2025년 신약성경 발간(치뎬보 성경번역 위원회, 작은손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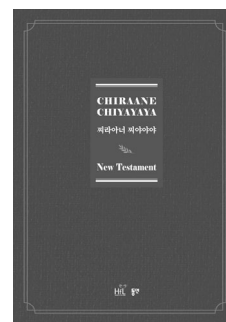
[그림 8] 치뎬보 한글 교육 교재(1)



[그림 9] 치뎬보 한글 교육 교재(2)



[그림 10] 치뎬보 한글 복음서



[그림 11] 치뎬보 한글 신약 성경

다음에 치뎬보를 적기 위한 교재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하의 내용은 (14ㄷ)에 근거한 것이다. 치뎬보 교재의 내용은 한국어와 한글, 치뎬보 정음 표기 체계(모음과 자음의 표기와 음가, 자음과 모음의 사용 용례), 음절의 생략 표기와 용례로 구성되어 있다.

치뎬보의 모음과 이를 적기 위한 한글 낱자는 다음과 같다.

〈표 3〉 치뎀보 모음 표기를 위한 한글 낱자

a	i	u	e	o	ya	yi	yu	ye	yo	wa	wi	wu	we	wo
ㅏ	ㅣ	ㅓ	ㅑ	ㅗ	ㅑ	ㅣ	ㅠ	ㅑ	ㅓ	ㅑ	ㅓ	ㅑ	ㅑ	ㅓ

우선 단모음에 대해서는 'ㅣ'를 제외하고는 현대 한국어의 모음을 적는 낱자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를 적기 위해 'ㅑ'를 사용한 것은 모음을 적는 다른 글자들이 모두 기본자나 초출자라는 사실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y-계 이중모음을 적는 글자들도 현대 한국어에 없는 [yi]를 적기 위한 ㅣ를 제외하고는 현대 한국어의 한글 낱자와 기본적으로 같다. w-계 이중모음을 적는 글자들도 현대 한국어에 없는 [wu]와 [wo]를 적기 위한 ㅑ와 ㅓ만 다를 뿐이다. 현대 한국어에 없는 이중모음을 적는 글자의 꼴도 각각 재출자를 만드는 원리 및 병서하여 적는 원리와 같다. 치뎀보의 자음과 이를 적기 위한 한글 낱자는 다음과 같다.

〈표 4〉 치뎀보 자음 표기를 위한 한글 낱자

∅	k'	n	t'	s	ts	r	m	p	b	h
ㅇ	ㄱ	ㄴ	ㄷ	ㅅ	ㅈ	ㄹ	ㅁ	ㅂ	ㅃ	ㅎ

자음 목록에 'ㅇ'가 들어간 것은 초성 위치에 오는 자음 대신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을 적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 기본자나 1차 가획자, 이체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양순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어서 1차 가획자인 ㅃ과 2차 가획자인 ㅆ을 이용하고 있다.

〈표 5〉 치뎀보 자음군 표기를 위한 한글 병서

l	sh	tsh	ŋg	nd	nz	ndz	mb
ㄹ	ㅃ	ㅆ	ㅇㄱ	ㄴ	ㄴ	ㄴ	ㅃ

각자병서는 [ll]을 적기 위한 ㄹㄹ, [sh]를 적기 위한 ㅃ, [tsh]를 적기 위한 ㅆ이 사용되고 있다. [sh]와 [tsh]을 위해 현대 한국어의 음가와 일치하도록 ㅅ과 ㅆ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ㅃ이 양순 무성무기 파열음을 적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ŋg], [nd], [nz], [ndz], [mb] 등의 자음군은 합용병서 ㅇㄱ, ㄴ, ㄴ, ㄴ, ㅃ으로 적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서 ㄴ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어 표기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인데, 한국어와 치뎀보의 음운 목록의 차이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치뎀보에 대한 한글 표기는 (사)훈민정음 세계화 재단과 (사)작은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선교 활동을 주로 하는 (사)작은손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소득증대와 가축 나누기,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학교 건축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글 표기도 이러한 사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단순한 문자 보급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경제와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 한글페스타

한글페스타는 재단법인 한글누리 소속 한글누리연구소에서 벌이고 있는 외국어 한글 적기 영상 공모전이다. 이 법인은 외국어 한글 표기법 연구, 오늘의 한글 이야기, 한글 표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문자학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의 하나로 외국어에 한글을 사용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한글페스타가 개최되고 있다.⁴⁾

20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첫해는 ‘반짝반짝 작은 별’ 가사 쓰기, ‘바람과 해님’ 쓰기, 훈민정음 서문 낭독 및 번역 쓰기 등의 주제에 대해 45개국 33개 언어로 된 193개 작품이 응모하였다.

2024년에는 노래가사 쓰기, 이야기 쓰기, 국가 쓰기의 주제에 대해 48개 국가에서 41개 언어로 된 240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2025년에는 응모자의 국가의 전통적인 노래와 영웅 이야기를 한글로 적는 두 가지 주제가 제시되어 응모 기간이 8월 15일에 끝났고 10월 1일에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와는 달리, 긴 호흡으로 한글을 경험하고 그 효용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어의 표준어가 아닌 방언과 외국어를 한글로 적는 방법과 실태, 문제점에 대해

4) <https://www.hangeul-festa.org/festa/award.php?no=37>에 제1회와 제2회의 수상작이 공개되어 있다.

살펴보았다. 한글의 창제 목적 중의 하나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글로 적는 대상의 확대는 효과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문맹률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보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적는 대상을 깊이 분석하고 한글로 적는 방법을 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우리의 문화인 한글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견해는 문화 충돌이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글을 수용하는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고성익(2024), 한글(훈민정음)로 외국어 적기의 현황과 과제, 578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45~266쪽.

고영진(2002),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형태론, 한글 256, 7~43쪽.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고동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전자우편: kodongho@gmail.com

한글 제자 원리와 디자인 상용화 가능성

우실하(한국항공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한글은 음성을 표기하는 문자로서 기능 이외에 예술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음을 여러 분야에서 확인하고 있다. 한글의 제자(制字) 원리 안에도 동양 사상에 바탕을 둔 우주적 원리가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한글만다라’를 창작하여 예술 차원으로 승화하고, 다양한 한글디자인을 활용해서 상업적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이고 발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2. 한글의 제자 원리(制字原理)¹⁾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조선 세종 때에 만들어진 독자의 문자 체계다. 훈민정음은 철저하게 음양론, 오행론, 삼재론, 하도(河圖)의 논리가 결합되어 만들어져 있다. 훈민정음은 28자로 자음 17자와 모음 11자가 바탕이며, 이 28자가 어떤 제자 원리에 입각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훈민정음 자음 17자의 제자 원리

첫째, 훈민정음의 자음 17자는 각기 5행에 해당하는 5개의 기본 자음인 ㄱ(木: 牙音)²⁾, ㄴ(火:

- 1) 필자가 쓴 기존의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우실하(1997), “한국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초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06쪽.
우실하(1997),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 문화 바로 읽기』, 소나무, 255~262쪽.
우실하(1998),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소나무, 268~275쪽.
- 2) 아음(牙音: 어금니 소리)의 기본음인 ㄱ(기역)은 아음인 ㄱ, ㅋ, ㆁ 등을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아음이 오행의 목(木)에 배당되는 것은, 어금니(牙)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무의 가치를 닮은

舌音³⁾, 口(土: 脣音)⁴⁾, 𠂇(金: 齒音)⁵⁾, 〇(水: 喉音)⁶⁾에 1-2차 가획(加劃)을 하여 만들어졌다.⁷⁾ 따라서 자음 17자는 오행의 상징들에 자연스럽게 배당된다.

둘째,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은 상형문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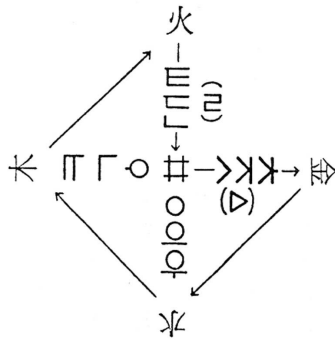
셋째, ‘아 → 설 → 순 → 치 → 후’의 순서는 오행상생론(五行相生論)에 따른 상생 관계의 배열이다. 따라서 자음 17자는 발생 순서가 오행상생론에 따라서 ‘ㄱ ㅋ ㆁ → ㄴ ㄷ ㅌ ㄹ → ㄷ ㅃ ㅍ → ㅅ ㅆ ㅈ ㅊ → ㅇ ㆁ ㆁ’의 순서가 된다.

데에 기인한다.

- 3) 설음(舌音: 혀 소리)의 기본음인 ㄴ(니은)은 설음인 ㄴ, ㄷ, ㅌ, ㄹ(반설음) 등을 발음할 때 혀가 입천장에 붙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설아음이 오행의 화(火)에 배당되는 것은, 혀(牙)가 발음 기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 4) 순음(脣音: 입술 소리)의 기본음인 ㅁ(미음)은 순음인 ㅁ, ㅂ, ㅍ 등을 발음할 때 입술이 닫혔다가 열리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순음이 오행의 토(土)에 배당되는 것은, 소리를 머금었다가 토해내는 것이 땅이 만물을 머금고 기르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 5) 치음(齒音: 잇 소리)의 기본음인 ㄷ(시옷)은 치음인 ㄷ, ㅈ, ㅊ, ㅊ(반치음) 등을 발음할 때 이빨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오므로 이빨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치음이 오행의 금(金)에 배당되는 것은, 이빨이 발음 기관 가운데 가장 단단하기 때문이다.
- 6) 후음(喉音: 목구멍 소리)의 기본음인 ㅇ은 아음인 ㅇ, ㆁ, ㆁ 등을 발음할 때 목구멍을 둥글게 벌리게 되므로 목구멍의 둥근 형태를 본뜬 것이다. 후음이 오행의 수(水)에 배당되는 것은, 목구멍은 언제나 젖어 있기 때문이다.
- 7)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解例)제자해(制字解). 참조.
 자음이 오행에 배당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인용문에 계속해서 오행의 여러 가지를 배당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도표화한 것이 뒤의 <도표>들이다.
 아음(牙音)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상형하고, 설음(舌音) ㄴ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상형하고, 순음(脣音) ㅁ은 입의 모양을 상형하고, 치음(齒音) ㄷ은 이의 모양을 상형하고, 후음(喉音)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중략).... 무릇 사람의 소리가 있음도 오행(五行)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사시(四時)에 맞추어 어그러짐이 없고, 오음(五音)에 화합하여 틀리지 않는다.
 목구멍(喉)은 깊고 젖어있어 수(水)라고 할 것이다. 소리는 허(虛)하고 통(通)하여 물의 허명(虛明)함과 같다. 시절로는 겨울이 되고, 음(音)으로는 우(羽)가 된다.
 어금니(牙)는 착잡(錯雜)하고 길어서 목(木)이라고 할 것이다. 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해도 여물어서 나무가 물에서 나서 형태가 있는 것과 같다. 시절로는 봄(春)이 되고, 음(音)으로는 각(角)이 된다.
 혀(舌)는 날카롭고 움직여서 화(火)라고 할 것이다. 소리는 구르고 날리어, 불이 구불고 퍼져 힘차게 솟아오름과 같다. 시절로는 여름(夏)이 되며, 음(音)으로는 치(徵)가 된다.
 이(齒)는 단단하고 끊어져서 금(金)이라고 할 것이다. 소리는 부스러지고 걸리어, 쇠의 가루가 다져져서 이루 어짐과 같다. 시절로는 가을(秋)이 되고, 음(音)으로 상(商)이 된다.
 입술은 모나고 함하여 토(土)라고 할 것이다. 소리는 머금고 넓어서 땅이 만물을 머금어 기름이 넓고 큼과 같다. 시절로는 계하(季夏: 늦여름-필자)가 되고 음으로는 궁(宮)이 된다.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齶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ㄷ.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중략).... 夫人之有聲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吐之五音而不戾. 喉嚨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實. 如木社生於水而有形也. 於時爲春. 於音爲角. 舌銳而動. 火也. 聲轉而颯. 如火之轉展而揚揚也. 於時爲夏. 於音爲徵. 齒剛而斷. 金也. 聲屑而滯. 如金之屑瑣而鍛成也. 於時爲秋. 於音爲商. 脣方而合. 土也. 聲含而廣. 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 於時爲季夏. 於音爲宮.

〈표 1〉 훈민정음 자음 17자의 제자원리와 오행의 관계(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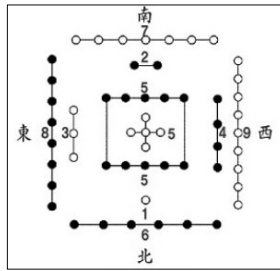
오행(五行) 배당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음양론(陰陽論)적 성격	양의 시작 +	양의 극대화 ++	주재자, 원리	음의 시작 -	음의 극대화 --
소리 름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혓소리	순음(唇音) 입술소리	치음(齒音) 잇소리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기본자 (상형문자)	ㄱ	ㄴ	ㅇ	ㅅ	ㅇ
1차 가획	ㅋ	ㄷ	ㅂ	ㅈ	ㅍ
2차 가획		ㅌ	ㅍ	ㅊ	ㅎ
모양이 다른 이체자	ㅇ	ㄹ (반설음)		ㅅ (반치음)	
자음 17자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ㅇ, ㅂ, ㅍ	ㅅ, ㅈ, ㅊ, (ㅅ)	ㅇ, ㅍ, ㅎ
계절 배당	춘(春)	하(夏)	계하(季夏)	추(秋)	동(冬)
오색 배당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방위 배당	동(東)	남(南)	중(中)	서(西)	북(北)
오장 배당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오상 배당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오음 배당	각(角)	치(徵)	궁(宮)	상(商)	우(羽)



[그림 1] 훈민정음 자음 17자와 오행의 관계(Ⅱ)⁹⁾

- * 가운데 '井' 모양은 'ㅇ, ㅂ, ㅍ'을 모아서 그린 것이다.
- * 화살표는 오행상생론에 따른 상생 순서를 나타낸다.

8) 이 도표에서 보이는 방위장기(臟器)오상(五常) 등의 5행 배당은, 모두가 『훈민정음』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9) 이정호(1990),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59쪽. (1990년 4판, 초판은 1975년).
 오행의 토(土)에 해당하는 가운데는 순음(唇音)인 ㅁ, ㅂ, ㅍ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것을 합쳐서 가운데에 우물정자(井) 모양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2] 하도(河圖)와 오행과 방위에 배당된 수(數)

*가운데는 흰 점 5개와 검은 점 10개(위 5 + 아래 5)로 하도의 5와 10을 표현하고 있다.

여섯째, 훈민정음의 모음 11자는 천-지-인을 상형한 3개의 상형문자(•, —, |)를 하도(河圖)의 원리로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래는 모음의 제자 원리를 밝히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解例) 제자해(制字解)」 부분이다.¹²⁾

- ㄱ는 처음 천(天)에서 나서, 천일(天一)로서 수(水)가 생(生)하는 자리이다.
- ㅋ는 다음이니 천삼(天三)으로 목(木)을 생(生)하는 자리이다.
- ㄷ는 처음 지(地)에서 생겨나니, 지이(地二)로 화(火)가 생겨나는 자리이다.
- ㄸ는 다음이니 지사(地四)로 금(金)이 생겨나는 자리이다.
- ㄴ는 다시 천(天)에서 생겨나니 천칠(天七)로 화(火)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 ㄹ는 다음이니 천구(天九)로 금(金)이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 ㄷㄷ는 다시 지(地)에서 생겨나니, 지육(地六)으로 수(水)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 ㄹ는 다음이니 지팔(地八)로 목(木)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
- 는 천오(天五)로 토(土)가 생(生)하는 자리이며,
- 는 지십(地十)으로 토(土)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 | 는 홀로 자리(位)와 수(數)가 없다¹³⁾.

12) '하도기원설'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아래의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부분이다.
 ㄱ는 처음 천(天)에서 나서, 천일(天一)로서 수(水)가 생(生)하는 자리이다. ㅋ는 다음이니 천삼(天三)으로 목(木)을 생(生)하는 자리이다. ㄷ는 처음 지(地)에서 생겨나니, 지이(地二)로 화(火)가 생겨나는 자리이다. ㄸ는 다음이니 지사(地四)로 금(金)이 생겨나는 자리이다. ㄴ는 다시 천(天)에서 생겨나니 천칠(天七)로 화(火)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ㄹ는 다음이니 천구(天九)로 금(金)이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ㄷㄷ는 다시 지(地)에서 생겨나니, 지육(地六)으로 수(水)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ㄹ는 다음이니 지팔(地八)로 목(木)의 수(數)를 성(成)하는 것이다. ... (중략)... • 는 천오(天五)로 토(土)가 생(生)하는 자리이며, — 는 지십(地十)으로 토(土)의 수(數)를 이룸이다. | 는 홀로 자리와 수(數)가 없는 자다. 대개 사람은 무극의 참과 이오(二五: 음양과 오행을 말함-필자)의 정(精)이 묘하게 엉키어서 실로 자리를 정함과 수를 이루는 것을 의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즉 중성 가운데도 또한 스스로 음양, 오행, 방위를 나타내는 수가 있는 것이다.

13)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ㄱ 初生於天. 天一生水之位也. ㅋ 次之. 天三生木之位也. ㄷ 初生於地. 地二生火之位也. ㄸ 次之. 地四生金之位也. ㄴ 再生於天. 天七成火之數也. ㄹ 次之. 天九成金之數也. ㄷㄷ 再生於地. 地六成水之數也. ㄹ 次之. 地八成木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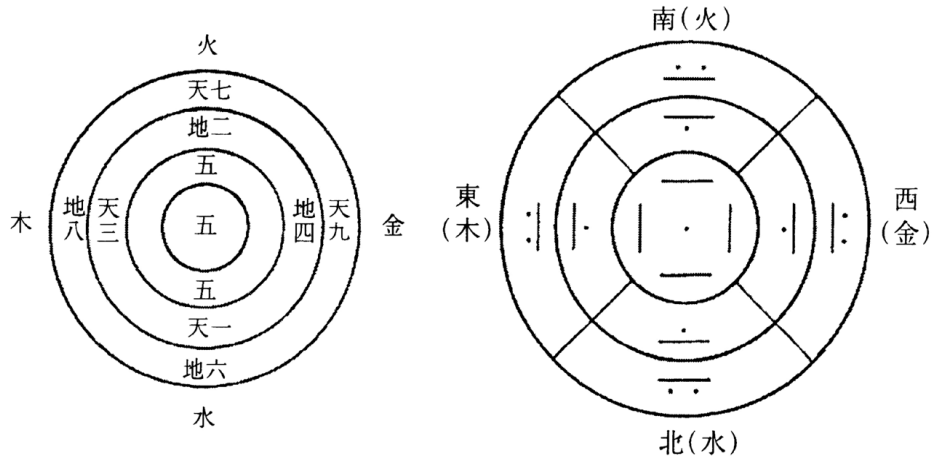
위의 인용 부분은 하도, 음양론, 오행론, 수리철학 등 동양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독되지 않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ㄱ 초생어천, 천일생수지위야(ㄱ 初生於天, 天一生水之位也.)”라는 의미는, ‘ㄱ’은 처음으로 하늘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도에서 양수(陽數/天數)인 1이 오행의 수(水)를 낳는(生)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즉, ‘ㄱ’은 하도의 1의 자리에서 ‘•’와 ‘ㄴ’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다른 것도 같다.이 부분을 하도와 연결해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훈민정음 모음 11자의 조합 원리와 하도의 위(位)와 수(數)

모음의 순서	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	ㅡ	ㅣ
生 次	初 生 於 天	次 之	初 生 於 地	次 之	再 生 於 天	次 之	再 生 於 地	次 之			
位 와 數	天 一 生 水 之 位 也	天 三 生 木 之 位 也	地 二 生 火 之 位 也	地 四 生 金 之 位 也	天 七 成 火 之 數 也	天 九 成 金 之 數 也	地 六 成 水 地 數 也	地 八 成 木 之 數 也	天 五 生 土 之 位 也	地 十 成 土 之 數 也	獨 無 位 數 者

數也.(중략).... • 天五生土之位也. ㅡ 地十成土之數也. ㅣ 獨無位數者. 蓋以人則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 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



[그림 3] 하도의 수 배당과 모음 11자의 조합 원리(=모음의 하도기원설)¹⁴⁾

- * 1·2·3·4·5 는 생수(生數)이고, 6(5+1)·7(5+2)·8(5+3)·9(5+4)·10(5+5)은 성수(成數)다.
- * 1·3·5·7·9는 양수(陽數) 또는 천수(天數)이고, 2·4·6·8·10은 음수(陰數) 또는 지수(地數)다.

일곱째, 모음이 하도의 논리로 조합된 것을 이해하면 음모음, 양모음, 중성모음의 구별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도에 배당된 1·3·5·7·9는 양수(陽數) 또는 천수(天數)이고, 2·4·6·8·10은 음수(陰數) 또는 지수(地數)이다. 따라서 하도의 1·3·5·7·9 자리에서 조합된 모음은 양모음이 되고, 2·4·6·8·10의 자리에서 조합된 모음은 음모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도에는 1-10까지의 수가 방위에 배당되어 있는데, 모음은 11자이다. 하도의 가운데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 —, |’ 3개의 모음이 배당되어 있다. 하도의 5의 자리에 배당된 것이 천을 상징하는 ‘·’이고, 10의 자리에 배당된 것이 땅을 상징하는 ‘—’이다. 사람을 상징하는 ‘|’는 하도에서 해당하는 수도 위치도 없다. 그래서 제자해에서도 “|는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자다. (| 獨無位數者)”라고 표현한 것이다.

모음이 하도에서 조합되기 때문에 제자해에서도 “이런즉 중성 가운데도 또한 스스로 음양, 오행, 방위를 나타내는 수가 있는 것이다(是則中聲之中. 亦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라고 표현한 것이다.

훈민정음의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는 음양, 오행, 방위, 수 등에 처음부터 배당된 것이다. 한글의 낱글자가 초성(天)·중성(人)·종성(地)이 합쳐서 하나의 낱글자로 완성되는 것도 삼재론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¹⁵⁾ 이런 점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은 중성이 없이 쓰이는 낱글자(보기: 가,

14) 가운데 ‘· — |’ 이 밖으로 조합되면서 ‘ㄱ ㅏ ㅑ ㅓ’ 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初生), ‘ㄴㅇ ㅕ ㅗ’ 는 음양이 조화되도록 재생(再生)하기 때문에 천을 상징하는 아래아 점(·)을 두 개씩 찍어서 만들어진다.

나 다.....)에도 초기의 한글에서는 음가(音價)가 없는 ‘ㅇ’을 중성의 자리에 굳이 놓았던 것이다.

결국, 훈민정음은, (1) 하나의 글자를 삼재론에 입각해서 초성·중성·종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2) 초성과 종성을 이루는 자음(子音)은 오행론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상형문자 5개(ㄱ, ㄴ, ㄹ, ㅁ, ㅇ)를 만들고 발음의 세기를 구별하여 획을 더하는 1-2차 가획(加劃)을 하여 만들어 졌고, (3) 중성인 모음(母音)은 천지인 삼재론에 입각한 기본 모음 3개(·, ㅡ, ㅣ)를 상형문자로 창안한 다음에, 역사상의 기본 도상인 하도(河圖)의 원리에 따라 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의 낱글자 하나하나에는 이미 음양론, 오행론, 삼재론, 하도, 상수철학 등이 결합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음이나 모음의 모양이 ‘왜’ 그러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를 철학의 원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 체계이다.

한글 훈민정음은 음양론, 오행론, 삼재론 등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결합된 동양 사유의 산물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유체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글이 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한글 모음의 하도기원설’과 정가(正歌)에서 한글 모음의 발음 원리

‘한글 모음의 하도기원설’을 알면, 흔히 정가라고 불리는 시조, 가곡, 가사나 궁중에서 추는 춤인 정재(呈才)의 창사(唱詞)에서 한글 모음의 발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가 이미 쓴 논문이 있어서 간략히만 소개한다.¹⁶⁾

15)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解例) 제자해(制字解)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에 대해서 말하면, 움직이고 고요함이 서로에 뿌리하고(動靜互根) 음과 양이 사귀고 변하는 뜻이 있다.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고요한 것은 땅이요, 움직이고 고요한 것을 결합한 것은 사람이다. ...(중략)... 초성은 피어나 움직이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중성은 그쳐 멈추려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요, 중성은 초성의 생(生)하는 것을 받아서 중성이 이루는 것을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글자의 운(字韻)의 긴요함은 중성에 있다. (중성이) 초성과 종성을 합하여 글자의 음(音)을 이루는 것은, 마치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하고 이루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르재어 이루고 보필하여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動者 天也. 靜者 地也. 兼乎動靜者 人也. ...(중략)...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亦猶天地生成萬物. 而其財成補相則必賴乎人也.

16) 우실하(2000), “가곡에서 한글 모음의 발음 원리”, 『한국음악사학보』 제25집, 한국음악사학회, 5~33쪽.
우실하(2001), “가곡에서 한글 모음의 발음 원리에 대한 김세중의 반론에 대하여”, 『한국음악사학보』 제27

한국의 대표적인 성악곡인 정가(가곡, 가사, 시조)나 창사 등에서, (1)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단모음인 ‘ㄱ, ㅋ, ㆁ’는 예외 없이 분해해서 ‘+ |, ㄱ+ |, ㆁ+ |’로 발음하고, (2) 쉽게 분해될 수 있는 복모음인 ‘ㅇ, ㅈ, ㅊ, ㅋ’는 절대로 ‘+ㅇ, |+ㅈ, |+ㅊ’로 분해하지 않고 발음한다. 예를 들어, (1) ‘이태백에게...’는 ‘이 타+ | 바+ | 어+ | 거+ | ...’로 발음되며, (2) ‘...여기야’는 그냥 ‘... 여기야’로 발음된다.

필자는 가곡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여러 분께 그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뿐 이유는 모른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이유가 모음의 하도기원 설에 있다고 본다.

첫째, 훈민정음의 모음 11자(•,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하도의 1-10까지의 정해진 수와 자리에서 조합된다. 물론 ‘ㅣ’는 해당하는 수나 자리가 없어서 중성모음이 된다. 이런 까닭에 모음 11자는 음양, 오행, 수, 하도의 특정 자리, 방위 등 동양철학적 각종 상징들과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둘째, 17세기 경에 이미 단모음화 되어 분해될 수 없는 ‘ㄱ, ㅋ, ㆁ’를 예외 없이 ‘조합된 정음’들로 분해해서 ‘+ |, ㄱ+ |, ㆁ+ |’로 발음하는 것은 ‘ㄱ, ㅋ, ㆁ’가 단모음이긴 하지만 동양철학적 상징을 갖는 정음(正音)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 ㅋ, ㆁ’는 반드시 철학적 상징을 지닌 정음인 ‘+ |, ㄱ+ |, ㆁ+ |’로 분해되어 발음된다.

셋째, 쉽게 분해될 수 있는 복모음인 ‘ㅇ, ㅈ, ㅊ, ㅋ’를 절대로 ‘+ㅇ, |+ㅈ, |+ㅊ’로 분해하여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ㅇ, ㅈ, ㅊ, ㅋ’는 이미 동양철학적 상징을 지닌 ‘정음’이기 때문이다.

넷째, 복모음 가운데 정음이 아닌 복모음들은 필요한 경우에 모두 정음으로 분해해서 발음한다. 예를 들어 ‘와, 위, 되, 왜’는 ‘오+ㅏ, 우+ |, 오+ㅏ+ |’로 분해해서 발음한다.

다섯째, 정음인 ‘ㅇ, ㅈ, ㅊ, ㅋ’를 제외한 복모음이 분해되는 경우에는 ‘들리는 음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합된 정음’들로 분해된다. 예를 들어, ‘예’는 ‘이+ㅊ+ |’가 아니라 ‘여+ |’로 분해되어 발음한다.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정음(正音) 28자’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총 28자뿐이다. 그러므로 모음의 경우 이 11자를 제외한 다양한 단모음이나 복모음은 ‘올바른 소리’를 의미하는 ‘정음’이 아니다. 『훈민정음』에 의하면 이 정음 28자는 모두 동양철학적 상징과 연결되고 음양, 오행, 수, 방위 등에 배당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가나 창사에서 한글 모음의 발음 원리는 『훈민정음』에서 이야기하는 동양철학적 상징을 지니는 정음(正音)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곧 ‘ㄱ ㅋ ㆁ’가 비록 단모음이지만, 정음이 아

집, 한국음악사학회, 105-114쪽.

니므로 정음들로 분해해서 발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모음이지만 정음(正音)인 ‘ㅛ ㅜ ㅠ ㅋ’는 절대로 분해를 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이다.

4. 한글의 제자 원리와 ‘한글 만다라’

필자의 ‘한글 만다라’는 몇 단계를 거쳐서 그림작품과 상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훈민정음 28자(자음 17자와 모음 11자)는 모두 음양, 오행, 하도 등에 배당되어 있다. 필자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최초로 도상화하여 그린 것은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가 2000년에 정식으로 창립되고 2001년에 만든 한글문화연대의 ‘티셔츠 도안’이었다. 이 단체에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오랜 벗 개그맨 정재환의 부탁이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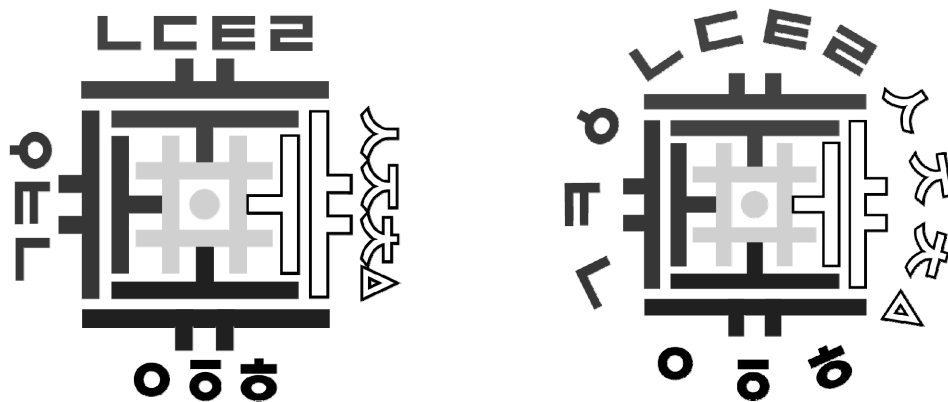
자음과 모음을 오행에 배당하여 오방색으로 처리하였고, 가운데 모음을 배치하고 주변에 자음으로 두른 모습이다. 한가운데 보이는 우물정자 모양의 ‘井’은 자음과 모음이 공유하는 것인데, (1) 자음에서는 오행의 토(土)에 배당된 입술소리(唇音)인 ‘ㄱ, ㅋ, ㆁ’이 합쳐진 모습이고, (2) 모음에서는 하도의 5와 10자리에 배당된 천지인(·, —, |)이 결합된 모습이다.



[그림 4] 2001년 필자가 도안한 한글문화연대 티셔츠 문양

17) 당시에 필자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요녕대학(遼寧大學)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티셔츠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선물한다고 정재환이 50벌 정도를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제품의 수량이 너무 많아서 수입품에 해당한다고, 관세를 수천 위안을 부가하는 바람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그대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기억이 새롭다.

둘째, 2021년에 필자는 성북동에 있는 ‘아트노이드 178’이라는 화랑의 초대전을 하였다. 이때 전시 제목이 <한글 우주를 폼다! 한글 만다라와 신년화>(2021.2.3.-2.27)였다. 이 전시회부터 한글 제자 원리를 그린 도상을 ‘한글 만다라’라고 나름대로 최초로 명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전시는 2021년에 열렸지만 한글 만다라 작품과 기본 도상들은 모두 2020년에 완성된 것이다.



[그림 5] 우실하의 ‘한글 만다라 기본 도상’(2020)

셋째, 위에 소개한 한글 만다라 기본 도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글 만다라 작품을 준비해서 초대전을 성황리에 마쳤다.¹⁸⁾ ‘한글 만다라’라는 명명에 대해서 필자는 “만다라가 우주적 원리를 도상화한 것이라면 ‘한글 만다라’는 한글의 제자 원리 안에도 우주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정의하였다.

초대전에서는 크고 작은 ‘한글 만다라’ 작품 18점과, 신년화 13점 총 31점이 전시되었다. 전시 도록에서 필자는 한글 만다라 작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은 세계 언어학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글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제자(制字) 원리’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회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제자 원리를 통해 ‘한글 한류’도 시작되었으면 좋겠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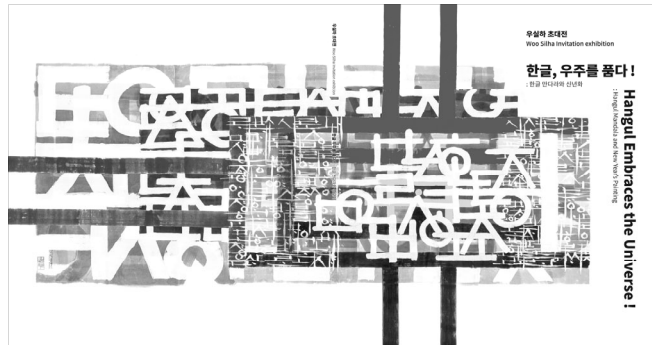
우실하의 ‘한글 만다라’ 작품들은 한글의 ‘제자(制字) 원리’를 바탕으로 5방위에 모음과 자음을 배당하고 5방색을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만다라’가 우주적 원리를 도상화한 것이라면 ‘한글 만다라’는 한글의 제자 원리 안에도 우주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²⁰⁾

18)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랑 대표의 말로는 개관 이래 최대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하며 국내 11개의 신문에 소개 기사가 났었다.

19) 우실하(2021), 『우실하 초대전 ‘한글 우주를 폼다! 한글 만다라와 신년화’』, 아트 노이드 178, 전시 도록, 5쪽

20) 위 전시 도록, 8쪽.

6-1. 전시 도록 표지



6-2. 포스터



6-3. 리플렛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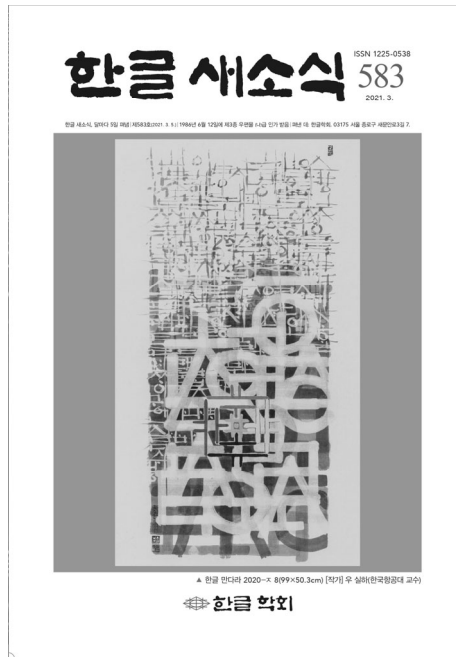


6-4. 초대장 표지



[그림 6] 우실하 초대전 '한글 우주를 품다! 한글 만다라와 신년화'(2021)

넷째, 한글의 제자 원리를 그린 한글 만다라 작품 전시회는 여러 신문들에 소개되었고, 한글학회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필자의 한글 만다라 그림 가운데 한 점이 한글학회 소식지인 『한글 새소식』의 표지(2021.3월 583호)에 실렸다. 이를 계기로 한글학자들에게도 한글 만다라가 소개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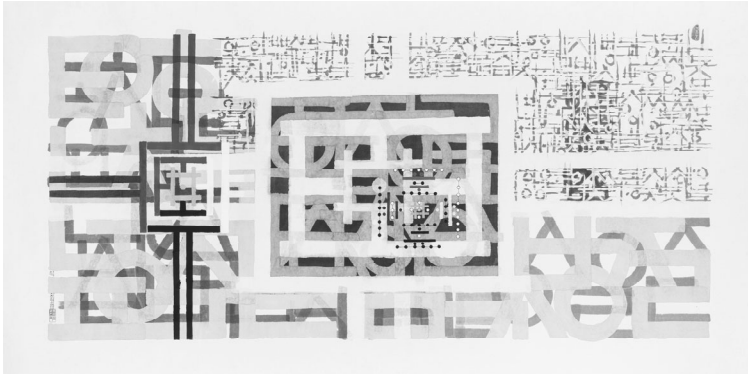
[그림 7] 한글학회의 『한글 새소식』 583호 표지(2021년 3월)²¹⁾

다섯째, 필자의 한글 만다라 작품들은, (1) 한지에 먹과 채색 그리고 우유를 사용한 것으로, (2) 특히 우유를 이용하여 한지 위에서 먹으로 여러 층의 레이어를 그리는 기법을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3) 한글 제자 원리, 하도, 어제 서문 등을 조합하여 그려진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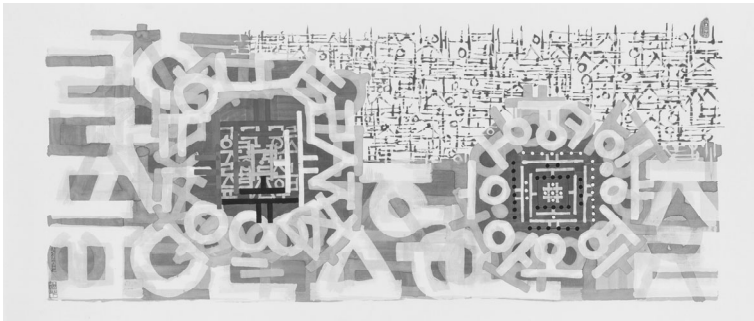
기존에도 한글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예술작품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한글의 제자 원리를 조형화한 작품은 필자가 처음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그린 그림을 필자는 처음으로 ‘한글 만다라’로 명명하고 전시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시되었던 필자의 ‘한글 만다라’ 18점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21)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583호(2021년 3월),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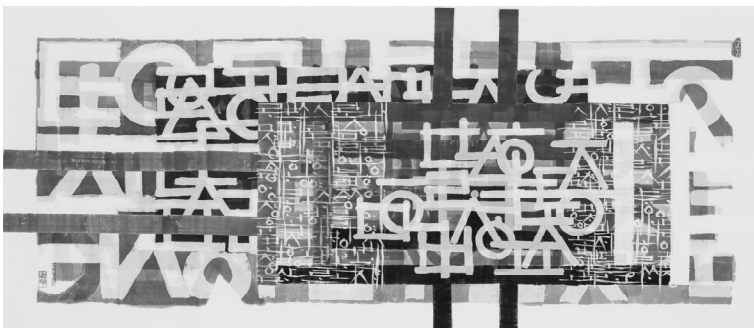
8-1. 한글 만다라 2020-㉠ 1 (123.3 × 246.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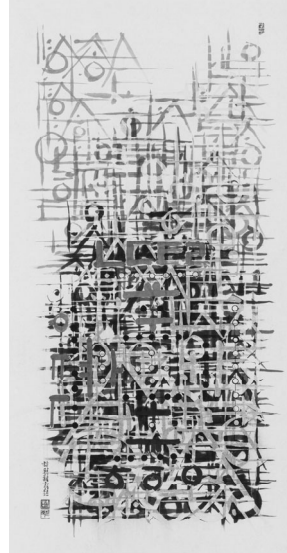
8-2. 한글 만다라 2020-㉠ 2 (87 × 204 cm)



8-3. 한글 만다라 2020-㉠ 5 (87.6 × 206.4 cm)



8-4. 한글 만다라 2020-ㄱ 8 (210 × 90cm) 8-5. 한글 만다라 2020-ㄴ 3 (99 × 50.3 cm)



[그림 8] 우실하의 '한글 만다라' 작품들(2020)

여섯째, 전시회 이후에도 한글 만다라 작품은, (1) 2004년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커뮤니티 기반 융합 전시- 어느 정도 예술공동체“ 부기우기 미술관>이라는 전시회(2022.4.28.~5.5)에도 전시되었고, (2) 2024년 미국에서 열린 <2024 Flags Flying in San Bernardino: Wave of Art, Winds of Haarmony> 전시회(2024.12.20.-12.31)에도 출품되었으며, (3) 2005년에는 '한글 문화 도시'를 선포한 세종시에서 이를 기념하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악공연 <미디어아트 가무악 빛가락>(2025.5.31.)에서는 개막 첫 곡인 '취풍류'라는 곡의 배경으로 4점의 한글 만다라 작품이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소개되기로 했다.

5. 한글 제자 원리의 디자인 상용화 가능성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 만다라 작품은 다음 전시회를 위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²²⁾ 필자는 정년을 1학기 남기고 있다. 정년 이후 인생 2막을 생각하면서, 한글 만다라 문양과 작품을 이용해서 머그잔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0여 점의 샘플을 제작하여 친한 벗들에게 선물하니 무척 반응이 좋았다. 정년 이후에는 이

22) 필자는 꿈은 가능하다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것을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한글 만다라 문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한글 만다라 그림들을 이용해서 머그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가능하다고 본다. 필자 나름대로 한글 제자 원리의 디자인 상용화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K-팝, K-드라마, K-영화 등 소위 'K-컨텐츠' 상품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필자는 그 후속 'K-컨텐츠'는 한글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한글 붓글씨나 한글 자음과 모음의 1차원적으로 배열한 기존의 디자인과 한글의 제자원리를 표현한 한글 만다라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필자는 한글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한글(hangeul) 2개, 한글만다라(hangeul-mandala) 3개 모두 5개의 도메인을 등록해 놓았다. 한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는 갖는다. 한글은 이미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영문 'hangeul'로 시작하는 도메인은 필자가 2개를 등록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 'hangeul'로 시작하는 도메인만큼은 한글학회나 외솔회 등에서 교육부나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한글을 소재로 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 공익적 목적의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저렴하게 양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표 3〉 필자가 등록한 도메인 주소

*아직 홈페이지 제작 전이라서 열리지는 않음.

<p>www.hangeul-mandala.com</p> <p>www.hangeul-mandala.shop</p> <p>www.hangeul-mandala.store</p> <p>www.hangeul.shop</p> <p>www.hangeul.store</p>
--

셋째, 한글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 원리를 디자인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글 만다라 문양이나 작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상품들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의 한류 팬들은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공부하게 될 것이다. 모르는 벗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공부거리가 될 것이다.

넷째,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면 누구든지 한글이 왜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인지를 부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 만다라 문양과 작품들은 충분히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한글의 논리성과 과학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필자의 한글 만다라 문양과 작품을 이용해서 만든 머그잔 시제품 몇 가지를 소개한다. 머그잔은 승화전사(昇華傳寫) 기법으로 만들었다. 뚜껑의 경우는 굴곡이 있어서 승화전사가 불가능해 일단 시제품에는 물전사=수전사(水傳寫) 기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시작 단계라서 디자인이 많지 않지만, 한글을 알리는 문화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9-1. 한글 만다라 문양으로 만든 머그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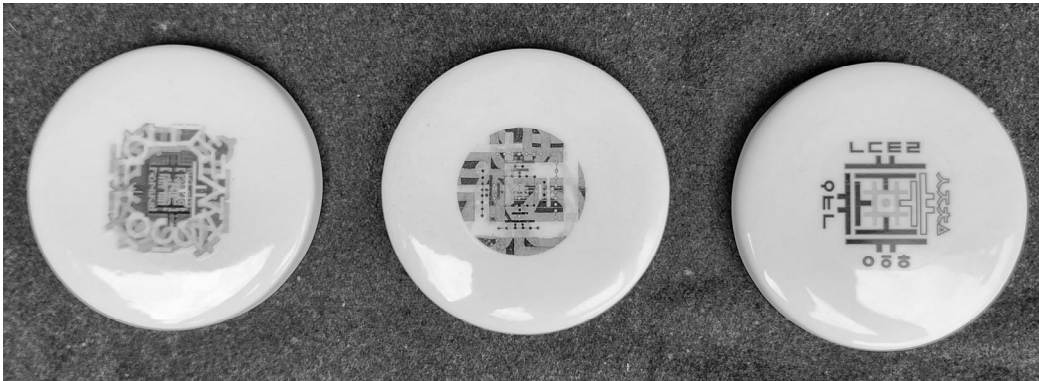


9-2. 한글 만다라 작품으로 만든 머그잔





9-3. 머그잔 뚜껑



9-4. 뚜껑을 덮은 모습



[그림 9] 필자의 '한글 만다라'를 바탕으로 한 머그잔

6. 글을 마치며

필자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어릴 때 학교에서 많이 들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이해한 것은 혼자서 한글의 제자 원리에 관해 연구하고 난 뒤였다. 아마도 일반 한국인들 가운데 한글의 제자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세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는 논리성, 과학성, 철학적-우주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K-팝 이후 많은 'K-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필자는 다음 타자는 한글이라고 본다. 이런 흐름을 타고 한글의 논리성과 과학성 그리고 동양철학적 우주적 상징성을 담아낸 '한글 만다라' 문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과 디자인이 문화 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상업적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훈민정음』 영인본(1946), 조선어학회.
- 리득춘(1994), “훈민정음 모음 순위와 하도기원설”, 『중국 조선족 문화 연구』, 목원대학교출판부, 108~120쪽>(* 연변대학 제1차 중국조선족문화 학술토론회논문집).
- 리득춘(1994), 『조선어 한자 어음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우실하(1997), “한국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초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우실하(1997),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 문화 바로 읽기』, 소나무.
- 우실하(1998),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소나무.
- 우실하(2000), “가곡에서 한글 모음의 발음 원리”, 『한국음악사학회』 제25집, 한국음악사학회, 5~33쪽.
- 우실하(2001), “가곡에서 한글 모음의 발음 원리’에 대한 김세중의 반론에 대하여”, 『한국음악사학회』 제27집, 한국음악사학회, 105~114쪽.
- 우실하(2021), 『우실하 초대전 ‘한글 우주를 품다! 한글 만다라와 신년화’』, 아트 노이드 178 전시 도록.
- 이정호(1990),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아세아문화사, (1990년 4판, 초판은 1975년).
-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583호(2021년 3월).

우실하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수
전자우편: w oosil ha@ kau ac kr

분과발표

주제 2

제2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발전

가능성과 과제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주권 확립과 한글의 역할

이재호(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1세기에 들어 인공지능(AI)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발전한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지식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창작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GPT-4, Claude, Gemini, LLaMA 등 글로벌 모델들은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HyperCLOVA X, KogPT, EXAONE와 같은 한국어 특화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임철홍, 2023).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언어 편중 문제라는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LLM 학습 데이터는 영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그 결과 비영어권 언어, 특히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번역이나 문맥 이해의 정확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어 텍스트를 처리할 때 의미의 뉘앙스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서민주 외, 2024).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변은 기술적으로 매끄러울지라도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맥락적 의미와 문화적 배경은 종종 간과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글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부각된다.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음운 단위가 규칙적이고 형태소 분석이 용이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기계학습에 유리한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종원 외, 2023). 또한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행정 문서, 학술 논문, 교육자료, 문화콘텐츠 등은 모두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곧 인공지능 시대에 활용이 가능한 방대한 언어 자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제대로 정제되지 못하거나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어는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주변 언어로 밀려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적 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

에서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OECD(2021)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데이터가 생성·저장·활용되는 전 과정에서 개인과 국가가 독립적으로 통제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Crawford(2021) 역시 인공지능 산업의 권력이 특정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데이터 주권이 무너지면 언어 주권과 문화 주권까지 침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한국어가 인공지능 시대의 주권 언어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글 데이터셋¹⁾ 구축과 이를 활용한 자율적 인공지능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어와 한글의 전략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LLM의 발전 추세와 한국어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데이터 주권의 맥락에서 한글 문서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인공지능 주권(AI sovereignty)의 필요성과 한국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메타(Meta)에서 제안된 Self-Play와 같은 신기술이 한글 발전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교육적·정책적·사회적 과제를 제언함으로써,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언어 자원임을 밝혔다.

2. 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 추세와 한글 교육

인공지능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LLM의 등장으로 언어 교육과 지식 생산 방식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생겼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번역기나 검색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 글쓰기·질의응답·창작 등 고차원적 활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교육 현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글 교육 또한 이러한 흐름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본 장에서는 LLM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한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1. 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 과정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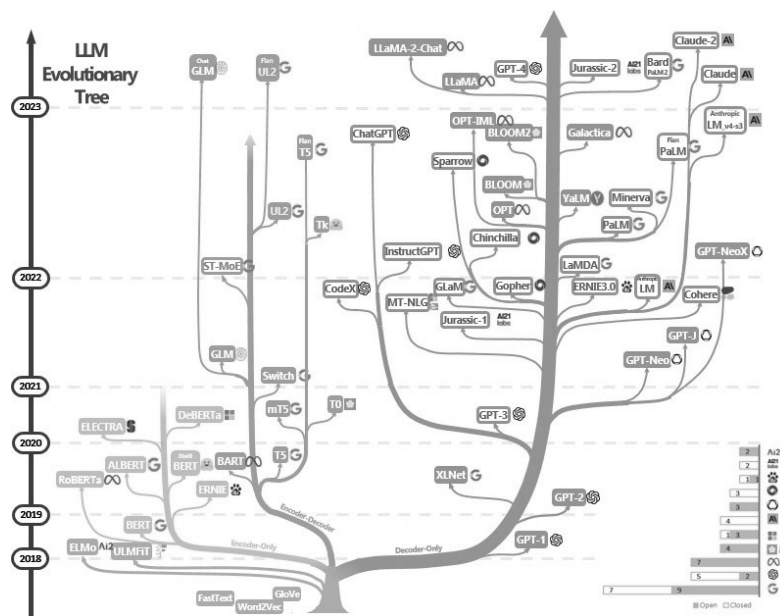
거대언어모델(LLM)은 인공지능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2017)의 제안 이후, 언어모델은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방대한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바탕으로 성능향상을 이루어왔다. 본 절에서는 LLM 발전 과정의 주요 단계와 현황을 정리함으로

1) 말뭉치를 수집한 뒤 전처리, 가공, 정제 등을 거쳐 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을 의미함. 즉,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학습용 자료임

써, 한국어 및 한글 교육과 연결되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2.1.1. 거대언어모델(LLM)의 태동과 글로벌 발전 추세

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은 2018년 구글의 BERT 공개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BERT는 사전학습(pre-training)과 미세조정(fine-tuning) 방식을 결합해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다(Devlin et al., 2019). 이후 OpenAI의 GPT-3(2020), GPT-4(2023), Anthropic의 Claude, Google의 Gemini, Meta의 LLaMA 등 초거대 모델이 연이어 등장하였다. 이들은 수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학습하여 글쓰기·코딩·대화·번역 등에서 사람 수준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Bender et al., 2021).



[그림 1] 현대 LLM 진화 트리

출처: Harnessing the Power of LLMs in Practice: A Survey on ChatGPT and Beyond (JINGFENG YANG et al., 2023)

글로벌 LLM은 대부분 영어 중심으로 학습되었다. 학습 데이터의 80% 이상이 영어라는 분석도 있으며, 이는 곧 영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하는 구조적 편향을 낳는다(Crawford, 2021). 이런 점에서 비영어권 언어, 특히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2.1.2.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현황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도 한국어 특화 LL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2021년 HyperCLOVA를, 2023년에는 HyperCLOVA X를 발표하여 한국어 데이터 6,500억 토큰 이상을 학습한 모델을 공개하였다(NAVER CLOVA, 2023). LG AI연구원의 EXAONE, 카카오의 KoGPT 역시 한국어 중심 학습을 강화한 대표적 시도이다.

임철홍(2023)의 연구에 따르면, LLM 성능은 데이터 규모와 품질, 그리고 모델 구조의 최적화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특히 한국어 모델은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제된 언어 자료와 학습 전략이 필수적이다. 서민주 외(2024)의 Ko-Sovereign Benchmark 역시 한국어 모델들이 법·문화·정치 영역에서 아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2. 거대언어모델(LLM)이 교육에 미친 영향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은 교육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교육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LLM 발전이 교육에 가져온 영향과, 그 속에서 한국어·한글 교육이 마주하는 도전 등을 살펴보았다.

2.2.1. 학습 환경의 변화

거대언어모델(LLM)은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사로 작동할 수 있다. 과제 작성, 글쓰기 첨삭, 시험 대비, 정보 검색에서 LLM은 빠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UNESCO(2021)는 인공지능이 교육에서 보조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을 가장 중요한 효과로 꼽았다. 그러나 동시에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약화, 창의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2.2.2. 교사의 역할 변화

거대언어모델(LLM)은 교사의 전통적 기능 일부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탐구하고 성찰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이끄는 조력자 역할이 강조된다(임철홍, 2023). 즉,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 공급자가 아니라, 학습 과정의 설계자이자, 윤리적인 가이드로써의 역할

이 강조된다.

2.3. 한글 교육의 의미와 과제

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 속에서 한글 교육은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언어 주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가 된다. 본 절에서는 한글 교육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하였다.

2.3.1. 한글 교육의 전략적 의미

한글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이다. 규칙적인 음운 구조와 교착어적 특성은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요소다(이종원 외, 2023). 따라서 한글 교육은 단순히 문자 해독 능력을 기르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어 데이터를 풍부하게 생산·축적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정확히, 풍부하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은 곧 인공지능 생태계 속에서 한국어 주권을 강화하는 일이 된다.

2.3.2. 교육 현장의 과제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글 교육이 기초 문해력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LLM 시대에 요구되는 한글 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독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언어 활용 능력, 비판적 문식성, 데이터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언어 사용 등이다(서민주 외, 2024). 교과서, 교육과정, 평가 체계가 이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어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는 언어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4. 요약 및 시사점

정리하자면, LLM의 발전은 글로벌 차원에서 언어 편중과 데이터 독점이라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글 교육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한글 교육이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주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따라서 LLM 발전 추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산·활용하는 한글 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3. 데이터 주권이 강조되는 시대, 한글 문서의 가치

데이터 주권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데이터가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데이터 주권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처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3.1. 데이터 주권의 개념과 국제적 맥락

데이터 주권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데이터가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1.1. 데이터 주권의 정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은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그 활용의 권리를 보유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OECD(2021)는 데이터 주권을 “개인 과 국가가 데이터의 생성·저장·처리·활용 전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 주권의 새로운 영역을 의미하며, 물리적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 간 권력의 관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Crawford(2021)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독점을 심각하게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원천이며,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이를 독점할 경우, 민주적 통제와 문화적 다양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제공 당사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현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 데이터 주권은 “누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통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OECD, 2021; Crawford, 2021).

3.1.2. 국제 사회의 대응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럽연합(EU): 2018년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범으로 평가된다. GDPR은 데이터 처리의 합법성을 엄격히 규정하고, 유럽 내에서 생성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이전되어도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 최근 연구들은 GDPR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절차적 장치를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집행의 불균형과 기업 부담과 같은 한계도 지적한다 (Li, Li, Li, Zhang, & Li, 2023). 또한, Miller, Schmitt, & Skiera(2024)의 연구는 GDPR 시행 이후 온라인 사용자 행동이 변화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규제가 실제 디지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중국: 2021년 제정된 데이터 안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제하고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Kollnig, Zhang, Zhao, & Shadbolt(2024)의 연구는 중국 iOS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PIPL 시행 전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앱에서 동의 절차 도입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데이터 법제가 자국 내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임과 동시에 실질적 집행 효과와 한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미국: 미국은 EU나 중국에 비해 강력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지만, 구글·오픈AI·메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실상 데이터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원칙을 제시하였다. Brookings Institution(2023)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 기관들에 인공지능 책임성과 규제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였으며, 1년 후 발표된 후속 분석에서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주도의 AI 생태계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Brookings Institution, 2024).

이상과 같이 세계 각국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종속적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3.2. 한글 문서의 전략적 의미

데이터 주권이 논의되는 맥락에서 한글 문서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 한글로 축적된 방대한 문서 자산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문서가 가지는 자산적 가치, 한국어 데이터 부족 문제, 그리고 한글의 구조적 장점과 데이터 확보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한글 문서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오랜 시간 축적된 기록물로서 국가적 자산이라는 점, 둘째, 글로벌 데이터 환경 속에서 부족한 한국어 데이터의 현실, 셋째, 한글 자체의 구조적 장점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한글 문서가 왜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1. 한국어 문서의 축적과 자산 가치

한국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한글을 바탕으로 방대한 문서 유산을 축적해 왔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같은 역사 기록물에서부터, 근대 이후의 행정 문서, 학술 논문, 교과서, 문학 작품, 신문, 방송 자막, 인터넷 게시물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문서는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특히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문서의 상당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자산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원이다. 예를 들어, 공공 행정 문서와 법률 텍스트는 한국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반영하며, 교과서와 학술 논문은 지식의 축적과 전승을 보여준다. 문화콘텐츠와 인터넷 자료 등은 동시대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서를 담고 있다. 즉, 한글 문서는 한국 사회 전체의 지적·문화적 자산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제하여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다면 국가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3.2.2. 한국어 데이터의 부족 문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 데이터는 영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임철홍(2023)은 LLM의 성능이 학습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어 LLM은 데이터 환경이 제한적일 경우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서민주 외(2024) 역시 Ko-Sovereign Benchmark를 통해 한국어 LLM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법률·정치·문화

영역에서 글로벌 모델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한국어 사용자들의 지식 생산과 소비 과정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주변화될 위험을 의미한다. 즉, 한국어로 작성된 지식과 문화가 인공지능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영어 중심의 지식 체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언어적 불평등과 문화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 데이터 확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과제이다.

3.2.3. 한글의 구조적 장점과 데이터의 필요성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로, 인공지능 학습에 유리한 구조적인 장점이 있다. 음운 단위가 규칙적이며, 형태소 분석이 쉽고,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종원 외(2023)의 연구는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전처리 과정에 반영했을 때 요약·생성 과제에서 모델 성능이 향상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어 자연어 생성 연구(송민채 외, 2022)에서도 문서 유형과 품사 비중이 모델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방대한 양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글 문서의 체계적 수집·표준화 작업은 한국어가 인공지능 시대에 경쟁력 있는 언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3.3. 데이터 주권 확보와 한글 문서의 역할

데이터 주권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과제이며, 한글 문서는 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본 절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언어 자산의 연계성, 공공 및 학술 데이터의 체계화 필요성, 그리고 문화 주권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3.1. 국가 경쟁력과 언어 자산

데이터는 흔히 '21세기의 석유'라 불린다²⁾. 데이터는 원유와 달리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제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발휘한다. 한국어 문서와 한글 데이터는 단순한 문화 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공공 행정

2) Clive Humby가 2006년에 연설 중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사람들에 의하여 많이 사용됨

기록은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고, 법률 문서는 사회 규범을 집약한다. 학술 논문은 지식 체계를 보여주며, 교과서는 미래세대 교육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은 한국적 맥락과 문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사회의 독자적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3.3.2. 공공 데이터와 학술 데이터의 체계화

한국은 현재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허브’에서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를 구축·공개하고 있다(NIA, 2021). 그러나 분야별 격차가 크고, 학술적·교육적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표준화되지 않았다. 예컨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학습 자료는 막대한 양이 존재하지만, 저작권 문제와 표준화 부재로 인해 공개 데이터셋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술 논문 역시 KCI, DBpia 등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정제·공개를 위한 통합적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3.3.3 문화 주권과 지식재산권 문제

데이터 주권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글 문서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데이터 제공자인 한국 사회는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Crawford(2021)는 이러한 데이터 독점 현상을 지적하며,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는 디지털 권력에서 주변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3.4. 요약 및 시사점

데이터 주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한글 문서는 단순한 언어 기록물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다. 한국어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고 정제·표준화 과정을 거쳐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때, 한국어는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중심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주변화될 위험에 놓인다.

결국 데이터 주권 확보는 한국어와 한글 문서의 체계적 수집·활용에 달려 있다. 이는 교육·연구·정책 전반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한글날을 맞아 우리가 다시금 다짐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 할 수 있다.

4. 인공지능 주권과 우리의 준비 상황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였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주권(AI 소버린, AI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자국의 언어·데이터·플랫폼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주권은 단순히 기술개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 언어 주권, 정책적 규제 체계, 교육적 인프라와 긴밀히 연결된다. 본 장에서는 인공지능 주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제 사회의 흐름을 살펴본 뒤, 한국의 준비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4.1. 인공지능 주권의 개념과 필요성

인공지능 주권은 국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인공지능 주권 개념의 정의와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4.1.1. 개념의 정의

인공지능 주권은 데이터 주권, 기술 주권, 언어 주권의 결합 개념으로 설명된다. 유럽연합은 2022년 ‘AI Act’를 통해 자국 내 인공지능 활용의 규범과 안전 기준을 수립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2). 이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이 단순히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주권은 곧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권리와 책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OECD, 2021).

4.1.2. 필요성

인공지능 주권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므로,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독립적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언어와 가치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Crawford, 2021).

셋째, 안보적 측면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해외 기업에 종속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4.2. 국제 사회의 인공지능 주권 논의

인공지능 주권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주요 국가와 지역의 인공지능 주권 전략을 개관하였다.

4.2.1.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AI Act'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며, 윤리·안전·투명성을 강조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2). 또한 EU는 'GAIA-X'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내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합·관리하는 독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주권을 제도화 및 인프라 차원에서 동시에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4.2.2. 중국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2017)'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시에 '데이터 안보법(2021)'을 제정하여 자국 내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방대한 중국어 데이터와 독립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바탕으로 사실상 자국 중심의 인공지능 주권을 빠르게 실현하고 있다.

4.2.3. 미국

미국은 여전히 구글, 오픈AI,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인공지능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사실상 인공지능 주권의 핵심 축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AI 권리장전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에 이어, 2023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AI Executive Order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하였다(White House, 2023). 이어 2024년에는 미국 의회와 연방기관이 협력하여 AI Safety Institute를 출범시키고, 인공지능 시스템 평가·검증·표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하였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24).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이 기업 주도형 AI 개발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2025년 미 법무부 연설에서도 “data is the new oil”이라는 표현이 재차 등장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주권이 경제 안보 전략과 직결되는 요소임이 강조되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25).

4.3. 한국의 준비 상황 평가

한국 역시 인공지능 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산업·학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준비 상황을 기술, 데이터, 교육·정책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4.3.1. 기술적 준비 상황

한국은 네이버의 HyperCLOVA X, LG의 EXAONE, 카카오의 KoGPT 등 자국어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하며 독자적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NAVER CLOVA, 2023). 다만 아직 글로벌 초거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 모델 규모와 생태계 확산력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자들은 한국형 LLM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데이터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임철홍, 2023).

4.3.2. 데이터 자원 확보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NIA의 ‘인공지능 허브’가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분야별 편중과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NIA, 2021). 서민주 외(2024)의 Ko-Sovereign Benchmark 결과는 한국어 LLM이 여전히 법률·문화 영역에서 부족함을 보였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데이터 자원의 한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학술·교육·공공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시급하다.

4.3.3. 교육과 정책적 대응

교육 차원에서, 한국은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문해력,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적 차원의 통합 교육 전략은 부족하다. 교사·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데이터 주권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인프라 확보에 나섰으나, 여전히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주권 전략’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4.4. 요약 및 시사점

인공지능 주권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언어·문화·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적 과제이다. 유럽,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지역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주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을 본격화해야 한다. 한국어 LLM 개발과 데이터셋 확충, 교육과 정책적 지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축이며,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은 인공지능 시대의 주권 국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5. 언어 Self-Play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혁신 중 하나는 언어 Self-Play(자기대화 기반 학습) 기법이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을 주고받으며 학습을 심화하는 방식이다. 2024년 Meta AI가 발표한 관련 연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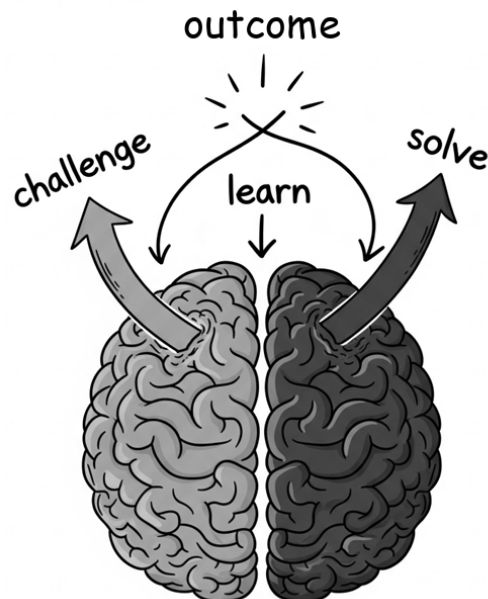
LLM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주권과 비영어권 언어 처리에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장에서는 언어 Self-Play의 개념과 기술적 의미를 살펴보고, 교육과 한글 발전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5.1. 언어 Self-Play의 개념

언어 Self-Play는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학습시키는 학습 방식이다. 기존 LLM은 학습을 위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했으나, Self-Play 모델은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내어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킨다. 본 절에서는 개념적 정의와 발전 배경을 설명하였다.

5.1.1. 정의와 원리

Self-Play는 강화학습의 자기대전(self-play) 방식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체스나 바둑에서 AI가 스스로와 대국하며 기량을 키운 것처럼, 언어 모델도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내면서 지식 체계를 확장한다(Jakub Grudzien Kuba et al., 2025). 즉, 가상의 교사-학습자 역할극을 반복하며, 기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문맥과 응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림 2] Self-play의 원리

출처: LanguageSelf-PlayForData-FreeTraining
(Kuba et al., 2025)

5.1.2. 기존 학습 방식과의 차별성

기존 LLM은 인간 언어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며,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편중 문제(예: 영어 과잉, 비영어권 부족)를 심화시켰다(Bender et al., 2021). Self-Play는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므로 데이터 한계 문제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 품질 관리와 편향 강화의 위험도 존재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획기적이다.

5.2. 기술적 의의와 가능성

Self-Play는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훈련 방식 전환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기술적 성과와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5.2.1. 데이터 한계 극복

비영어권 언어의 가장 큰 한계는 대규모 데이터 부족이다. Self-Play는 초기 학습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만 확보되면, 이후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어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도 적용 가능하다(서민주 외, 2024). 이는 언어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5.2.2. 추론 능력 강화

Meta AI의 실험 결과, Self-Play를 통해 학습한 모델은 논리적 추론과 문제해결 과제에서 기존 학습 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Meta AI, 2024). 이는 단순 암기식 학습이 아닌 사고 과정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도 크다.

5.2.3. 잠재적 한계

반면,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할 경우 오류와 편향이 강화될 위험이 있다. Crawford(2021)는 데이터의 자기증폭(self-reinforcement)이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Self-Play는 인간 검증과 보완 시스템과 함께 적용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3. 교육과 한글 발전에 주는 시사점

Self-Play는 교육적 활용과 한국어·한글 발전에 특별한 함의를 지닌다. 본 절에서는 그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5.3.1. 교육적 활용 가능성

Self-Play는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유사하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사고와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UNESCO(2021)는 AI가 교육의 보조 교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Self-Play 기반 AI는 학생과 끝없이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5.3.2. 한국어 데이터 확충 기회

Self-Play는 한국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초기 한국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모델이 자체적으로 질문·답변을 생성하면, 한국어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자동 확장할 수 있다(임철홍, 2023). 이는 한글 문서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하고, 한국어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중심 언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3.3. 윤리적·문화적 고려

다만, Self-Play가 생성한 한국어 데이터가 사회적 편향을 반영하거나 문화적 뉘앙스를 왜곡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Self-Play 활용 시 교사와 연구자가 품질을 검증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5.4. 요약 및 시사점

언어 Self-Play는 LLM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추론 능력을 강화하며,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품질 관리와 편향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국 사회는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글 교육 차원에서는 Self-Play를 활용해 한국어 데이터 확충과 학습

자 중심 교육 혁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6.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은 언어 편중과 데이터 주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AI 소버린과 Self-Play 같은 최신 기술은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본 장에서는 교육, 정책, 기술, 사회적 합의라는 네 가지 축에서 구체적인 준비 과제를 정리하였다.

6.1. 교육적 준비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은 단순히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와 언어 주권을 지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준비 방향을 제시한다.

6.1.1. 언어 문해력과 데이터 문해력 강화

기초 문해력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LLM 시대에는 이를 확장한 데이터 문해력(data literacy)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어떤 편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UNESCO, 2021). 이는 미래세대가 단순한 데이터 소비자가 아닌, 책임 있는 데이터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6.1.2. 교사의 역할 재정립

교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을 안내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임철홍, 2023).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탐구하고, 윤리적 쟁점을 토론하며, 창의적 활용 방안을 실험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6.2. 정책적 준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과 AI 소버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급하다. 본 절에서는 법제화, 공공 데이터 정책, 국제 협력 방안을 살펴보았다.

6.2.1. 법제화와 규범 정립

유럽연합의 'AI Act'처럼, 한국도 인공지능 기본법 및 데이터 주권 법제화가 필요하다 (European Commission, 2022).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개인과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어 데이터의 해외 유출과 무단 활용을 방지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 도입, 인공지능 사업자 책임 강화, 학습용 데이터 정책 수립, 산업 지원 및 규제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사회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러 발의 법안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의무, 사용자 고지 의무 등 세부적인 규제 장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초안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법령정보센터, 2025;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2025).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단일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 흐름에 맞추어 법률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어야만 데이터 주권과 국민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6.2.2. 공공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

NIA(2021)가 추진 중인 AI 허브와 같은 데이터 구축 사업은 지속적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학술, 법률, 행정 영역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한국어 LLM의 학습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6.2.3. 국제 협력과 연대

데이터 주권은 국가 단위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한국은 OECD,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권 언어권 국가들과 연대하여

비영어권 데이터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OECD, 2021).

6.3. 기술적 준비

기술적 측면에서도 AI 소버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모델 개발, 데이터 확충, 윤리적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6.3.1.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의 고도화

네이버 HyperCLOVA X, LG EXAONE, 카카오 KoGPT 등은 한국어 특화 모델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NAVER, 2023).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모델과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투자, 개방형 생태계 조성, 학계-산업 협력이 필수적이다.

6.3.2. Self-Play와 데이터 증강 활용

Meta AI의 Self-Play 기법은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Meta AI, 2024).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면, 한정된 초기 데이터에서 출발해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LLM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6.3.3. 윤리적 기술 개발

Crawford(2021)는 데이터와 AI 기술의 편향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형 LLM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윤리적 기술 기준을 병행해야 한다.

6.4. 사회적 준비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주권은 기술이나 정책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다.

6.4.1. 공공 담론 형성

AI 활용과 데이터 주권 문제는 학술 담론을 넘어, 사회 전체가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하며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

6.4.2. 시민 참여와 감시

데이터는 시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므로,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와 감시 체계를 보장하는 시민 참여형 구조가 필요하다.

6.5. 요약 및 시사점

인공지능 주권 확립은 교육, 정책, 기술, 사회적 합의라는 네 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교육은 데이터 문해력을 강화하고, 정책은 법제화와 데이터 공개를 추진하며, 기술은 한국형 LLM 고도화와 Self-Play 활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확보할 때, 한국은 인공지능 시대에 진정한 언어 주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7.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데이터 주권과 한글의 전략적 가치를 탐구하였다. 먼저, LLM의 발전 추세와 글로벌 편중 현황을 검토하면서, 영어 중심의 데이터 구조가 한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언어를 주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데이터 주권이 강조되는 국제적 맥락에서, 한글 문서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문화 주권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임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주권 개념을 통해 국가 차원의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인공지능 역량 확보가 필요함을 살펴보았으며, 메타(Meta)의 Self-Play와 같은 신기술이 한국어 데이터 확충과 교육 혁신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공지능 주권 확립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교육·정책·기술·사

회적 합의가 결합된 종합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은 학생과 시민에게 언어·데이터 문해력을 길러주고, 정책은 법제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며, 기술은 한국형 LLM 고도화와 Self-Play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공론장은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와 문화적 맥락을 함께 논의하며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한글은 15세기 창제 당시 백성을 위한 문자였듯이, 21세기에는 인공지능 시대 한국 사회의 주권을 지키는 언어 자산이 되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과 언어 주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며, 한글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정제·활용하는 노력은 곧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인공지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단순한 주변 언어로 머무르지 않고, 세계 속에서 독자적 주권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자·정책 입안자·연구자·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기술적 대응이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사회적 유산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안),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정보센터(20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대한민국 법제처.
서민주·정연주·이현정·임혜균·장정선(2024), 거대 언어 모델의 한국 이해도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 31(7), 695~710쪽.
이종원·박성준·김한중·정회경(2023), 언어학적 특징을 고려한 자연어 처리 기반 한국어 요약 시스템, 한국 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8(2), 389~398쪽.
임철홍(2023), LLM(Large Language Model) 속성과 성능 연관성 연구, 정보화연구 20(3), 257~266쪽.
Bender, E. M., Gebru, T., McMillan-Major, A., & Shmitchell, S.(2021), On the dangers of stochastic parrots: Can language models be too big? In Proceedings of the 2021 ACM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AccT) (610~623p). ACM.
Crawford, K.(2021), Atlas of AI: Power,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Yale University Press.
Devlin, J., Chang, M.-W., Lee, K., & Toutanova, K.(2019),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In Proceedings of the 2019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4171~4186p), ACL.

- European Commission(2022),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ct),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Kuba, J. G., Gu, M., Ma, Q., Tian, Y., & Mohan, V.(2025), Language self-play for data-free training, arXiv preprint.
- NAVER CLOVA(2023), HyperCLOVA X 발표자료, 네이버.
- NIA(2021), AI 허브 데이터 구축 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OECD(2022), Assessing national digital strategies and their governanc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324), OECD Publishing.
- UNESCO(2021), AI and education: Guidance for policy-makers, UNESCO Publishing.
-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2022),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Washington, DC: White House.
- Yang, J., Jin, H., Tang, R., Han, X., Feng, Q., Jiang, H., Yin, B., & Hu, X.(2023), Harnessing the power of LLMs in practice: A survey on ChatGPT and beyond, arXiv preprint.

이재호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jhlee1281@naver.com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현황과 과제

백재파(동아대학교 교수)

1. 서론

최근 외국어 교육 평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외국어 능력 평가에 자동채점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채점은 컴퓨터에 의해 기계적으로 채점되므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일관성을 담보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국외 외국어 교육학 분야에서는 일찍이 자동채점 연구와 자동채점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자동채점 시스템을 실제 외국어 능력 평가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 신뢰도도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¹⁾

반면 한국어 교육학 분야에서 자동채점 연구와 시스템 개발은 이제야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자동채점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동채점 연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예를 들어 TOEFL® Practice Online, Duolingo English Test, EnglishScore Speaking Test, Linguaskill General Speaking Test, PTE Academic, Versant English Test 등의 말하기 시험에서 자동채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2025년 8월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학술지 논문으로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학위 논문의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미리 발표되는 경향이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문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에서 '한국어 평가, 자동채점, 딥러닝 평가, 머신러닝 평가' 등을 검색어로 검색하여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 중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를 일차적으로 추린 후, 수집된 논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동채점 연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동채점 연구이기는 하지만 자동채점 설계 요소나 방향 등을 논의한 개념적 연구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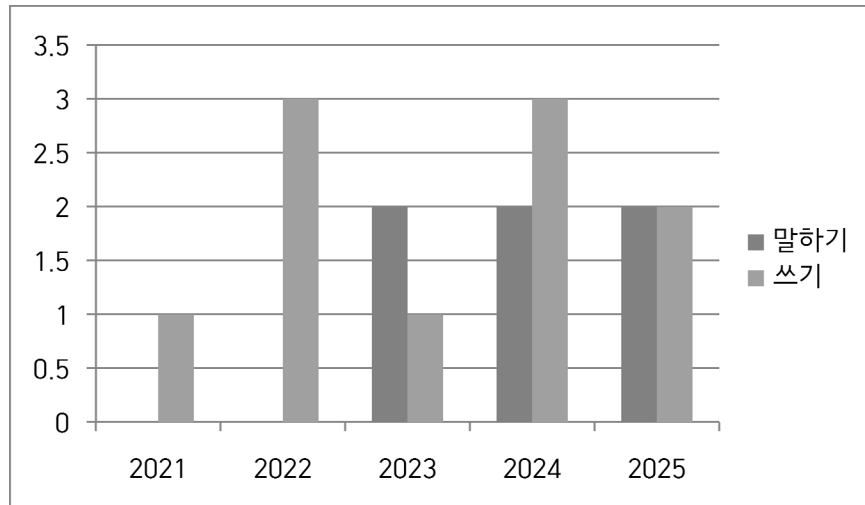
2.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능력 평가의 일반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연도별, 영역별(말하기/쓰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채점 연구를 자질 기반 연구와 딥러닝 기반 연구로 분류한 후 각각의 연구에서 활용한 채점 자질과 채점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채점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도별, 영역별 분석 결과

자동채점 연구를 연도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연구 현황

연도별 분석 결과 한국어 교육학 분야에서는 2021년 처음으로 자동채점 연구가 시작되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쓰기 자동채점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말하기 자동채점 연구도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 분석 결과

3.2.1. 쓰기 영역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 분석 결과

쓰기 영역에서 이루어진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를 종합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쓰기 영역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

연구	채점 영역	채점 자질	알고리즘(분석방법)	성능(설명력)
남미정·원미진(2022)	쓰기 전체 점수	문장 및 어휘 요인	선형회귀분석	R^2 29.1~49.2
백재파(2022)	쓰기 구어성	구어성 어휘, 문법	로지스틱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일치도 로지스틱:80% 선형회귀:92%
이용상 외(2022)	과제 수행 언어 사용 내용 영역	20개 채점 자질	랜덤포레스트	정확도 과제: .490 언어: .669 내용: .615
이진 외(2023)	내용 및 과제수행 글의 전개 구조	유사도, 길이, 접속 부사, 연결어미 등	선형회귀분석	R^2 .150, .459

공나형·유소영(2024)	글의 전개 구조 쓰기 전체 점수	담화 구조적 자질 필자 태도적 자질	선형회귀분석	R ² .120, .101
이진 외(2024a)	언어 다양성	35개 어휘 정교도 자질	로지스틱회귀분석	분류 정확도: 74%
이진 외(2024b)	언어 다양성	17개 어휘 다양도 지표	선형회귀분석	R ² .37.

남미정·원미진(2022)에서는 쓰기 전체 점수에 영향을 주는 채점 자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 채점 자질로 ‘문장 수, 어절 수, 문장 당 어절 수, 총 어휘 수’, 어휘의 질 채점 자질로 ‘L값, 밀도, 세련도, 오류 수’를 설정하고 이들 채점 자질이 쓰기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쓰기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어휘 수, 세련도, 오류 수였고, 총 어휘 수, L값, 세련도, 오류 수를 채점 자질로 활용하였을 때 모델의 설명력은 49.2%라고 보고하였다.

백재파(2022)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평가의 사회언어학적 기능 범주인 ‘구어성’ 자동채점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성 어휘와 구어성 문법을 채점 자질로 삼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과 선형회귀분석 모델을 구성하여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는 전문가 집단의 채점 결과와의 일치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의 채점 일치도가 80%, 선형회귀분석 모델의 채점 일치도는 92%로 나타나 선형회귀분석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용상 외(2022)에서는 (주)날말에서 제공하는 52개 언어 분석 항목 중 점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20개 항목을 채점 자질로²⁾ 활용하여 자동채점 모델을 구성하였다. 추출된 채점 자질과 전문가 채점 결과를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로 학습시킨 후 자동채점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는데 과제 수행 영역 정확도는 .490, 언어 사용 영역 정확도는 .669, 내용 영역 정확도는 .615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진 외(2023)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추출한 논설문 399편을 대상으로 자동채점을 위한 채점 자질을 추출하고 인간 평가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채점자질이 자동채점에 활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 및 과제 수행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 자질을 살펴보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맨하튼 유사도, 형태소 수, 어절 수,

2) 이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의 경우 글자 수, 한자어 빈도 비율, 한자어 종수, 고유어 빈도 비율, 고유어 종수가, 언어 사용의 경우 동사 빈도 수, 글자 수(공백 포함, 공백 제외), 한자어 빈도 비율, 문장당 평균 어절 수가, 내용의 경우 글자 수(공백 포함, 공백 제외), 한자어 빈도 비율, 어절 수, 고유어 빈도 비율이 점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채점자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장 수, 문장 평균 형태소 수, 문장 평균 어절 수를, 글의 전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채점 자질을 살펴보기 위해 '이, 그, 저'가 포함된 형태소 수, 접속부사 수, 보조사 수, 연결어미 수, 1인칭 대명사 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내용 및 과제 수행 점수는 코사인 유사도의 설명력이 20.4%로 가장 높았으며, 글의 전개 구조 점수와 채점 자질과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공나형·유소영(2024)에서는 담화 구조적 자질과 필자 태도적 자질이 채점 점수와 어떤 관계인지를 밝혀 논설문 장르 자동채점 자질로 활용 가능한 채점 자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 하였다. 담화 구조적 자질로는 접속 표지, 순서 표지, 지시 표지, 환언 표지를 설정하였고 필자 태도적 자질로는 완화 표지, 강화 표지, 출처 표지, 평가 표지, 독자 참여 표지, 필자 지칭 표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질이 채점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유의미한 담화 구조적 자질이 글의 전개 구조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2%, 필자 태도적 자질의 설명력은 10.1%라고 보고하였다.

이진 외(2024a)에서는 어휘 정교도 채점 자질이 언어 다양성 점수의 자동채점 자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술어휘, 추상명사, 전문어, 한자어, 한국어교육용 어휘, 사고 도구어, 상위어와 같은 35개 어휘 정교도 채점 자질을 설정하고 이들 채점 자질과 언어 다양성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이러한 채점자질의 예측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4.2%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진 외(2024b)에서는 17개 어휘 다양도 지표를 채점 자질로 선정하고, 이들 채점 자질과 언어 다양성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NDW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활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 모형의 설명력이 37.3%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3.2.2. 말하기 영역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 분석 결과

말하기 영역에서 이루어진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를 종합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말하기 영역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

연구	채점 영역	채점 자질	알고리즘(분석방법)	성능(설명력)
강혜림·백재파(2023)	말하기 격식성	격식 문법항목	G ²	목록 제시
강혜림 외(2023)	말하기 격식성	격식 문법 및 어휘	선형회귀분석	상관계수 .729
허원진·김재욱(2024)	말하기 숙달도	10개 어휘 자질	랜덤 포레스트	정확도 72.8%
강혜림·백재파(2025)	언어 다양성	17개 어휘 다양도 지표	선형회귀분석	정확도 67.4%
이향원 외(2025)	말하기 유창성	발화 길이, 발화 속도, 끊어 말하기	t검정	목록 제시

강혜림·백재파(2023)에서는 말하기 채점의 사회언어학적 범주인 격식성을 자동채점할 때 어떤 문법항목이 채점 자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문법 항목 462개를 대상으로 격식 준거 말뭉치와 비격식 준거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를 구하고, 빈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G²)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살펴 타당성 있는 채점 자질, 즉 격식 문법 항목을 제시하였다.

강혜림 외(2023)에서는 강혜림·백재파(2023)의 격식성 문법 항목에 더불어 격식성 어휘 채점 자질 목록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두 채점 자질을 활용하여 격식성 측정 모델을 만들고 전문가 집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격식성 측정 모델과 전문가 채점 결과와의 상관관계는 .729로 나타나 모델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허원진·김재욱(2024)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숙달도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자질을 조합하여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로 예측 모형을 구성하였다. 예측 모델에 사용된 채점 자질은 전체 어휘 구현 수, 전체 어휘 유형 수, 전체 문장의 수, 내용어의 구현 수, 내용어의 유형 수, n급 어휘 유형 수, n급 어휘 사용 빈도, 어휘 밀도1/2, 한 문장의 길이이다. 이를 활용한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72.8%라고 보고하였다.

강혜림·백재파(2025)에서는 17개 어휘 다양도 지표와 언어 다양성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RTTR을 채점 자질로 활용하여 언어 다양성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고 그 성능을 살펴본 결과 67.4%의 정확도를 보여 어휘 다양도가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채점 자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향원 외(2025)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을 자동채점할 수 있는 채점 자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학습자 발화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발화 지속 시간, 발화 시간 격차, 말 속도, 조음 속도, 휴지 빈도, 휴지 길이, 휴지 길이 격차를 채점 자질로 상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발화 지속 시간, 말 속도, 휴지 길이는 숙달도를 평가하는 유창성

채점 자질로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휴지 길이 격차는 보조적 자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3.3. 딥러닝 기반 자동채점 연구 분석 결과

딥러닝 기반 자동채점 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3〉 말하기 영역 자질 기반 자동채점 연구

연구	채점 영역	채점 자질	알고리즘(분석방법)	성능(설명력)
조희련 외(2021)	쓰기 전체 점수	-	KoBERT, KoGPT2	정확도:43.5-65.2%
정원우 외(2024)	말하기 내용 평가, 언어 사용	-	의사 레이블링	QWK: .7602 ACC: .7587
이진(2025a)	쓰기 내용 점수	정적 단어 임베딩 문맥기반 단어임베딩 문장 임베딩	선형회귀분석	R ² : .258~.42.4
이진(2025b)	쓰기 전체 점수	언어 자질 임베딩	랜덤 포레스트	MAE: 2.016)1.906

조희련 외(2021)에서는 사전학습된 두 종류의 언어 모델 KoBERT와 KoGPT2를 이용하여 한국어 쓰기 점수 구간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숙달도 6급 학습자의 304편 작문을 활용하여 점수 구간 분류를 진행하고 정확도를 분석하였는데 정확도는 4.5%-65.2%로 나타났으며 두 모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원우(2024)에서는 준지도학습의 의사 레이블링 기법을 활용한 자동채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58,000여 개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 레이블을 적용해 모델을 학습시켰다. 그 결과 의사 레이블을 활용한 모델은 제한된 레이블만 사용한 모델에 비해 QWK와 ACC 지표에서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진(2025a)에서는 임베딩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채점을 위한 채점 자질을 추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적 단어 임베딩(Word2Vec, FastText, Glove), 문맥 기반 단어 임베딩(KLUE-BERT, BERT-multi, KoBERT, RoBERTa, KoELECTRA), 문장 임베딩(Sentemce BERT)를 활용하여 작문을 임베딩한 후에 고득점 작문과의 유사도를 추출하고 해당 채점 자질이 내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명력은 각 25.8%, 32.8%, 42.4%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진(2025b)에서는 전통적 자동채점 채점 자질과 함께 임베딩 자질을 모두 채점 자질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 그 성능을 확인하였는데, 이처럼 딥러닝 방식과 전통적 자동채점 방식을 결합하였다는 의미로 이를 하이브리드 자동채점 방법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평균 절대 오차(MAE)가 2.016에서 최대 1.906으로 줄어들어 ahepff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4. 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능력 평가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채점 자질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쓰기 사회언어학적 영역 범주 중 구어적 표현을 썼는가를 자동채점하기 위해 구어성 어휘와 문법을 채점 자질로 사용한 연구(백재파, 2022), 격식적으로 말하는가를 자동채점하기 위해 격식성 어휘와 문법을 채점 자질로 활용한 연구(강혜림·백재파, 2023), 쓰기 및 말하기 평가에서 언어 다양성을 자동채점하기 위해 어휘 다양도 지표를 채점 자질로 설정한 연구(강혜림·백재파, 2025; 이진, 2024B)와 같은 연구는 자동채점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는 타당한 채점 자질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분석되는 단순한 언어 정보를 채점 자질로 전체 점수를 산출하고자 하여 채점 자질 및 평가의 타당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예컨대 허원진·김재욱(2024) 연구에서는 전체 어휘 구현 수, 전체 어휘 유형 수, 전체 문장의 수, 내용어의 구현 수, 내용어의 유형 수, n급 어휘 유형수, n급 어휘 사용 빈도, 어휘 밀도1, 어휘 밀도2, 한 문장의 길이를 채점 자질로 활용하여 말하기 숙달도를 자동채점하였다. 이러한 채점 자질을 활용한 모델의 분류 정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점 자질만으로 말하기 전체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말하기 내용, 유창성, 정확성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제한적 어휘 및 길이 자질로서 숙달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계적 영향력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한 채점 자질이 자동채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이용상 외(2022)에서는 기계적으로 분석되는 52개 채점 자질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점수를 예측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채점 자질로 글자 수, 한자어 빈도 비율, 한자어 종수, 고

유어 빈도 비율, 고유어 종수를 제시하였고, 언어 사용의 경우 동사 빈도 수, 글자 수, 한자어 빈도 비율, 문장당 평균 어절 수를, 내용의 경우 글자 수, 한자어 빈도 비율, 어절 수, 고유어 빈도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채점 자질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자동채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점 자질의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채점 영역을 세분화하고 해당 채점 영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채점 자질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자동채점 연구에서 상정한 채점 자질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언어적 정보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는 언어 정보만을 대상으로 채점 자질을 선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타당한 채점 자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컴퓨터로 자동 분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학 분야와 컴퓨터 공학 분야의 협동 연구 등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³⁾

둘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딥러닝 기반 접근법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동으로 고차원 잠재 의미(high-dimensional latent semantic) 자질을 추출함으로써 자동채점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이진, 2025b). 최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채점 연구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점 결과를 교육에 환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

셋째, 평가 목적에 따른 자동채점 모델을 세분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동채점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채점 자질 및 채점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평가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단 하나의 자동채점 모델이란 것은 어떤 평가에서든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성취도 평가의 경우 학습한 어휘 및 문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평가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학습한 어휘 및 문법 등을 채점 자질로 활용한 개별적 자동채점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또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평가의 경우 단순히 채점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채점 결과와 함께 자세한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평가

3) 언어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언어 정확성에 대한 채점 자질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맞춤법과 같은 오류는 컴퓨터로 자동 분석이 가능하지만 의미적, 문화적 오류는 컴퓨터로 분석이 힘들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확성 자동 채점 자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 역시 컴퓨터 공학 분야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한다면 정확성에 대한 자동채점도 가능하다고 본다.

목적에 따른 맞춤형 자동채점 연구가 수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동채점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볼 때 자동채점을 대규모 평가 및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그 성능 및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채점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TOPIK과 같은 고부담 시험에서는 더욱 자동채점 도입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 컨소시엄이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선정되어 자동 문항 생성과 자동채점을 전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한국어 교육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학계와 정부, 기관이 모여 숙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때 신중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채점 자질의 타당성 확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도입, 평가 목적에 따른 자동 채점 모델 개발, 자동채점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였다. 이는 향후 수행 될 자동채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혜림·백재파(2023), KFL 말하기 자동채점에서 격식성 측정을 위한 채점 자질 연구, 『한국어 교육』 34(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5쪽.
- 강혜림·백재파(2025), 한국어 말하기 채점 자질로서의 어휘 다양도 연구, 『이중언어학』 99, 이중언어학회, 35~61쪽.
- 강혜림·백재파·윤주희(2023), KFL 말하기 자동채점을 위한 말하기 격식성 측정 공식 구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107, 언어과학회, 333~348쪽.
- 공나형·유소영(2024),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 평가에서 전략적 언어 사용 평가를 위한 채점 자질에 대한 연구: 논설문 장르에서 드러난 담화 구조적 자질과 필자 태도적 자질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65(8), 한말연구학회, 1~31쪽.

- 남미정·원미진(2022), 한국어 쓰기 자동 채점을 위한 언어 자질 탐색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5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9~32쪽.
- 백재파(2023), KFL 작문 자동채점을 위한 텍스트 구어성 측정 공식 모델의 성능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104, 언어과학회, 133~153쪽.
- 이용상·신동광·김현정(2022), 한국어 쓰기 평가를 위한 자동채점의 가능성 탐색, 『이중언어학』 86, 이중언어학회, 171~191쪽.
- 이진(2025a), 임베딩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채점을 위한 자질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6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1~64쪽.
- 이진(2025b),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채점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 연구, 『국제어문』 104, 국제어문학회, 525~562쪽.
- 이진·정진경·김한샘(2023),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채점을 위한 자질 연구: 내용 및 구조 관련 채점 자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9, 국제어문학회, 433~471쪽.
- 이진·정진경·김한샘(2024a),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채점 자질 연구: 어휘 정교도를 중심으로, 『언어』 49, 한국언어학회, 329~354쪽.
- 이진·정진경·김한샘(2024b),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채점을 위한 어휘 다양도 지표의 자질 활용 가능성 탐색, 『문법 교육』 50, 한국문법교육학회, 193~229쪽.
- 이향원·오재혁·이정란·최은지·이선영·김형민(2025),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 평가를 위한 자동 채점 자질 설정 연구, 『새국어교육』 143, 한국국어교육학회, 443~475쪽.
- 정원우·강한이·정영민(2024), 한국어 말하기 평가 자동 채점에서 의사 레이블링 (Pseudo-Labeling)의 효과성 탐색,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4(12),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511~1513쪽.
- 조희련·이유미·임현열·차준우·이찬규(2021), 딥러닝 기반 언어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의 자동 점수 구간 분류: KoBERT와 KoGPT2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17~241쪽.
- 허원진·김재욱(2024),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사용 분석과 특성 선정을 통한 숙달도 예측 모델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903~914쪽.

백재파

동아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전자우편: jaepa@dau.ac.kr

인공지능의 한국어 일반상식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필요 정보 탐색

김양진(경희대학교 교수)

1. 서론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이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던 2022년 11월 말, 미국의 비영리 인공지능연구소 OpenAI에서 2020년에 출시한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GPT-3를 조금 다듬어서 이른바 ‘맛보기’ 버전으로 ChatGPT를 출시하였다. 그 결과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리며 그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를 구획하는 혁명적 사건이 되었다.¹⁾

앨런 튜링에 의해 처음 튜링머신(1936년)이 제안된 이래, AI에 대한 이론과 실체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2020년대까지 만들어진 대화형 인공지능(AI)까지는 사실 인간이 하는 말, 즉 자연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다. 인공지능이 튜링테스트를 넘어서 인간 같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기존의 대화형 AI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인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예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답형 외에는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2022년에 출시된 ChatGPT는 언어 부분에서 LLM에 기반하여 언어 자료를 대량으로 학습시키는 한편 최상의 AI를 접목하였고, 말의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이전 대화를 기억하며, 인간이 일상에서 타인과 대화하듯이 격의 없이 말해도 충분히 알아듣는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상황은 일변했다. 이른바 AI가 튜링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나아가 ChatGPT는 그냥 사람의 말을

1) 2018년 6월 GPT1이 처음 출시되었고 이어서 GPT2(2019.2.), GPT3(2020.6.), GPT3.5(2022.11.), GPT4(2023.3.), GPT4o(2024.5.), GPT5(2025.8.)이 순차적으로 출시되었다. 이 가운데 GPT3.5부터를 ChatGPT라고 부른다.

알아듣는 정도를 넘어 웬만한 전문적인 지식도 일반인 수준 이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짧은 시간만에 세상 지식의 근간을 흔드는 주체로 떠올랐다.

이는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발전으로, ChatGPT-4 버전부터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시험 테스트에서 상위 10% 수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인간의 능력을 점점 뛰어넘고 있다. 특히 변호사는 물론 일부 개발자, 회계사, 세무사, 번역가, 통역사, 기자, 교육가, 재무설계사 같은 상당수의 사무직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의 전문가의 업무를 완전히 AI에게 맡기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보조 수단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이미 상당히 많다. 초중고, 대학 분야의 교육에서부터 전문직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문제 해결 방안 탐색, 여행이나 의료/헬스케어, 각종 제조업 및 산업, 금융, 교통/물류/운송, 정부의 공공 정책에 이르기까지 AI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²⁾

특히 언어 영역에서의 발전은 눈부시다. 2022년 11월에 나온 GPT-3.5는 수능 국어 8등급, 2023년 4월에 나온 GPT-4는 수능 국어 4등급, 2024년 5월에 나온 GPT-4o도 역시 논리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수능 국어 4등급이지만 이미지와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원어민 수준으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2024년 9월에 나온 o1-preview는 수능 국어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숨 막히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화형 AI의 발달 이면에는 ‘언어적 상식’을 학습시키고자 해 온 오랜 연구 성과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본고는 인공지능이 한국어라는 언어를 학습하여 일반상식의 추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보다는 AI 환경에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상식’이란 무엇이며 이를 추론하는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2. 언어적 일반상식과 AI의 일반상식

‘상식’ 혹은 ‘일반상식’이란 무엇인가.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이고 ‘일반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일반 지식”이다. ‘일반’의 의미가 “특

2) 김들풀(2024)에서는 대화형 로봇(챗봇), 가상 비서 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자동화되고 최적화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 분야, 교육 분야, 의료 분야, 사업(비즈니스) 및 업무관리,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현실을 강조한 바 있다.

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 또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면 ‘상식’과 ‘일반상식’은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의 지식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이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 ‘상식’이라는 말이 처음 기록된 것은 조선총독부 편(1920)에서부터이다.

(1) ‘상식’

- ㄱ. 常識(상식) 『名』 凡常한 知識의 稱.(『조선어사전』, 1920, 조선총독부)
- ㄴ. 【상식】(常識) 名 ① 보통의 지식 ② 일반의 이해(理解) 또는 의견.(『조선어사전』, 1938, 문세영)
- ㄷ. 상식(常識) [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준 지식. 일반적 견문(見聞)과 함께, 이해력(理解力), 판단력(判斷力), 사려(思慮), 분별(分別) 따위를 포함함.(『큰사전』 1947~1957, 을유문화사)
- ㄹ. 상식(常識) 「명사」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원)

한국어 안에서 ‘상식’이라는 말은 <동아일보> 1920년 4월 9일자 광고기사 중 월간잡지 『曙光』 제3호에 대해 설명하는 아래 기사에서 처음 보인다.

(2) 월간잡지 『曙光』 제3호 “主筆 張春史의 改造 第一步와 黃海濱人의 死는 絶對無라는 論은 可히 一讀할 價値가 充分한 外에 靑年學生의 常識을 發展식힘에 適要한 記事가 만터라” <동아일보, 1920.4.9. 4면, 광고 기사>

초창기 ‘상식’의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글은 이만규의 다음 기사들이다.

(3) “常識은 英語로 "COMMON SENSE"며 我邦에 傳來로 通用하던 聞見이란 말과 갓흔 뜻을 가진 것이니 卽 普通 알 만한 것을 아는 것이 常識이라 玄妙한 것을 探索하는 것이 常識이 아니요 神奇한 것을 發明하는 것이 常識이 아니다. 一身의 則할 바와 當時의 無할 바이며 事의 實과 物의 正을 涉獵하여 榮榮하고 恢恢한 中流以上人格을 造成함에 缺치 못할 知識을 常識이라 하나니 常識은 無識에 對하여는 높흔 層이오 專門學識에 對하여는 다음길이다.<동아일보, 1920.5.15. 處世와常識 一, 李萬珪>

상식(常識)이 영어 common sense의 번역어로 ‘우리나라에 전래로 통용하던 식견’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통 알 만한 것을 아는 것’을 가리킨다는 이만규의 ‘상식(常識)’이라는 단어는 이후 나도향의 <어머니>(1925년), 심훈의 <영원의 미소>(1933~1934, 조선중앙일보 연재소설),

김유정의 <떡>(1935, 중앙) 등 소설 자료에 산발적으로 등장하다가 최남선이 1937년 1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60회에 걸쳐 『매일신보(每日新報)』에 <朝鮮常識>이라는 제목으로 강토편(疆土篇)·세시편(歲時篇)·풍속편(風俗篇) 등 16편 456항목을 연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물론 이에 앞서 ‘상식’에 해당하는 개념은 14세기에 작성되어 16세기, 17세기, 18세기 내내 사역원에서 한어 학습서로 주요하게 사용되어 오던 『노결대』, 『박통사』에 흔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박통사』에는 매회 이야기의 끝에 “常言道(상·넛·말·소·매·닐·오·디)”라고 하여 이 책이 작성된 원·고려 시대 당시의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4) 16세기 ‘常言(상·넛·말·숨)’의 사례

- ㄱ. 상넛 말소매 닐오디 당상 도죽 무수물 막고 누미 것 도죽 말라 호·누·니⁴⁾ (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늘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막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 <노결대 상·34a>
- ㄴ. 상·넛·말·소·매·닐·오·디 :말·소·물·아·니·니·루·면·아·디 :몬·호·고·남·글 :둡·디·아·니·면·소·뭇·디 :몬·호·누·니·라(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말을 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나무를 뚫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법이다.)<박통사 제5화>
- ㄷ. 상·넛·말·소·매·닐·오·디 노·픈·바·도·근·첫·파·놀·지·누·니·라⁵⁾ (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고수(高手)는 첫 판을 지는 법이다.)<박통사 제12화>
- ㄹ. 상·넛·말·소·매·닐·오·디 :사·루·미·간·난·호·면·다·하 :다·랍·고·빈·지·여·시·면 :자·즈·말·잘·호·누·니·라⁶⁾(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가난하면 다만 인색해질 뿐이지만 빚을 지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 <박통사 제16화>
- ㅁ. 상·넛·말·소·매·닐·오·디 호·하·웃·비·암·물·이·기 :다·내·면·삼·년·이·도·록·드·렛·줄·도·저·프·다·호·누·니·라⁷⁾(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한 해 뱀한테 물려서 앓고 나면 삼 년 동안은 새끼줄도 무섭다고 하는 법이다.”) <박통사 제17화>
- ㅂ. 상·넛·말·소·매·닐·오·디 가·히·는·프·레·를·쓰·리·던·은·혜·잇·고·무·룬·쥬·리·울·드리·워·잡·던·이·리·잇·누·니·라⁸⁾(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개는 풀에 물을 뿌려 은혜를 갚던 일이 있고, 말은 고삐를 늘어뜨려 은혜를 갚던 일이 있다.) <박통사 제20화>
- ㅅ. 상·넛·말·소·매·닐·오·디 호·룻·밤·부·체·일·빅·밤·은·혜·라·호·누·니·라⁹⁾(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

3) 최남선은 해방 이후 이 내용들을 한데 묶어 『조선상식문답』(1946, 최남선)으로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해방 이후 한국인의 일반상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 常言道, 話不說不知 木不鑽不透.
 5) 常言道 高碁輸頭盤.
 6) 常言道 人貧只爲慳 少債快說謊.
 7) 常言道 一年經蛇咬 三年怕井繩.
 8) 常言道 狗有濺草之恩 馬有垂繩之報

기를 하룻밤 부부 인연도 백날 밤의 애정이라고 한다.) <박통사 제22화>

- . 상·넛 :마·래·닐·오·디 歲·拜·를 :정·히·무·습·곳·두·위·하·면 寒·食·나·리·라·도·늦·디·아·니·하·니·라¹⁰⁾(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설에 절할 마음이 있었으면 한식 때라도 늦지 않는 법이다.)<박통사 제35화>
- ㄷ. 상·넛 :말·소·매·닐·오·디 오·날·휘·바·사·구·들·헤·오·르·고·도·니·일·시·노·려·미·도·미·어·려·우·니·라.¹¹⁾(세상 사람들 말에 이르기를 오늘 신 벗어놓고 구들에 올라가더라도 내일 신을지 밧기 어려운 법이다.)<박통사 제39화>

이상에서 한국어에서 전래되어 오던 ‘일반적인 지식’으로서의 ‘상언(常言)’은 근대를 거치면서 ‘상식(常識)’으로 정착하며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일반의 지식”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는 ‘일반이 알고 있는 일상의 지식’과 ‘일반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상의 지식’이라는 미묘한 차이가 포함되는데 후자가 좀 더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식’에는 단순히 ‘일반이 일상에서 알고 있는 생활 지식’을 넘어 ‘일반인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규범화된 지식’을 아울러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튜링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AI)에게 있어서의 상식 역시 이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의 상식 역시 ‘한국인 일반이 일상에서 알고 있는 생활 지식’과 ‘한국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일상의 지식’의 두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취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인 일반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하는 상식과 AI가 가져야 할 상식의 차이란 무엇일까.

(4)에서 살펴본 16세기의 상식에 해당하는 ‘상언(常言)’ 속 이야기들을 ChatGPT에 넣어 이 이야기들이 상식적인지를 물었을 때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5) 16세기 ‘상언(常言)’ 속 내용이 상식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따른 ChatGPT의 답변

- ㄱ. 늘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막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상식적 (사회적 경험에 부합)
- ㄴ. 말을 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나무를 뚫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법이다. -상식적 (비유적 의미)
- ㄷ. 고수(高手)는 첫 판을 지는 법이다.-상식적 (속담적 의미)
- ㄹ. 사람이 가난하면 다만 인색해질 뿐이지만 빛을 지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상식적
- ㅁ. 한 해 뱀한테 물려서 앓고 나면 삼 년 동안은 새끼줄도 무섭다.-상식적 (속담)
- ㅂ. 개는 풀에 물을 뿌려 은혜를 갚을 일이 있고, 말은 고삐를 늘어뜨려 은혜를 갚을 일이 있다. -상식적 (전래담 속 표현)

9) 常言道 一夜夫妻百夜恩.

10) 常言道 有心拜節 寒食不遲.

11) 常言道 今日脫靴上炕 明日難保得穿.

- 스. 세상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룻밤 부부 인연도 백날 밤의 애정[一夜夫妻百夜恩]이라'고 한다.-상식적 (옛 격언)
- 오. 설에 절할 마음이 있었으면 한식 때라도 늦지 않다.-상식적 (사회적 경험에 부합)
- 즈. 오늘 신 벗어놓고 구들에 올라가더라도 내일 신을지 믿기 어려운 법이다.-상식적

ChatGPT에서는 “ㄱ~스 모두 상식적인 문장입니다. 다만 '상식적'이라는 게 꼭 '현실적 사실 그대로'라는 뜻만이 아니라, 비유·속담·문화적 공유를 통해 이해 가능하고 사회적 경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맺어 이들이 여전히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상식적'인 문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식'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시대의 언어 차이를 넘어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위 문장의 내용을 ChatGPT가 어떤 근거로 '상식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ChatGPT는 위 문장들이 상식적이라고 평가된 이유를 대부분 (5ㄱ~스)까지의 진술들이 '사회적 경험에 부합하다'는 점과 비유적인 표현, 속담이나 문화적 공유를 통해 이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문장들이 (1) 한국어 문장으로 적법한 문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2) 화맥적 상황을 적용한 결과 (3) 사회적 경험성이나 비유 표현, 속담, 격언 등의 일치 여부를 통해 상식적인지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에서의 '상식'과 달리 ChatGPT에 주어져야 하는 '한국어의 상식'으로 주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문법적인 문장'과 '문법에 따른 합리적인 분석'이다. 현재의 인공지능이 대량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국어 문장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한국어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구혜승(2024)에서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형태분석 라이브러리 8종(한나눔, 꼬꼬마, 미캡, 코모란, OKT, 키위, 카이, 바른)의 형태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형태 분석기에서 품사 분석의 정확도 특히 용언 및 보조용언의 정확도가 낮는데 '하다, 있다'와 같이 동사와 보조용언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품사 분석의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용언의 활용형, 복합어, 준말/축약형 등 복수의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나 어절은 분석기별로 분석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분석 방식의 비밀관성이 높다. 각 형태분석기별로 상위 빈도의 오류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형태분석기별 상위 빈도 오류 양상(구혜승 2024:99)

종류	품사 분석 오류	형태 분석 오류	과분석 오류	미분석 오류
한나눔	62.4%(438)	0%(0)	15%(105)	22.6%(159)
꼬꼬마	76.2%(650)	2.2%(19)	20.2%(172)	1.4%(12)
미캡	25.6%(141)	0%(0)	33.8%(186)	40.7%(224)
코모란	63.6%(479)	0%(0)	32.5%(245)	3.9%(29)
Okt	64.8%(699)	0%(0)	0%(0)	35.2%(379)
키위	4%(38)	71.1%(678)	23.6%(225)	1.3%(12)
카이	22.5%(155)	21.8%(150)	55.7%(384)	0%(0)
바른	19.8%(67)	5%(17)	70.8%(240)	4.4%(15)

〈표 1〉을 통해 이들 분석기들이 종류마다 형태분석의 성능이 다른데 키위는 품사 분석 오류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Okt, 바른 등은 형태 분석 오류가 거의 없으며, Okt는 과분석 오류를 꼬꼬마와 코모란, 키위, 카이, 바른 등은 미분석 오류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Okt’ 등은 품사 분석 오류에서, ‘키위’는 형태 분석 오류에서, ‘카이, 바른’은 과분석 오류에서 높은 빈도의 오류율을 보이고 있고, ‘미캡, Okt’는 미분석 오류에서 유의미한 오류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형태분석기가 범용 형태분석기에 이를 정도로 한국어의 문장 특성을 소화해 내고 있지 못함을 말해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한국어 문장의 이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박선우(2024)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실제 사용역별로 어떠한 문제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한 것인데, Python기반의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3개(꼬꼬마, 코모란, 키위)와 R기반 라이브러리 2개(KoNLP, 바른)을 대상으로 ‘신문사설, 김동인의 소설 〈감자〉, 무신사 리뷰¹²⁾’ 등을 적용한 결과, 전체 텍스트에서 ‘새’(명사, 관형사)와 같이 품사와 기능이 다른 동음이의어는 잘못 분석될 가능성이 높는데, 전반적으로 ‘키위’와 ‘바른’ 분석기의 성능이 뛰어난 편이며 ‘코모란’ 분석기는 등재되지 않은 단어는 고유명사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비문학 텍스트(신문사설, 무신사 리뷰)의 경우 사전에 등재되지 않거나 전문용어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경우 명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토픽과 관련된 사용자 사전 세팅을 활용해야 하고 띄어쓰기나 ‘샷어요’와 같은 철자법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잘못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범주의 분석 성능은 뛰어난 편이어서, 용언의 활용 관련된 계량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카이’와 ‘바른’의 경우 특이한 부사,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의 분석에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특히 ‘키위’의 경우 잘못된 띄어쓰기나 ‘-당, -여’와 같은 비표준적 형태소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았다.

12) 무신사 리뷰: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에서 상품 구매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후기 시스템.

문학 텍스트의 경우 근대의 문학적 텍스트 분석에는 모든 분석기들의 성능이 좋지 못하고 특히 방언이 포함된 대화나 현대 문어에 잘 사용되지 않는 문학적 단어의 분석에는 오류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엄마, 깜짝 놀랐네. 건 또 뭐래?’와 같은 구어 문장을 넣어 형태소 분석을 요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6) ㄱ. 문장: “엄마, 깜짝 놀랐네.”

엄마→명사(호칭어), ,→구두점, 깜짝→부사. 놀랐→동사어간(기본형: 놀라다), -네→ 종결어미(감탄/놀람 표현), .→마침표

ㄴ. 문장: “건 또 뭐래.”

건→것+은(의존명사+보조사, 구어체 축약형), 또→부사(되풀이.추가 의미), 뭐→대명사(의문대명사. 기본형: 무엇), -라→어미(설명/전달 어기, 구어체). -에→종결어미(평서/추측 의문 혼합, “뭐래?” 느낌), .→마침표

(6ㄱ)에서는 ‘엄마’가 호칭어가 아닌 감탄사일 가능성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동사 어간에서 ‘-았-’을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고 (6ㄴ)에서는 ‘그것은’이 ‘건’으로 줄어들었음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고 ‘-라 해’가 줄어든 ‘-래’에 대한 분석에서 현저한 오류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의 ChatGPT가 한국어 문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현저히 상식적이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아직 상용할 만한 중세 국어 형태소 분석기 등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의 문헌을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전의 근대 이전 표기로 기록된 문헌이나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 한국어의 문헌까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ChatGPT를 포함하는 인공지능이 한국어의 화맥적 상황을 적용한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다만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가 격식적이던 언어에서 비격식적인 언어로, 성적 차별이 있던 언어에서 성적 차별이 중화되어 가고, 문어와 구어가 공존해 있던 문체에 SNS를 중심으로 형성된 준문어체의 문체로 변화해 가는 단계에 있는 현재의 한국어의 다양한 화맥적 상황은 아직 AI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세 시에 도착함. 책상 위에 밥 있음. 전화 바람.”과 같은 짧은 구어체의 문장 하나를 ChatGPT에 주고 문맥 의미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세 시에 도착함. 책상 위에 밥 있음. 전화 바람.”의 문맥적 의미(ChatGPT)

ㄱ. 문장별 의미

“세 시에 도착함.” → 화자가 오후 3시에 도착했음을 알림. (메모를 남긴 시점에서의 사실 보고)

“책상 위에 밥 있습.” → 밥을 차려 두었거나 준비해 두었음을 알려 줌. (먹으라는 의미 내포)
“전화 바람.” → 상대방에게 전화해 달라는 요청. (명령·청유적 표현)

- ㄴ. 전체 맥락: 이 세 문장은 짧고 단호한 보고·전달체로, 일상 대화체가 아니라 메모, 쪽지, 전보, 공지사항 같은 형식에서 흔히 쓰입니다.
-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 (“나는 세 시에 도착했다.”, “밥이 있다.”, “전화를 해 달라.”)
- 종결어미 대신 “-함, -있습, -바람” 같은 비표준·전보체 어미를 사용 → 군더더기 없이 사실 전달과 요구만 강조.
- 문맥적으로는 “3시에 도착했으니 밥은 책상 위에 있으니,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의미.

이 짧은 문장이 지니는 문맥 중 ChatGPT는 화자가 3시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말을 이미 도착한 것으로 해석했고 ‘밥상’이 아니라 ‘책상’ 위에 밥을 올려져 있는 맥락(‘네 방에 가면’ 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밥을 먹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화로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SNS상의 이른바 ‘-음/습체 어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를 ‘비표준·전보체 어미’라든지 ‘군더더기없이 사실 전달과 요구만 강조’와 같은 설명에 그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주말에도)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빠나 엄마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상황에 있을 아들/딸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맥락까지 읽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한국어의 상식이 언제나 이러한 문맥적 개별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인데 지금의 속도라면 인공지능(AI)이 어느 시점에는 이러한 맥락적 상황까지도 충분히 읽어내는 시점까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ETRI에서는 2023년~2027년까지 AI가 인간처럼 세상을 개념화하여 언어지능, 수리-논리지능, 시공간지능 등의 다중지능으로 추론하여 세상 및 인간과 소통하는 복합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¹³⁾

인공지능이 한국어로 구사되는 사회적 경험성이나 비유 표현, 속담, 격언 등의 일치 여부를 통해 한국어의 상식적 표현을 구사하는 일은 비교적 손쉬운 일로 보인다. 사회적 경험 영역에 대한 세부 항목을 꼼꼼히 정리하여 대규모 언어 자료를 배치한다든지, 한국어의 가능한 비유 표현, 속담, 격언을 모두 포함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상식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정보사회에서 AI기반의 4차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현재의 언어적 경험 속에는 각 시대별 가치관들이 중첩적, 누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에서 중의적, 선택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13)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복합인공지능 과제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자율성장형 복합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2024~2025년 현재는 패션 이미지 분석, 연속학습, 제로샷학습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지능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냉소/유머와 같은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표현들에서 해석의 실패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의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한국어의 인공지능(AI)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표현적 영역에서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도적, 의식적 혹은 비의도적,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중의적이고 중층적인 의미 체계를 과연 인공지능(AI)이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AI와 인간 간의 대화에서 칭찬을 비꼬는 말로 듣는다든지 평범한 인사말을 비꼬는 말로 알아듣는 상황이 생긴다면 의사 소통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인공지능의 한국어 상식 구현의 실제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AI)이 한국어의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되어 온 최근의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이들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이 논의는 필자가 알고 있는 일부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상식 영역의 확장 전반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님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⁴⁾

2020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서 일상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상식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서주원 외(2020)에서는 자연언어 처리(NLP)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챗봇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실시간 민원상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인건비 절감 등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금융, 기업마케팅, 대화형 커머스)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국내의 챗봇 서비스 수준이 정보 검색, 고객 상담, 간단한 업무 처리와 같은 단순한 지능형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감성 기능을 갖추어 감성대화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기반 챗봇 빌더인 Rasa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일상 대화를 주제로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하고 감정을 고려하여 응답하는 챗봇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하

1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언어적 설계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어학 및 한국어교육학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지혜영·유세인·김소은·남신혜(2024)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등 AI 연구 분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각 분야별 성과들도 속속 집대성되어 가는 중이다.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감정분석을 위해 일상 대화와 감성 대화를 하는 사용자의 문장 의도를 28개로 정의하고 각 의도별로 200개 이상의 문장들과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이름, 음식, 음악, 취미 등을 개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분류작업을 수행하여 마크다운 방식으로 학습 파일을 정의하여 새로운 대화 모델의 챗봇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서주원 외(2020)에서 설정한 감성 대화를 위한 사용자 문장 의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Intent 종류(서주원 외 2020:1508)

intent	내용	intent	내용
agree	동의	bye	작별 인사
apology	사과	change_topic	주제 전환
appreciate	감사	comfort	위로
ask_agree	동의 요구	complain	불평
ask_emotion	감정 질문	disagree	비동의
ask_fact	정보 요청	hello	만남 인사
ask_friendship	친밀감 표현	indifference	무관심 표현
ask_help_advice	조언 요구	repeat	재질문하기
ask_humor	유머 요청	stop_dialog	대화 중단
ask_personal	사적 질문	suggest	제안
ask_picture	이미지 요청	tell_emotion	감정 발화
ask_state	상태 질문	tell_persnal	사적 발화
blame	비난/지적	tell_state	상태 발화
boast	칭찬/자랑	tell_fact	사실 발화

이상의 선별된 28개의 의도 내에서 챗봇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개체를 추출해서 적절한 응답을 하며 감성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Rasa의 오픈소스 중 Rasa의 NLU(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솔루션과 Rasa core(사용자의 입력문장을 기반으로 챗봇이 수행을 응답을 결정하는 대화 관리 솔루션)을 바탕으로 Rasa가 제공하는 TED(Transformer Embedding Dialog) 방식에 따라 챗봇이 사용자의 입력문장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개체 추출로 사용자 감정을 파악하거나 문맥을 파악해서 사용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때까지는 이러한 연구는 영어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어의 복잡성 때문에 아직 형태소 분석, 구절 분석, 품사 부착, 논항 생략 및 복원, 중의 어절 처리 등의 언어학적인 파싱의 문제에서 한국어 감성 대화 챗봇 설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대량의 대화 데이터 수집과 한국어 자

언어처리가 향후 연구과제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은 그리 오래지 않아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 등 기존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기존의 말뭉치를 체계적으로 재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배포 시스템인 ‘모두의 말뭉치(kli.korean.go.kr/corpus)’를 통해 2020년 8월 25일부터 공개해 왔고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의 한국어 대화맥락추론과 일상대화요약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경진대회를 열고 2025년 6월 30일부터 같은 사이트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한국어말뭉치 10종을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 제공된 ‘모두의 말뭉치’는 한국어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바탕으로 일상 대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닥친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비대면 환경의 극대화는 2020년~2022년까지의 3년간의 언어 연구를 인공지능(AI) 및 가상현실(VR)의 세계에 대한 연구로 진공흡입기처럼 빨아들였다.

윤재민 외(2021)에서는 1인가구 비율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점을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대화 서비스가 가능한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여 감정케어, 심리상담, 불안해소, 공감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 일상대화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시변(時變)적인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현재 트렌드와 관련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현조·송영숙·김민수·윤기현·정유남(2022)에서는 ‘모두의 말뭉치’가 오픈되자마자 초기 AI 프로그램 회사라 할 수 있는 바이칼AI(<https://baikal.ai>)에서 개발한 개체명 인식기를 바탕으로 ‘모두의 말뭉치’ 속 개체명 인식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송영숙·정유남(2022)에서는 말뭉치에 앞서 윤리성 자동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국어사전 용례에 포함된 ‘욕설, 모욕, 폭력/범죄 조장, 외설, 성 혐오, 연령 혐오, 인종/지역 차별, 장애인 혐오, 종교 혐오, 정치성향 혐오, 직업 혐오’ 등의 비윤리적 표현을 자동 검색하여 그 문제점을 살피고 보완점을 검토하고 이를 국어사전에 보충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향후 국어사전의 용례들이 인공지능의 윤리적 대화의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암시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송영숙(2023)에서는 상식적 인과 추론(commonsense causal reasoning)과 자연어 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일상 대화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상식적 수준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AI가 문장 생성

의 측면에서 화행을 적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지를 다루고 인종, 직업, 정치 성향, 종교, 연령,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발화, 외설적 표현, 모욕감을 주는 혐오 표현, 폭력적 대화 등을 포함하는 비윤리적 대화를 구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정유남·송영숙·유현조(2023)에서는 유현조·송영숙·김민수·윤기현·정유남(2022)에서 인지된 문제 중 특히 한국어의 중첩 개체명 말뭉치를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커로프 교수’를 단순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커로프’, ‘교수’의 연속적 수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장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되는 ‘개체’라는 점을 말뭉치에 구현하여 이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 밖에도 ‘주 리비아 한국 대사관’ 등의 조직명이나 ‘서울 올림픽 경기장’ 같은 인공물,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명, ‘인천 아시안 게임’과 같은 사건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어 고유명의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정혜 외(2023)에서는 영화나 게임 속 캐릭터 챗봇을 학습시킴으로써 웹페이지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영화나 게임 속 캐릭터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서 React 웹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송영숙·조원익(2024)은 사람과 인공지능 모델(GPT4.0)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동 화행 주석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인데 “서술, 미래 의지, 제안, 감탄, 판정 의문, 설명 의문, 인사, 호명” 외에도 ‘냉소/유머’나 ‘수사 의문’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서술이나 의문의 형식이더라도 화자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문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때는 구분하여 주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사람은 서술(Statement) 화행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인공지능 모델은 ‘냉소/유머(Sarcasm/humor)’ 화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는데 이는 대개 인공지능 모델이 서술 화행을 냉소/유머 화행으로 잘못 주석한 경우이다.

송상현(2004)에서는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이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 능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제약보다 더 복잡한 언어 형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별·지역·연령 등과 같은 사용역 메타 정보 데이터가 한국어 특화 언어 모델(한국어 문장)의 개발 및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수빈·송상현(2024)는 한국어 언어모델에서 성 편향성 언어의 양상을 측정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 것인데 네이버 기사에 나타나는 표현에 대한 디코더 결과 GPT4o가 특히 성 편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박은아·송상현(2024)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LLM 안에서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을 잘 탐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GPT모델이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에 대한 탐지가 대체로 높지 않은 정확도를 지녔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GPT4o가 가장 성능이 좋은 모순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최신 언어 모델들이 맥락에 기반을 둔 비꼬, 새로 생겨나는 혐오적 은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밝힘으로써 언어 모델 발전에서 안정성 확보 방향의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임수중(2024)은 생성형 언어모델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연구 경향을 소개한 논문인데, OpenAI의 GPT1모델로부터 GPT2, GPT3, Codex, GPT3.5, GPT4의 발전 과정과 거대모델의 한계로 지적되는 hallucination이나 최신성 반영 문제, 검색증강생성(RAG)의 필요성¹⁵⁾, 죽은 인터넷(Dead Internet) 이론, 데이터 부족(Data Scarcity, 2026년~2032년 사이에 데이터 재고 소진 예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생성형 언어모델의 다양한 활용 영역으로 소개하는 한편 초거대 AI에서 소형언어모델(sLLM)로의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언어학적으로는 이른바 부분문법(Local Grammar)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인공지능(AI) 대화의 방향성은 화맥에 따른 상황 조정, 개체 명사류 중의성 극복, 욕설, 혐오 표현 등 비윤리적 표현의 교정 혹은 보완, 냉소/유머와 같은 고맥락적 중의성에 대한 이해 등이 주된 연구 주제로 부각되어 왔다. 한국어의 문법적 실체와 함께 이러한 실제 사용상의 일상적 한국어의 일반 지식들이 한국어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비윤리적 표현의 회피 등 의무적인 요구 사항도 포함되며 한국인의 언어 경험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표현들도 포함된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어의 상식을 담지해야 할지에 대해 위에서 논의한 많은 탐색의 성과들은 부분적인 답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초거대 모델의 인공지능(AI) 실현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실천적 과제들은 여전히 초거대 언어모델의 적용에 ‘인간적’인, 정확히는 ‘한국어적인’ 상식이 인간 작업자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는

15)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강력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가능한 답변이 없으면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래되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검색증강생성(RAG)은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가진 사실 관계 오류 가능성이나 맥락 이해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제안된 기술이다.

것이다. 이러한 보충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ChatGPT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다시 ChatGPT-6이 출시되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은 ChatGPT가 점점 우리의 능력을 넘어 훨씬 많은 일을 훨씬 빠른 속도로 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한국어의 상식을 지키며 혹은 한국어의 상식 범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어의 상식을 넘어서 저 안드로메다의 논리로 인간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한국어 LLM의 자동처리를 통한 인공지능(AI) 성능 향상의 논리는 어느 한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과정이 여타의 기관들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될 때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혼란들, 예를 들어 한국어 상식에 대한 모델별 재해석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성에 따른 혼란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해 본다.

참고문헌

- 김강희(2020), “한국어 지시화행의 체계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191, 국어국문학회, 5~40쪽.
- 김들풀(2024), “전자혁명, 인공지능 시대 한글문화와 의사소통의 변화”, 578돌 한글날기념 제16회집현전 학술대회 <우리말글 존중의 근본 사상과 우리말글의 발전방향> 제2부 “인공지능 시대 우리말글의 발전 방향” 발표문, 95~110쪽.
- 김미령(2005), “전달 목적 화행의 유형 설정에 대한 시도”, 우리말연구 17, 우리말학회, 97~12
- 김미령(2012), “우리말 인사화행의 연구”, 우리말연구 31, 우리말학회, 195~228쪽.
- 김유진·정가연·김한샘(2023), “암시적 비윤리 데이터를 활용한 언어 모델의 강건성 평가”, 인공지능인문학 연구 15, 103~125쪽.
- 김일환·이도길·강범모(2010), “공기 관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정명사의 사용 양상 분석”,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 민정혜·김상현·김지민(2023), “캐릭터를 현실로: AI 챗봇”,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31-2, 25~27쪽.
- 박선우(2024),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한국어 형태분석 라이브러리의 특성과 성능 비교”, 2024 여름 언어학 공동 학술대회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주최: 한국어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충남대 디지털 HUSS사업단, 충남대 언어학과), 17~26쪽.
- 박은아·송상현(2024), “거대 언어 모델을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을 잘 탐지할 수 있을까?”, 2024 여름 언어학 공동 학술대회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주최: 한국어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충남대 디지털 HUSS사업단, 충남대 언어학과), 59~69쪽.

- 박조은·송영숙(2023), 『모두의 한국어 데이터 분석』, 길벗 출판사.
- 서상규·구현정 공편(2005), 『한국어 구어 연구(2)-대학생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서주원·이창환(2020), “일상 대화를 주제로 하는 감성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 2020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507~1509쪽.
- 손지은·정유남(2023),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한국어 사건 개체명 연구”, 영주어문 53, 영주어문학회, 29~63쪽.
- 송상현(2024), “한국어 문장의 성별·지역·연령 자동 분류: 인공지능 언어모델 활용”, 627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문, 59~64쪽.
- 송영숙(2022), “융통성 없는 인공지능”,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칼럼, URL : <http://aihumanities.org/ko/archive/webzine/?vid=101>
- 송영숙(2023), 인공지능의 일상 대화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자연어 생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영숙·심지수·오재혁(2020), “답화표지 ‘아’, ‘어’, ‘음’의 성별과 연령별 사용 양상”, 말소리와 음성과학 12-4, 37~46쪽.
- 송영숙·정유남(2022), “국어사전 용례의 윤리성 자동 분류 문제와 제안”, 언어와 정보 26-2,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09~127쪽.
- 송영숙·정유남·유현조(2022), “한국어 중첩 개체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87, 한국어의미학회,
- 송영숙·조원익(2023), “사람과 AI 모델 간의 화행 주석 개선 방향 연구”, 어문연구 201, 한국어문연구학회, 71~92쪽.
- 신현규·유현조·송영숙(2023), “AI에 적합한 일반 상식 추론 대화의 자동 생성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연구”, 정보과학회논문지 50-5, 한국정보과학회, 407~419쪽.
- 신호철·이현희(2018), “한국어 인사와 인사말의 개념과 범위”, Journal of Korean Culture 42, JKC, 105~138쪽.
- 유현조·송영숙·김민수·윤기현·정유남(2021), “딤러닝 기반 한국어 개체명 인식의 평가와 오류 분석 연구”, 언어 46-3, 한국언어학회, 803~828쪽.
- 윤재민·지민성·신동춘·고연정(2021), “일상 대화 서비스 플랫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9-1, 243~244쪽.
- 이기성(2024), “인공지능 학습용 감정 데이터셋의 어휘 개체명 분석”,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7,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9~35쪽.
- 이수빈·송상현(2024), “한국어 언어모델의 성 편향성 측정과 완화”, 2024 여름 언어학 공동 학술대회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주최: 한국어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충남대 디지털 HUSS사업단, 충남대 언어학과), 48~58쪽.
- 임수중(2024), “생성형 언어모델 원리와 최신 연구동향”, 2024 여름 언어학 공동 학술대회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주최: 한국어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충남대 디지털 HUSS사업단, 충남대 언어학과), 273~288쪽.
- 장경희(1999), “진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 의미학 5, 한국어의미학회, 311~332쪽.
- 장경희(2005), “국어 지시 화행의 유형과 방법 및 지시 강도”, 텍스트언어학 19, 텍스트언어학회, 185~208쪽.

- 장경희(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텍스트언어학회, 401~427쪽.
- 張奭鎭(1987), 韓國語 話行動詞의 分析과 分類, 語學研究 23-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07~333쪽.
- 정유남·송영숙·유현조(2023), “한국어 중첩 개체명의 말뭉치 구축 연구”, 국어학 105, 국어학회, 309~344쪽.
- 정해권(2020), “한국어 자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어 45-2, 한국언어학회, 351~372쪽.
- 조원익·김남수(2019), “담화성분 기반의 한국어 화행 분류를 통한 텍스트 의도 파악의 모호성 해소: 전산 언어학적 접근”, 담화와 인지 26-3, 담화와 인지학회, 227~247쪽.
- 조은비·송상현(2024), “법률 추론을 위한 한국어 언어모델의 도메인 적응 훈련 평가”, 2024 여름 언어학 공동 학술대회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주최: 한국어학회, 한국언어정보학회, 충남대 디지털 HUSS사업단, 충남대 언어학과), 43~47쪽.
- 지혜영·유세인·김소은·남신혜(2024),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어학 및 한국어교육학 연구 동향-국의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제52, 한국문법교육학회, 177~200쪽.
- 최남선(1946/2022),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1946년), 朝鮮常識問答續編(1947) 개정 증보판); 을재 편집부 역
- 한정환(2017), “한국어 정보구조와 사용역”, 언어학 78, 대한언어학회, 63~97쪽.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kimrj@khu.ac.kr

외국어 방송언어 한국어 자동번역 어디까지 왔나?

정병창(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더 이상 미래 기술에 대한 담론이 아닌, 현대 사회의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속 개인 비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영상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과거 산업혁명과 비견될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며, 생산과 소비, 소통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보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이 기술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의성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생성형 AI의 핵심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언어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의 기반이 된다(A.Vaswani,2017). 단순히 문법적 정확성을 넘어 문장의 맥락과 숨겨진 뉘앙스, 논리적 흐름까지 파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정보 처리 도구를 넘어, 인간과 지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약적인 언어 능력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뛰어난 언어 능력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번역 분야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의 기계 번역은 단어와 구문을 기계적으로 치환하는 수준에 머물러, 부자연스럽고 오역이 잦다는 한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경망 기계번역과 생성형 AI의 결

합은 번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의 AI 번역 기술은 문장 전체의 의미와 맥락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뒤, 목표 언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적절한 표현으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이 특성을 반영해 각 산업 도입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AI 알고리즘이 제안되고 있다(이태준, 2023). 그 결과, 번역의 품질은 인간의 전문 번역가가 수행한 결과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번역의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유통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최첨단 번역 기술이 가장 까다로운 시험대 위에 오르는 영역이 바로 방송 분야이다. 방송 콘텐츠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실시간성이라는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나 스포츠 중계, 토론 프로그램 등은 최소의 지연으로 음성을 인식하고, 번역하여, 자막이나 음성으로 송출해야 하는 극한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상황, 예측 불가능한 배경 소음, 빠른 속도의 대화 등은 번역의 정확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기술적 난제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방송 분야는 자동화된 번역 시스템이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바로 이 실시간이라는 높은 장벽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다.

본고는 전 세계의 방송 콘텐츠가 언어의 장벽 없이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시대의 문턱에서, 외국어 방송언어의 한국어 자동번역 기술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그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핵심 기술의 원리를 살펴보고, 실제 방송 환경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성과와 명백한 한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문화적 뉘앙스와 비언어적 표현의 번역이라는 기술적 도전 과제를 심도 있게 고찰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이 AI 번역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생활 속의 인공지능 번역 기술

서론에서 언급된 인공지능 번역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실험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그 변화를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서비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작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동시에 공개하며, 이때 한국어 자막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 사양이 되었다. 넷플릭스의 경우,

다양한 번역지침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성승은,2022). 과거 해외 콘텐츠가 국내에 소개되기까지 번역과 검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혁신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AI 기반의 자동번역 시스템이 초벌 번역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전체 작업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의 화제작을 지체 없이 즐기는 새로운 콘텐츠 소비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AI 번역 기술의 대중화를 이끈 또 다른 주역은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이다. 유튜브는 전문적인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인들이 생산하는 방대한 양의 영상에 대해서도 자동 자막 생성 및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생소한 언어의 영상이라도 최소한의 의미를 파악하며 시청할 수 있다. 물론 번역의 품질이 전문 번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어색한 문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능 덕분에 사용자들은 과거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다양한 국가의 지식, 문화, 취미 영상을 탐색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AI 번역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단계를 넘어, 정보 접근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던 생방송 분야에서도 AI 번역 기술은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주요 외신 뉴스를 국내 방송에서 송출할 때, AI가 실시간으로 생성한 자막이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연사의 긴급 기자회견이나 국제 스포츠 경기의 현장 인터뷰 등, 긴박한 상황에서 AI는 사람 통역사가 준비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거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AI 기술 기업들이 초저지연(Ultra-low latency) 실시간 음성 번역 솔루션을 연이어 발표하며, 수십 초에 달했던 지연 시간을 수 초 단위까지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X.Ma,2023). 이는 AI가 통제된 환경의 VOD를 넘어,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생방송의 영역으로까지 기술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번역 기술의 적용 범위는 영상 콘텐츠를 넘어 보이지 않는 음성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지식과 이야기가 담긴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스포티파이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의 목소리와 억양을 학습한 AI를 통해, 원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다국어 더빙 버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취자는 이제 언어의 제약 없이 세계적인 석학의 강연이나 유명 인사의 인터뷰를 자신의 모국어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영상의 시각적 요소가 없는 순수한 음성 콘텐츠 분야에서도 AI 번역이 충분히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볼 때, AI 번역 기술의 가장 큰 성과는 그것이 더 이상 특별한 기술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이제 해외 콘텐츠를 소비할 때 번역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

지 않는 투명한 번역(Invisible Translation)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기술이 매끄럽게 작동할수록 사용자는 기술의 존재를 잊고 콘텐츠 자체에만 몰입하게 된다. 물론 아직은 어색한 번역투 표현이나 문화적 맥락을 놓친 오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불완전함이 사용자의 몰입을 깨뜨리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이 AI 번역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기술 측면에서의 연구 동향

현재 AI 번역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핵심 동력은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에 기반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과거의 번역 모델이 단어와 구문 단위로 순차적인 해석에 의존했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텐션(Attention) 메커니즘을 통해 문장 전체의 구조와 단어 간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한다. 이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독해 방식과 유사하다. 수천억 개 이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LLM은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특정 언어의 문법과 뉘앙스뿐만 아니라, 두 언어 사이의 미묘한 의미적 차이까지 학습한다. 현재 연구는 모델의 규모를 키워 성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domain)에 대한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방송, 의료, 법률 등 전문 영역의 번역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시간 방송 번역은 단순히 텍스트를 변환하는 것을 넘어, 여러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잡한 파이프라인(pipeline)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원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자동 음성 인식 기술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변 소음, 발음, 말의 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극복하고 최대한 정확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이 관건이다(오창한,2023). 다음으로, 추출된 텍스트는 앞서 설명한 LLM 기반의 신경망 기계번역 엔진을 통해 목표 언어의 텍스트로 번역된다. 마지막으로 번역된 텍스트는 인공적인 음성을 생성하는 문자 음성 변환(text-to-speech, TTS) 기술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김수경,2025). 이 모든 과정이 수 초 내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기술 단계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단계 간의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연구 과제이다.

AI 더빙이 인간의 연기를 대체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감성의 표현이다. 초기 TTS 기술은 명확한 발음 전달에만 집중하여 로봇처럼 단조로운 음성을 출력한다는 한계가 있었

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하여 적절한 높낮이, 억양, 강세 등 언어의 운율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본 음성에서 분노,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적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번역된 음성에 반영하는 감정 인식 TTS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원본 콘텐츠가 가진 감정적 경험까지 시청자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AI 더빙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번역된 음성이 영상 속 인물의 입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립싱크 기술이 차세대 방송 번역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번역된 음성의 음소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소리에 해당하는 입 모양을 예측하고 원본 영상 속 인물의 입술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미세하게 수정하거나 재구성한다. 최근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이나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활용하여, 단순히 입 모양을 맞추는 것을 넘어 주변 얼굴 근육의 움직임과 표정까지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바르코 싱크페이스(VARCO SyncFace)'나 구글의 'Veo3'와 같은 최신 기술들은 음성만으로 캐릭터의 표정과 감정까지 구현하며, 다국어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실시간 방송 번역에서 기술의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속도다. 원본 음성이 나온 후 번역된 결과가 시청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 즉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실시간 방송 경험의 질을 결정한다(김재홍, 2020).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번역 파이프라인의 전 과정을 최적화하고 있다. 긴 문장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의미 단위의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 지연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또한, 모델의 크기는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줄이는 경량화 기술과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이러한 저지연 기술의 발전은 AI 번역이 녹화된 VOD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4. 완벽한 번역을 향한 미래의 도전 과제

AI 번역 기술이 궁극적인 완성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은 바로 문화이다.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치환하는 기계적 작업이 아니라, 한 문화권의

사상과 정서, 역사를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 ‘식은 죽 먹기’라는 한국의 관용어구를 영어로 직역하면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는 것처럼, 각 언어에는 그 민족의 고유한 삶과 지혜가 담긴 속담, 관용어, 은유가 존재한다. 또한, 특정 사회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시사 유머나 인터넷 밈(meme) 등은 AI가 맥락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현재의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언어의 패턴은 학습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깊은 문화적 코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인간의 소통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단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 억양의 변화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한다. 똑같은 “잘했어”라는 문장도, 칭찬의 어조로 말할 때와 비꼬는 어조로 말할 때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반어법이나 풍자는 AI 번역이 가장 쉽게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원본 음성의 파형(waveform)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화자의 숨겨진 의도나 감정을 추론하는 고도의 다중모드(multi-modal) AI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의미심장한 침묵이나 강조를 위한 말더듬,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감탄사 등도 단순한 노이즈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여 번역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3장에서 언급된 감성 더빙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간 배우의 섬세한 연기를 대체하기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예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간의 감정은 단순히 희로애락으로 분류할 수 없는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씩씩한 미소,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 등 미묘하고 중층적인 감정을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표현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한 작품 안에서 특정 캐릭터의 고유한 목소리 톤과 말투, 성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영역을 넘어, 캐릭터를 해석하고 창조하는 연기의 영역에 해당하며, 향후 AI 개발자와 연기자, 성우 간의 깊이 있는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미래의 번역 기술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획일적인 결과물을 넘어,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번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번역의 문체(격식체/비격식체), 어투, 심지어는 특정 단어의 번역 방식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청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직역에 가까운 자막과 의역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거나, 아동 시청자를 위해 어려운 단어를 쉬운 말로 풀어주는 연령별 맞춤 번역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화된 번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번역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고도로 지능화된 AI 모델 아키텍

처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복잡도를 요구하는 도전 과제이다.

AI 번역 기술, 특히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AI 더빙 기술은 발전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를 동반한다. 특정 배우의 목소리를 AI로 학습시켜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인의 목소리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보이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목소리 데이터의 사용 권한과 초상권(음성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AI가 생성한 번역 자막이나 더빙 결과물을 하나의 독립된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AI 개발사, 플랫폼, 원작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 정립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술의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적, 법적 논의가 기술 개발 속도에 발맞추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AI 방송 번역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해외 콘텐츠를 조금 더 편하게 시청하는 수준을 넘어, 전 지구적 문화 교류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완벽에 가까운 실시간 번역이 보편화된 미래의 미디어 환경에서, 언어는 더 이상 문화와 사람을 가르는 장벽이 아니다. 런던의 뮤지컬 공연을 안방에서 실시간 한국어 더빙으로 관람하고, 브라질의 축제 현장을 현지인의 감탄사와 함께 생생하게 느끼며, 인도의 철학 강의를 깊이 있는 토론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처럼 전 세계의 다채로운 문화와 지식이 아무런 장벽 없이 실시간으로 융합되는 시대는 인류의 집단 지성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될 분야는 바로 우리의 K-콘텐츠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은 언어라는 마지막 허들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으로 세계 시장에 확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이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거의 완벽한 현지화 더빙을 제공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또한, 방탄소년단(BTS)의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들이 한국어로 팬들과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의 뉘앙스가 전 세계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 이는 콘텐츠의 단순한 보급을 넘어, 한국 고유의 정서와 문화적 깊이를 있는 그대로 세계인과 공유하며, K-콘텐츠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장밋빛 미래가 AI 기술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 AI는 문화적 맥락과 언어의 미묘한 결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는 주어 생략이 잦고, 높임법이 발달했으며, 중의적인 표현이 많은 고맥락(High-context) 언어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의 깊이는 현재 AI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따라서 최고의 번역 품질을 위해서는 AI가 빠르고 방대한 초벌 번역을 수행하고, 인간 전문가가 그 결과물을 섬세하게 다듬고 감수하는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어학자, 번역 전문가, 해당 문화권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AI 모델에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은 K-콘텐츠의 완벽한 현지화를 위한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다.

방송 언어의 자동 번역 기술은 인프라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기술이 가져올 문화 융성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AI의 한계를 보완할 전문가 양성, 그리고 저작권과 같은 윤리적,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시작해야 한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창의력을 확장시켜 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기술과 인문학적 통찰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경계가 사라진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공감을 나누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Vaswani 외(2017), "Attention is all you need", the 31st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017), Long Beach, CA, USA.
- 이태준 외(2023), "Transformer 기반 한국어 영어 번역 경량화 모델",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 27권 제 8호, 968~974쪽.
- 성승은 외(2022), "넷플릭스의 중역을 통한 다국어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제 23권 제1호, 45~80쪽.
- X.Ma 외(2023), "Seamless: Multilingual Expressive and Streaming Speech Translation", available in arXiv:2312.05187 [cs.CL]
- 오창한 외(2023), "대형 사전훈련 모델의 파인튜닝을 통한 강건한 한국어 음성인식 모델 구축",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 15권 제 3호, 75~82쪽.
- 김수경 외(2025), "대형 TTS모델의 Few-Shot Learning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별 맞춤형 화법 음성 데이터 증강 방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5 하계학술대회, 1472-1474쪽.
- 김재홍 외(2020), "Neural-Enhanced Live Streaming: Improving Live Video Ingest via Online

Learning”, SIGCOMM '20: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CM Special Interest Group on Data Communication on the applications, technologies, architectures, and protocols for computer communication, New York, NY, USA.

정병창

경상국립대학교 AI정보공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bcchung@gnu.ac.kr

집현전 학술대회 발자취

(1회~17회)

2009년

때: 2009년 10월 9일(목) ~ 10월 10일(금)

곳: 경복궁 수정전

563돌 한글날 기념 제1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 한글의 정보화, 산업화

첫째 날		
제1부	개회 및 기초강연	
개 회	육철희(외솔회 사무국장)	
개회 말씀	최기호(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축하 말씀	유인촌	
격려 말씀	김승곤, 박종국	
내빈소개		
기초강연	최기호(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제2부	주제: 한글을 지키고 빛낸 분들	사회: 윤명철(동국대학교 교수)
14:00 ~ 14:30	주시경과 국어운동	유영인
토론		성낙수
14:40 ~ 15:10	물불 이극로의 한글운동	박용규
토론		김정수
15:40 ~ 16:10	히못(白淵) 김두봉의 삶과 활동	이준식
토론		심순기
16:20 ~ 16:50	외솔 최현배의 항일독립운동	김동환
토론		김두루한
17:00 ~ 17:30	외솔 최현배의 사상과 나라사랑	박영신
토론		김슬옹

둘째 날		
제3부	주제: 한국어 정보화의 향후과제와 원격 교육의 문제	사회: 김광옥(수원대학교 교수)
09:30 ~ 09:50	중국 조선어 정보 기술 표준화의 국내, 국제협력의 절박한 문제	현용운
토론: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배순호
10:00 ~ 10:20	나라 밖의 한국말 교육 현황과 문제	이대로
토론: 한국어 원격 교육 시스템		김성환
10:30 ~ 10:50	공병우 박사의 업적과 당면	송현
토론: 안마태 소리글판의 한글과 중국어 입력방식		안마태
쉬는 시간		
11:20 ~ 11:40	5거화 봉수에서 전화기 쪽글판까지 : 정음_ 한글 정보학의 미래 전망	진용옥
토론: 인터넷 시대에 한국어와 관련된 지역 실별자 및 통합대응		김국
12:00 ~ 12:20	한국어 기반 응용언어학과 미주 지역의 한국어 교육	김남길
토론: 한국에서 이중언어 교육		이길원(동아대 교수)
제4부	주제: 한글의 산업화	정재환(한글문화연대 부회장)
14:00 ~ 14:20	한글디자인 -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백승정
토론		표언복
14:30 ~ 14:50	한글과 디자인	류명식
토론		석금호
15:20 ~ 15:40	한글 문화상품을 위한 제언(도자문화를 중심으로)	박선우
토론		김미형
15:50 ~ 16:10	한글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화	이건만
토론		박원길
16:20 ~ 16:40	문화산업으로서의 한글 디자인: 전망과 과제	신승일
토론		하재열

2010년

때: 2010년 10월 7일(목) ~ 10월 8일(금)

곳: 문화체육관광부 광화문 청사 5층 회의실

564돌 한글날 기념 제2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세상과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첫째 날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김두루한(외솔회 사무국장)
개회사	성낙수(외솔회장)	
축사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격려사	김종택(한글학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	
기조강연	세상과 잘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성낙수(외솔회장, 교원대 교수)
제2부	주제: 세계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사회: 조일규(평택대학교 교수)
10:20 ~ 10:50	몽골의 한국어 교육	최기호(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토론		에르덴수렝(몽골 인문대 교수)
10:50 ~ 11:20	아프리카·중동의 한국어 교육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		김정숙(고려대학교 교수)
11:20 ~ 11:50	중국의 한국어 교육	김성란(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
토론		이대로(전 월수외대 교수)
11:50 ~ 12:20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실태와 전망	이영숙(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김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제3부	주제: 다문화 사회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이정택(서울여대 교수)
14:30 ~ 15:0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김선정(계명대학교 교수)
토론		육효창(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15:00 ~ 15:3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본 어휘 교육	이창덕(경인교대 교수)
토론		임소영(연세대학교)

15:40 ~ 16:1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김흥범(한남대 교수)
토론		박형우(교원대 교수)
16:10 ~ 16:40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최용기(국립국어원 부장)
토론		조항록(상명대 교수)
17:00 ~ 18:00	종합 토론	
둘째 날		
제4부	주제: 종교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사회: 이원승(동서울대 교수)
10:00 ~ 10:30	2005년 성경 한글번역 그 이후	강대인(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
토론		조원형(인하대학교)
10:30 ~ 11:00	불교와 만난 한글	김슬옹(동국대학교)
토론		이전경(연세대학교)
11:10 ~ 11:40	유학과 만난 한글	최봉영(항공대 교수)
토론		김영환(부경대 교수)
11:40 ~ 12:10	개신교와 만난 한글	나채운(전 장신대 교수)
토론		임희국(장신대 교수)
제5부	주제: 거례 삶과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오동춘(한글학회 이사)
14:00 ~ 14:30	공공 언어의 오늘과 내일	남영신(국어단체연합회장)
토론		김형배(국립국어원)
14:30 ~ 15:00	학술 및 전문 용어의 오늘과 내일	김정수(한양대 교수)
토론		이재현(동덕여대 교수)
15:10 ~ 15:40	언론 출판 용어의 오늘과 내일	최인호(한겨레말글연구소장)
토론		이경우(한국어문기자협회장)
15:40 ~ 16:10	교육 과정 용어의 오늘과 내일	김두루한(경기상업고등학교 교사)
토론		염시열(전주 만수초 교사)
16:30 ~ 17:30	종합 토론	
17:30 ~ 19:00	함께 기리는 한글 사랑, 나라 사랑의 뒤풀이 - 외솔 최현배 선생을 추모하는 동영상 감상	

2011년

때: 2011년 10월 6일(목) 09:00 ~ 10월 7일(금) 17:40

곳: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565돌 한글날 기념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세계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일 정		등록 및 개회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개회식	09:20 ~ 09:3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30 ~ 09:4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 기념사회협회 회장)		
	10:30 ~ 10:20	기조 강연	문학과 한글이 만나다(정현기: 재단법인 외솔회 이사)		
분과발표		주제 1 : 고전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1부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0:20 ~ 10:50	향가와 한글 : 향찰의 한글 해독에 나타난 시적 정서		고운기(한양대)	박재민(관동대)
	10:50 ~ 11:20	한문학의 한글 해독이 지닌 가치와 문제		안대회 (성균관대)	김종서(한중연)
	11:20 ~ 11:50	고려가요와 한글 : 고려가요의 한글 정착과 서정성		조하연(아주대)	양태순(서원대)
	11:50 ~ 12:20	고전소설과 한글 : 한글 창제와 고전 소설		김흥규(고려대)	최재남 (이화여대)
12:20 ~ 13:30		점심			
2부 사회 : 김홍범 (한남대)	13:30 ~ 14:00	시조와 한글 : 모국어의 시어로서 정착(1)		설성경(연세대)	조세형(서울시립대)
	14:00 ~ 14:30	가사와 한글 : 모국어의 시어로서 정착(2)		박연호(충북대)	신경숙(한성대)
	14:30 ~ 15:00	궁중문학과 한글 : 한글 활용의 다양한 면모		이형배(고려대)	권순희(교원대)
	15:00 ~ 15:30	서간문과 한글 : 실용 문학과 한글의 만남		성낙수(교원대)	박무영(연세대)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분과발표		주제 2 : 현대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사회 : 박형우 (교원대)	10:20 ~ 10:50	한글 소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권영민(서울대)	오탁번(고려대 명예교수)
	10:50 ~ 11:20	시적 정서와 한글	유성호(한양대)	강연호(원광대)
	11:20 ~ 11:50	한글의 대중성과 수필 문학	윤제천(중앙대)	김성춘(시인)
	11:50 ~ 12:20	평론과 우리말	김영민(연세대)	이재복(한양대)
12:20 ~ 13:30		점심		
분과 발표		주제 3 : 세계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사회 : 박동근 (건국대)	13:30 ~ 14:00	영미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김준환(연세대)	허정애(경북대)
	14:00 ~ 14:30	프랑스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전혜정(알리앙스 프랑세즈)	이철(전남대)
	14:30 ~ 15:00	중국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정경원(외국어대)	김현철(연세대)
	15:00 ~ 15:30	일본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방교영(한국외대)	성혜경(서울여대)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종합 토론 사회 박동근(건국대)		
폐회식	16:40 ~ 16:5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2년

때: 2012년 10월 5일(금) 09:00 ~ 18:10

곳: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566돌 한글날 기념 제4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류시대, 한글문학의 세계화

일 정		등록 및 개회		사회: 김슬옹(세종대)	
개회식	09:00 ~ 09:3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30 ~ 09:4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홍종화(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09:40 ~ 10:20	기조 강연	한류시대의 한글문학(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		
		주제		발표	토론
오전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0:20 ~ 11:00	한류를 통한 한글문학의 세계화 방안		박태상(통신대)	오윤선 (한국교원대)
	11:00 ~ 11:40	세종학당을 통한 한글문학 보급		김재욱(한국외대)	박성태(성균관대)
	11:40 ~ 12:20	향찰의 한글 해독에 나타난 시적 정서		고운기(한양대)	박재민(관동대)
	12:20 ~ 13:00	한국 한문학의 한글 번역과 문학성		안대회(성균관대)	이강엽(대구교대)
13:00 ~ 14:30		점심			
오후 사회 : 김홍범 (한남대)	14:30 ~ 15:10	한국 시문학의 세계화		유성호(한양대)	오문석(조선대)
	15:10 ~ 15:50	한국 소설문학의 세계화		정현기(연세대)	김의규(작가)
	15:50 ~ 16:30	외국문학의 한글 번역과 세계화		다와따신이치로 (히로시마대학)	김현철(연세대)
	16:30 ~ 17:10	한글문학과 문화 콘텐츠		최혜실(경희대)	최민성(한신대)
17:10 ~ 17:20		휴식			
17:20 ~ 18:00		종합토론 사회 유성호(한양대)			
폐회식	18:00 ~ 18:1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8:10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3년

때: 2013년 10월 11일(금) 09:00 ~ 17:40

곳: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567돌 한글날 기념 제5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과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아서

일 정		등록 및 개회			
개회식	09:00 ~ 09:1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창덕	09:10 ~ 09:3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1부 발표		주제 1 : 옛날 자료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발표	토론
1부 사회 : 김홍범 (한남대)	09:30 ~ 10:10	<삼국유사>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 '향가를 중심으로-		최정선(동덕여대)	길태숙(상명대)
	10:10 ~ 10:50	<약장가사> 등에 나타난 고려 시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 '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최기호(몽골, 울란바타르대학)	고창수(한성대)
	10:50 ~ 11:30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국민 관심도		이원승 (동서울대학교)	이재성 (서울여대)
	11:30 ~ 12:10	판소리에 쓰인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손태도(한예중)	김현양(명지대)
12:10 ~ 14:00		점심			
2부 발표		주제 2 : 우리 겨레의 삶에 나타난 우리말과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발표	토론
2부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4:00 ~ 14:40	일상 생활에서 명사로 쓰이는 상징어의 활용 양상		김홍범, 박동근 (한남대, 건국대)	조민정(연세대)
	14:40 ~ 15:20	땅이름에 쓰인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박병철(서원대)	성희제(한밭대)
	15:20 ~ 16:00	'가사, 시조' 등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권순희 (한국교원대)	박애경(연세대)
	16:00 ~ 16:40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난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김슬옹(동국대)	박연호(충북대)
16:40 ~ 16:50		휴식			
16:50 ~ 17:30		종합토론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폐회식	17:30 ~ 17:4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4년

때: 2014년 10월 7일(화) 09:00 ~ 17:40

곳: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568돌 한글날 기념 제6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일 정		등록 및 개회	
개회식 사회: 이창덕 (경인교대)	09:00 ~ 09:1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10 ~ 09:3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1부 발표		주제 1 :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 과학, 예술, 경제면에서 보는 한글	발표 토론
사회 : 김홍범 (한남대)	09:30 ~ 10:10	한글과 시각기호	안호은(연세대) 김나무(한경대)
	10:10 ~ 10:50	ICT 중심사회와 한글	이재호(경인교대) 이봉규(연세대)
	10:50 ~ 11:30	한글, 사체로의 조형성 탐색과 확산적 활용방안	박병천 (전 경인교대) 최영희 (성균관대)
	11:30 ~ 12:10	한글의 시각적 풍경	최범 (디자이너 평론가) 김슬옹 (Washington Global Uni.)
12:10 ~ 14:00		점심	
2부 발표		주제 2 :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 한글의 미래와 세계화의 가능성	발표 토론
사회 : 이정택 (서울여대)	14:00 ~ 14:40	한글과 애니메이션: 한글에 생명을 불어넣다	노승관(한양대) 김정우(한성대)
	14:40 ~ 15:20	한글의 기계화와 세계 문자화	신부용 (KAIST IT융합연구소) 이재성 (서울여대)
	15:20 ~ 16:00	한글의 아름다움-한글구체시를 중심으로	고원(서울대) 김경선(서울대)
	16:00 ~ 16:40	글자,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안병학(울산대) 김두섭(홍익대)
16:40 ~ 16:50		휴식	
16:50 ~ 17:30		종합토론 사회 박동근(건국대)	
폐회식	17:30 ~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7:40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2015년

때: 2015년 10월 8일(목) 09:00 ~ 17:40

곳: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69돌 한글날 기념 제7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우리 생활 속의 한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09:00 ~ 09:1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10 ~ 09:30	축사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김석득(전 연세대 부총장)	
제1부	주제1: 자연·겨레의 삶과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09:30 ~ 10:10	식물의 이름과 한글	발표: 임소영(연세대)	질의·응답
10:10 ~ 10:50	동물의 이름과 한글	발표: 김정남(경희대)	질의·응답
10:50 ~ 11:30	간판 상호 언어의 실태에 대한 고찰	발표: 김진희(한남대)	질의·응답
11:30 ~ 12:10	상품 이름과 한글	발표: 윤천탁(한국교원대)	질의·응답
12:1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배움 놀이 도구와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3:30 ~ 14:10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한글, 한국어	발표: 전나영(연세대)	질의·응답
14:10 ~ 14:50	유아 단계의 매체활용 한글교육	발표: 이경우(이화여대)	질의·응답
14:50 ~ 15:30	유아 한글 교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 박심덕(한솔교육)	질의·응답
15:30 ~ 16:10	생활 속 실물을 통한 한국어 수업 사례	발표: 오경숙(서강대)	질의·응답
16:10 ~ 16:30	휴식		
16:30 ~ 17:0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00 ~ 17:1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16년

때: 2016년 10월 6일(목) 10:30 ~ 17:40

곳: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70돌 한글날 기념 제8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국 고전의 현대 언어학적 해석의 의의와 문제점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30 ~ 10:40	개회사	성낙수(외슬회 회장)
10:40 ~ 10:50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제1부	주제1: 한글고전의 역주와 우리말의 구조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50 ~ 11:40	한글고전의 역주에서 나타나는 음운·어휘론적 문제점	발표: 한재영(한신대 교수) 질의·응답
11:40 ~ 12:30	한글고전의 역주에서 나타나는 형태·통사론적 문제점	발표: 홍현보(세종대왕기념사업회) 질의·응답
12:3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한국 한문 고전의 국역과 학문적 통섭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의학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엄동명(원광대 교수) 질의·응답
14:40 ~ 15:20	과학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남문현(건국대 명예교수) 질의·응답
15:20 ~ 16:00	종교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김무봉(동국대 교수) 질의·응답
16:00 ~ 16:10	휴식	
16:10 ~ 16:50	역사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백승철(연세대 국학연구원) 질의·응답
16:50 ~ 17:30	학술 전문 용어와 한글	발표: 강현화(연세대 교수) 질의·응답
17:30 ~ 17:4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슬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17년

때: 2017년 10월 12일(목) 10:30 ~ 17:40

곳: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71돌 한글날 기념 제9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과 한국인의 삶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10	개회사	성낙수 회장
10:10 ~ 10:20	축사	
제1부	주제1: 언어규범과 전통성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30 ~ 11:10	우리말본과 언어 이론	발표: 서상규(연세대)
11:10 ~ 11:50	우리말본과 국어정보학	발표: 남길임(경북대)
11:50 ~ 12:30	우리말본과 학교문법	발표: 이관규(고려대)
12:30 ~ 13:10	우리말본과 한글맞춤법	발표: 김정태(충남대)
13:1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인공지능 시대와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인공지능과 자연언어 처리	발표: 이기황(다음소프트 기술이사)
14:40 ~ 15:20	sns의 활용과 보급	발표: 전후민(구글코리아)
15:20 ~ 16:00	빅데이터의 활용	발표: 백경혜(다음소프트)
16:00 ~ 16:40	트렌드(관련어 검색)의 허와 실	발표: 이석우(네이버)
16:40 ~ 17:2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20 ~ 17:3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18년

때: 2018년 10월 11일(목) 10:00 ~ 17:30

곳: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572돌 한글날 기념 제10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의 탄생과 우리 겨레의 삶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0:00 ~ 10:1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10 ~ 10:20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10:20 ~ 10:40	기조강연	최기호(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제1부	주제1: 한글 창제와 우리 겨레의 삶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0:40 ~ 11:20	한국지성사로 본 '문자와 문학'의 정체성(1)	설성경(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1:20 ~ 12:00	고려가요와 한글	고운기(한양대학교)
12:00 ~ 12:40	훈민정음의 한글문자 생성 구조와 서체적 응용	박병천(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12:4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한글 창제에 도움을 준 이들의 이모저모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4:00 ~ 14:40	성삼문의 <훈민정음>해례본 저술과 보급 공로	김슬옹(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문위원)
14:40 ~ 15:20	집현전 학자 최항의 활동과 업적	문동석(서울여자대학교)
15:20 ~ 16:00	정인지의 생애와 훈민정음	장윤희(인하대학교)
16:00 ~ 16:40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준 왕실의 인물들	성낙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6:40 ~ 17:20	종합토론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7:20 ~ 17:3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2019년

때: 2019년 10월 10일(목) 10:00 ~ 17:40

곳: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573돌 한글날 기념 제11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지난 백 년의 우리 생활 · 문학과 한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1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10 ~ 10:20	축사	강현화(세종학당재단 이사장)
10:20 ~ 10:40	기조강연	박영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제1부	주제1: 생활 속의 한글	사회: 심혜령(배재대)
10:40 ~ 11:20	예술로 보는 한글	한재준(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1:20 ~ 12:00	국어사전(말모이)의 탄생과 발전	김한샘(연세대학교 교수)
12:00 ~ 12:40	어문 규범의 변화	조남호(명지대학교 교수)
12:4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문학 속의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한용운의 민족정신과 한글 사랑	김광식(동국대학교 교수)
14:40 ~ 15:20	민족 저항시인으로서의 윤동주	유성호(한양대학교 교수)
15:20 ~ 16:00	방정환의 민족주의와 우리말글 사랑 정신	엄희경(한국방정환재단 연구부장)
16:00 ~ 16:40	해방 이후 민주주의자 최현배의 활동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6:40 ~ 17:4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40 ~ 17:5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2020년

때: 2020년 10월 6일(화) 09:30 ~ 18:00

곳: 한글회관 403호

* 비대면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

등록 · 개회식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09:30 ~ 09:4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40 ~ 10:00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강현화(세종학당 이사장)
제1부	주제1: 전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순화의 방안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10:00 ~ 10:30	이용·미용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김진희(경남대학교 교수)
10:30 ~ 11:00	건축 분야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순화 실천 방안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1:00 ~ 11:30	출판·인쇄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이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1:30 ~ 12:00	의복·양재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12:0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방송에서의 말·글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사회: 박형우(한국교원대학교)
13:30 ~ 14:00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4:00 ~ 14:30	방송의 예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이종구(방송인)
14:30 ~ 15:00	방송극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15:00 ~ 15:20	휴식	
제3부	주제3: 남북한 국어학 용어의 통일 방안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5:20 ~ 15:50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15:50 ~ 16:20	남북한의 '음운론·의미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6:20 ~ 16:50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 -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6:50 ~ 17:30	종합토론: 취소(비대면 강연 준비시간으로 대체)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7:30 ~ 17:40	폐회사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2021년

때: 2021년 10월 7일(목) 09:30 ~ 16:00

곳: 세종대왕기념관 2층 강당

* 비대면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575돌 한글날 기념 제13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공공언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등록 ·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09:30 ~ 09:35	개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09:35 ~ 09:40	방송 준비, 방역	
09:40 ~ 09:50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09:55 ~ 10:00	방송 준비, 방역	
제1부	주제1: 공공언어의 이론적 논의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30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공공언어 정책의 발전 방향	조태린(연세대학교 교수)
10:30 ~ 10:35	방송 준비, 방역	
10:35 ~ 11:05	공공언어의 문제점과 현실적 개선 방안	민현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1:05 ~ 11:10	방송 준비, 방역	
11:10 ~ 11:40	프랑스의 공공언어 정책 —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권리	이현주(인천대학교 교수)
11:40 ~ 11:45	방송 준비, 방역	
11:45 ~ 12:15	한국어 공공언어를 위한 챗봇 설계 방안	이지용(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15 ~ 13:00	점심 및 전체방역	
제2부	주제2: 공공언어 순화의 실제	사회: 김홍범(한남대)
13:00 ~ 13:30	공공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 정책 현황과 미래	박성민 (세종학당재단 온라인교육지원센터장)
13:30 ~ 13:35	방송 준비, 방역	
13:35 ~ 14:0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현황	박동근 (대진대학교 교수)
14:05 ~ 14:10	방송 준비, 방역	
14:10 ~ 14:40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 사업	이대성(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4:40 ~ 14:45	방송 준비, 방역	
14:45 ~ 15:15	방송언어의 오용 사례 분석과 순화 방안 연구	유지철(KBS 아나운서)
15:15 ~ 15:20	방송 준비, 방역	
15:20 ~ 15:50	법원 공공언어 순화의 현황과 과제	서경숙 (대법원 국어자문관)
15:50 ~ 16:00	폐회식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김홍범(한남대)

2022년

때: 2022년 10월 6일(목) 10:00 ~ 16:50

곳: 국립한글박물관 강당

* 대면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576돌 한글날 기념 제14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 창제와 쉬운 말, 쉬운 글

등록 ·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0:00 ~ 0:10	개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10:10 ~ 0:20	축사	김영수(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제1부	주제1: 우리 글 탄생과 언어 민주화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0:20 ~ 10:50	훈민정음 이전 한국의 말글생활	장윤희(서울대학교 교수)
10:50 ~ 11:20	훈민정음 창제와 백성들의 언어생활 변화	김유범(고려대학교 교수)
11:20 ~ 11:50	훈민정음 창제 후 조선조 중세기 한글 민주화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1:50 ~ 12:20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어 및 한글 연구에 관하여	김병문(연세대학교 교수)
12:2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우리 말글 성장과 진단	사회: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3:30 ~ 14:00	국어 순화의 참된 뜻	김일환(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00 ~ 14:30	화합과 협력의 언어: 한국수어 문법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교수)
14:30 ~ 15:00	갈등의 말, 협력의 말	신유리(연세대학교 강사)
15:00 ~ 15:30	일간지의 한글 표기 확대 양상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5:30 ~ 16:30	종합토론	사회: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16:30 ~ 16:50	폐회식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2023년

때: 2023년 10월 5일(목) 10:00 ~ 17:10

곳: 국립한글박물관 강당

577돌 한글날 기념 제15회 집현전 학술대회

대주제: 한글문화 발전과 한글 교육의 미래

등록 ·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 교수)
10:00 ~ 10:10	대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10:10 ~ 10:20	축사	김영수(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제1부	주제1: 한글문화의 발전 과정과 양상	사회: 김홍범(한남대 교수)
10:20 ~ 10:50	외솔의 가로쓰기 실현과 출판문화의 발전	홍헌보(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교육부장)
10:50 ~ 11:20	대중매체에 드러난 한글 사용 양상의 변화	김한샘(연세대학교 교수)
11:20 ~ 11:50	한글 디지털 데이터와 인문학의 진보	한송화(연세대학교 교수)
11:50 ~ 12:20	한글의 보급과 과학 문명의 발달	이준환(전남대학교 교수)
12:20 ~ 12:50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통합	김은영(네이버)
12:5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한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교수)
14:00 ~ 14:30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글 글쓰기의 미래	전우천(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4:30 ~ 15:00	소프트웨어 코딩과 한글 교육	이재호(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5:00 ~ 15:30	광복 이후 교과서 매체 진화와 디지털 교과서	허재영(단국대학교 교수)
15:30 ~ 16:30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 고찰	이선중(배재대학교 교수)
16:30 ~ 17:00	종합토론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원장)
17:00 ~ 17:10	폐회식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교수)

2024년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강당

일시: 2024년 10월 7일(월) 10:30 ~ 16:10

578돌 한글날 기념 제16회 집현전 학술대회
대주제: 우리 말글 존중의 근본 사상과 우리 말글의 발전 방향

등록 ·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0:30 ~ 10:40	대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10:40 ~ 10:50	축사	김일환(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제1부	주제1: 우리 말글 존중의 근본 사상과 한글 위기 극복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0:50 ~ 11:20	대한제국 시절 주시경, 헐버트 중심 한글 연구와 투쟁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11:20 ~ 11:50	일제 강점기 우리 말과 한글의 투쟁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11:50 ~ 12:20	해방 직후 한글 위기와 우리 말글 투쟁	김병문(연세대학교)
12:20 ~ 12:50	국가 교육과정 발전기 한글 위기 극복과 발전 과정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12:5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인공지능 시대 우리 말글의 발전 방향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4:00 ~ 14:30	전자 혁명, 인공지능 시대 한글문화와 의사소통의 변화	김들풀(한국어인공지능학회)
14:30 ~ 15:00	초세대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의미와 새로운 소통의 문제에 대한 고찰	변순용(서울교육대학교)
15:00 ~ 15:30	에듀테크(EdTech)를 활용한 한글과 한글문화 교육 확산 방안	이은우(비상교육)
15:30 ~ 16:0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6:00 ~ 16:10	폐회식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2025년

-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1, 2강의실
- 일시: 2025년 10월 13일(월) 10:30 ~ 16:10

579돌 한글날 기념 제17회 집현전 학술대회

대주제: 디지털 혁명 시대 한글과 한국어 발전 가능성과 과제

등록 ·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
10:30 ~ 10:40	대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10:40 ~ 10:50	축사	한수(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제1부	주제1: 한글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사회: 김홍범(한남대)
10:50 ~ 11:15	남북 언어 차이 극복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권재일(서울대학교)
11:15 ~ 11:40	해득에서 문해력으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의 확장 가능성 탐색	김은혜(한남대학교)
11:40 ~ 12:05	한글로 적는 대상의 확대와 과제	고동호(전북대학교)
12:05 ~ 12:30	한글 제자 원리와 디자인 상용화 가능성	우실하(한국항공대학교)
12:3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발전 가능성과 과제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4:00 ~ 14:25	인공지능 주권 확립과 한글의 역할	이재호(경인교육대학교)
14:25 ~ 14:50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현황과 과제	백재파(동아대학교)
14:50 ~ 15:15	인공지능의 한국어 일반상식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필요 정보 탐색	김양진(경희대학교)
15:15 ~ 15:40	외국어 방송언어 한국어 자동번역 어디까지 왔나?	정병창(경상국립대학교)
15:40 ~ 16:00	종합토론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6:00 ~ 16:10	폐회사	폐회사: 이창덕(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579돌 한글날 기념

제17회 집현전 학술대회

디지털 혁명 시대 한글과 한국어 발전 가능성과 과제

펴낸이 이 창 덕
펴낸 곳 외 솔 회
박은 곳 한국문화사
펴낸 날 2025. 10. 2.

서울 종로구 종로12길 6, 6층 우)03189

전화 02-734-5048 전송 02-734-5049
손전화 82-(0)10-9449-5048



누리집

www.oesolhoe.or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EqDJ3FyNMQE>